

# 1%의 나눔 10년의 동행 100%의 희망!

한 걸음씩 나아간 3,650일의 여정





2023  
포스코1%나눔재단  
10주년 기념백서



1%의 나눔  
10년의 동행  
100%의 희망!

한 걸음씩 나아간 3,650일의 여정

Cover Story

작은 나눔의 도토리에서 울창한 희망의 숲까지

시작은 작은 나눔이었습니다.  
작은 나눔이 모여 싹을 틔울 수 있는  
도토리의 모양새를 갖추면  
그렇게 10년이라는 동행의 시간이 흘러  
나무가 자랍니다.  
긴 여정의 동행은 마침내 희망이라는  
앞을 틔워 숲을 이루고  
울창한 세상을 만들어 냅니다.

- '상상이상 사이언스' 교사 출신, **진관우** 한글화가 -



## Overview

- 08 발간사
- 10 축사

## 1%의 나눔 희망의 씨앗이 뿌려지다

- 14 포스코1%나눔재단 소개
- 18 1% 나눔 History

## 10년의 동행 나무가 자라 숲을 이루다

### ● 사회 구성원의 성공적인 자립 지원

- 26 미래세대 성장
- 38 다문화가족 정착
- 46 장애인 자립

### ● 지속가능한 사회·문화적 기반 마련

- 60 자립공간 건립
- 78 현지 자립기반 강화
- 84 문화예술 보존

### ● 기부자 참여로 선순환 나눔문화 구축

- 96 임직원 봉사
- 108 국내외 맞춤 공헌
- 120 기부자 주도 나눔

## 100%의 희망 더 나은 세상으로 향하다

- 130 국내 대표 임직원 참여 재단
- 136 기부자 좌담회
- 140 나눔의 연결
- 144 사회공헌 담당 기부자 희망 메시지
- 146 나에게 포스코1%나눔재단이란?

## Appendix

- 152 숫자로 보는 재단의 10년
- 158 나눔활동 지도
- 162 역대 수상 현황
- 164 기부자가 바라는 미래의 나눔이란?
- 166 희망을 담은 슬로건 공모전
- 167 따뜻한 마음이 모여 만든 1% 이야기
- 168 언론에 비친 재단 소식



##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2013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포스코 그룹사 임직원들이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찾은 해답은 바로 포스코1%나눔재단이었습니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임직원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부터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곳곳의 어려운 이웃에게도 나눔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진심 어린 관심이  
모이고 모여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커다란 동력이 되었습니다.

포스코1%나눔재단의 나눔을 향한 첫 발걸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 발간사



##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1% 나눔

포스코 임원 및 직책자를 중심으로 시작된 급여 1% 나눔이 밑거름이 되어 2013년 직원들까지 참여하는 포스코1%나눔재단이 탄생하였고, 어느덧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한 지난 10년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1%의 나눔’이라는 비전 아래, 국내외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눔의 손길을 전하며 1% 나눔을 확산시켜 온 여정이었습니다.

3,650일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포스코그룹과 협력사 임직원들은 매월 1% 나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부자들의 진심과 정성을 토대로, 우리 포스코1%나눔재단은 지난 10년 동안 여러 협력기관들과 함께 도움이 손길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의미 있는 사업을 펼치며 나눔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한 지난 10년은  
1% 나눔을 확산시켜 온 여정이었습니다.

3,650일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포스코그룹과 협력사 임직원들은  
매월 1% 나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 왔습니다.”

2018년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선포한 이후, 1%나눔재단에 대한 임직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크게 확대되었고, 기부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연말 작은 나눔 ‘1%마리채(My Little Charity)’와 기부자 주도 봉사활동인 ‘Change My Town’을 도입해 임직원이 직접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두드림’과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 4차 산업형 인재 육성을 위한 ‘장애인 디지털 아카데미’ 등을 통해 미래세대와 다문화가족,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 구성원들의 꿈과 자립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희망공간’과 장애예술인의 대중화를 지원하는 ‘만남이 예술이 되다’ 등을 통해 사회·문화적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지고자 했으며, 이런 다양한 공헌 활동을 통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100%의 희망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재단은 국내 임직원 주도 재단 중 최고의 재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동안 함께해 준 기부자 여러분과 협력 기관들의 무한한 신뢰와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 나눔의 작은 씨앗이 싹을 틔워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우람한 나무로 자라 커다란 숲을 이루듯, 기부자 여러분들이 건넨 따뜻한 마음과 도움의 손길은 우리 사회 곳곳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보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1%나눔재단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우리 재단은 계속해서 따뜻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스코1%나눔재단 이사장 **최정우**



# 축사

포스코1%나눔재단 창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사회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신 최정우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포스코1%나눔재단과 한국해비타트와의 인연은 매우 특별합니다. 포스코1%나눔재단과 한국해비타트는 2014년부터 베트남 봉따우 스틸 빌리지 등 국내외에 있는 주거취약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포스코1%나눔재단과의 협업 덕분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A&C, 포스코와이드 등 포스코 그룹사 임직원 분들이 함께하는 주거환경개선과 이동식주택건립, 국내외 희망의 집짓기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여 아동부터 고령의 독거노인가정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포스코1%나눔재단의 창립 1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거듭 성장 발전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해비타트 이사장 **윤형주**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 **유원식**

더 나은 세상을 향한 1%의 나눔이라는 비전을 품고 지난 2013년부터 그룹사 및 협력사 임직원분들과 함께 다양한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는 포스코1%나눔재단의 창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포스코1%나눔재단 창립 10주년은 기아대책에게도 남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2013년 11월 12일 포스코1%나눔재단은 창립 소식을 공표함과 동시에 기아대책과 파트너십을 맺고 필리핀 태풍 피해자 지원사업을 첫 번째 나눔활동으로 결의하였습니다. 당시 구호성금은 피해지역 이재민들을 위한 초동대응과 조기 복구를 진행하는데 큰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빈민학교 환경개선 사업 등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으며, 2019년부터는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Change My Town'



따뜻한동행 이사장 **김종훈**

포스코1%나눔재단의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1%의 나눔'으로 100%의 희망을 채워 가는 최정우 이사장님과 후원자님 그리고 사무국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9년부터 따뜻한동행은 포스코1%나눔재단과 함께 장애인을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귀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1% 나눔이 100%의 희망으로 채워가는 것에 대해 종종 전해 들곤 합니다.

'희망공간'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장애 아동 센터를 이용하는 한 어머니께서는 "아침이면 엄마의 품을 떠나지 않던 아이가 즐거운 마음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센터에 간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었습니다. 첨단보조기구를 지원받은 한 국가 유공자께서는 "직장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졌다"며 행복감을 전해주었습니다. '장애인 디지털 아카데미'를 통해 코딩을 배우고 유명 IT회사의 코딩 개발자로 첫 출근한 두 자녀의 가장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참여하는 1%의 나눔은 수혜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를 희망으로 넘쳐나도록 채워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1%의 나눔은 '할 수 없다'를 '할 수 있다'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포스코그룹의 1% 나눔 활동은 우리 사회를 좀 더 밝고 따뜻하게 할 수 있다는 대표적인 모델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10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만들어 낼 더 큰 변화와 기적을 기대하며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라는 기부자 주도형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기부자에게는 재능봉사에 따른 긍지와 보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아대책은 지난 10년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신뢰 깊은 파트너십을 다져왔습니다. 앞으로도 공존과 공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포스코1%나눔재단과 함께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사회 변화를 선도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포스코1%나눔재단의 창립 1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1% 나눔'을 적극 실천해 나가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실 임직원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의 나눔

## 희망의 씨앗이 뿌려지다

행복한 변화의 시작, 1% 나눔  
희망의 씨앗을 싹 틔우고 행복한 변화를 꽃피우는  
포스코1%나눔재단의 나눔활동,  
그 아름다운 3,650일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 포스코1%나눔재단 소개

## 포스코1%나눔재단은

2013년 11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2011년 10월부터 포스코그룹 임원 및 부장급 이상의 직책자들이 급여의 1%를 기부하면서 시작된 1% 나눔은 2013년 2월부터 일반 직원이 참여하면서 큰 추진력을 얻게 되었고, 점차 협력사로 전파되어 2023년 11월 현재 총 3만 3천여 명의 포스코그룹 및 협력사 임직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에 부응하여 포스코그룹은 회사 차원에서도 각 그룹사 임직원이 기부한 금액과 동일하게 매칭 그랜트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포스코의 창업 정신과 포스코그룹의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세대, 다문화가정, 장애인, 기타 취약계층 대상으로 공헌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며, 사회문제 해결의 롤 모델을 제시해 왔습니다. 청소년과 다문화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 자립 지원 사업을 펼쳤고, 포스코그룹의 강점과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사회 기반 강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더 나아가 직원들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공헌사업을 직접 선정하는 등 능동적인 기부자 참여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1%나눔재단은 소중한 급여의 일부를 기부하는 자체 사업 선정 과정에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1% 나눔활동의 공감대를 넓히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은 본인이 출연한 기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고, 나눔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더욱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포스코1%나눔재단이 심고 가꾸어 온 나눔의 씨앗은 커다란 나무가 되고 울창한 나눔의 숲이 되었습니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 온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설립일** 2013년 11월 12일

**주요사업** 미래세대 지원 | 다문화가정 지원 | 장애인 지원 | 기타 소외계층 지원

**설립목적** 포스코1%나눔재단은 우리 사회에 도움이 꼭 필요한 소외된 1%를 위해 존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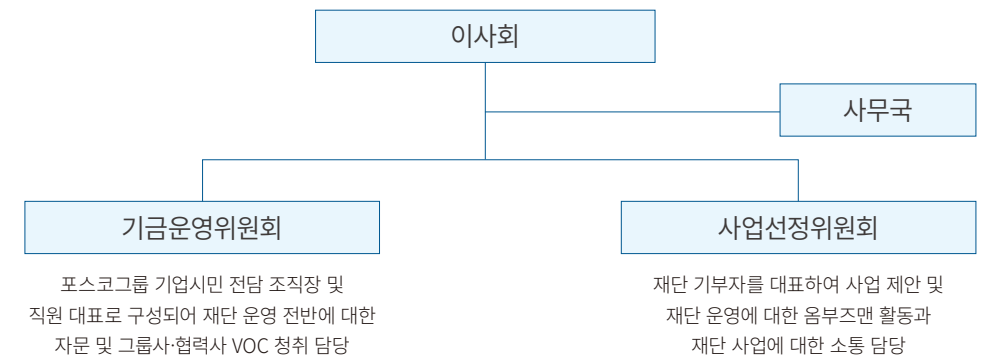
**VISION** 더 나은 세상을 향한 1%의 나눔  
We share to make a better future

## 재단 BI



포스코1%나눔재단 BI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환경과 자연을 지키려는 노력은 아름다운 녹색 지구와 나뭇잎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실천하는  
서로를 위한 나눔은 모두를 연결하는 원형의 선으로,  
서로를 위한 나눔의 마음과 그 결실은 따뜻한 태양, 희망의 태양으로 표현되었습니다.

## 조직도



## 이사진



**최정우** 이사장  
現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나종민** 이사  
現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前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유성희** 이사  
現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원장  
前 한국 YWCA 상임이사



**김윤태** 이사  
現 양주큰길요양병원 재활의학과 원장  
前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원장



**최재성** 이사  
現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前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



**이복실** 이사  
現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  
前 여성가족부 차관



**배홍기** 감사  
現 서현회계법인 대표  
前 삼정KPMG 부대표



# 임직원의 1% 나눔운동에서부터 1%나눔재단 설립까지

## 1% 나눔운동의 시작

“포스코가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사명이 있고, 이와 더불어 어려운 이웃들과 공생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섬으로써 위대한 기업을 넘어 사랑받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  
2011년 9월, 임원회의 내용 중



1% 나눔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직원의 모습

지난 2011년, 정준양 회장은 임원회의에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한 포스코는 좋은 기업, 위대한 기업을 넘어 사랑받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포스코가 사회적 책임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공생하며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행동으로 출선하여 매월 급여의 1%를 기부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곧 포스코와 전 그룹사 임원들의 동참으로 이어졌고, 그 해 하반기부터는 포스코와 각 그룹사 부장급 이상 830여 명도 기부에 동참하였습니다. 1%나눔운동으로 모인 성금은 그 취지에 맞게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

는데 쓰기로 하고, 첫번째 사업으로 결혼이주 여성과 자녀들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2012년 2월 2일 한국외국어대와 ‘이중언어 역량 강화를 위한 언어영재 교실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결혼 이주민 중에서 모국어 및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중언어 전문강사 육성과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언어 및 문화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1%나눔운동이 이어지며 2013년 4월에는 노경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이 나섰습니다. 노경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은 포스코가 지역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으로 지속 성장해 나가는데 동참한다는 의미로 1%나눔운동 참여를 위한 서약을 시작했고, 이러한 선한 영향력은 팀 리더급과 일반직원, 협력사 임원들에게까지 확산되었습니다. 포스코그룹으로 나눔운동이 점점 확산되어 가자, 같은 해 5월, 나눔활동에 참여한 임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지역사회에 보다 체계적인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자 1%나눔기금운영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임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1% 공헌사업을 펼치기 위해 직원 대의기구 대표들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직원들의 VOC를 수렴해 사업을 제안하는 등 나눔활동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 포스코1%나눔재단의 설립

1%나눔운동이 포스코그룹 임직원으로 확산되며 누구나 동참하는 운동으로 공감대가 형성될 무렵, 2013년 8월 8일 포스코는 정기 이사회를 열고 1%나눔운동으로 모인 기금을 활용한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해 1%나눔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나눔으로 조성한 임직원 기부금을 기부자인 임직원이 원하는 공헌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익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입니다. 나아가 임직원의 1%나눔활동 참여에 대한 회사 차원의 격려와 지속적인 참여 독려를 위해 매칭 기금 출연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하며, 1%재단에 회사 임직원 기부금 규모만큼 회사 차원의 ‘1:1 매칭그랜트’ 기금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는 ‘2013 아시아 미래 포럼’에서 지역과 함께하고 다른 기업들이 하기 어려운 사회공헌

을 찾아서 한다는 목표를 밝히며 1% 나눔재단을 설립하는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을 선정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임직원들이 원하는 공헌 사업을 폭넓게 하기 위해 여러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마침내 2013년 11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으며 포스코1%나눔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의 초대 이사장은 정준양 회장이 맡았으며, 다양한 사회공헌 전문가로 이사진이 구성되었습니다. 정무성 송실사이버대학교 부총장, 정진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부장, 김해성 지구촌사랑나눔 대표, 정선희 세스넷 상임이사, 김병필 포항 협력사협회장 등 6명이 재단의 이사로, 김재운 삼일회계법인 상무가 감사로 선임되었습니다. 11월 18일 포스코가 포스코1%나눔재단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1%나눔재단은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재단의 첫 사업으로 태풍 ‘하이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필리핀 이재민들에게 1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의하면서 포스코1%나눔재단의 본격적인 공헌 활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포스코1%나눔재단의 설립은 재계의 급여 1% 나눔이라는 새로운 나눔 문화가 산업·경제계에 널리 확산되도록 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였으며, 임직원이 사회공헌 활동의 자발적인 주체가 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는 여론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후, 같은 해 12월 31일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재단에 기부한 포스코그룹 임직원들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스코1%나눔재단 초기 이사진

## 포스코1%나눔재단의 초기 사업

포스코1%나눔재단은 설립 이후 초기에는 ‘지역사회 역량강화’, ‘취약계층 지원’, ‘문화유산 보존계승’을 주요 목적으로 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먼저, 포스코그룹 사업장 인근의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포항과 광양의 위기 청소년,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스틸 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안락한 터전을 지원하였으며, 탈북 청소년과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돕는 ‘친친무지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베트남 봉파우에서는 빈민지역 집짓기 프로젝트인 ‘스틸 빌리지’ 사업을 추진하였고, 생활고로 전승 단절 위기에 놓여 있는 금속분야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를 지원해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세대를 잇는 작업 이음’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포스코가 창립 초기부터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을 꿈꾸며 꾸준히 지역에 대한 투자와 나눔활동을 전개했던 일이 씨앗이 되어 임직원들의 동참 아래 급여 1%나눔과 봉사로 꽃을 피우게 되었고, 포스코1%나눔재단의 출범으로 기부자의 마음이 담긴 기부금을 국내·외 도움이 필요한 곳에 더욱 의미 있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임직원의 꾸준한 기부와 참여가 지속되면서 오늘날 포스코1%나눔재단은 연간 100억 원 규모로 운영되는 국내 대표 재단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포스코1%나눔재단 1호 사업인 필리핀 '하이옌' 태풍피해 긴급 구호



# 1% 나눔 History

포스코1%나눔재단은 지난 10년간 미래세대, 다문화가족, 장애인 등 주변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공헌 사업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2013



- 02 • 직원 1% 나눔 참여
- 11 • 포스코1%나눔재단 설립
- 12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 포스코그룹사 매칭그랜트 출연
  - 필리핀 수해현장 긴급구호 성금 기탁

2014



- 01 • 광양 '해피 스틸 복지센터' 준공
- 02 • 포스코그룹사 사회공헌사업 지원
- 05 • 시각장애인 관현맹인전통예술단 카네기홀 공연 지원
- 09 • 베트남 사랑의 집 건축 MOU
- 11 • 인도네시아 사회적기업 PT.KPSE Services Indonesia 설립
  - 재단 1주년 '감사 나눔의 밤'

2015



- 02 • '임직원 글로벌 봉사단' 1기 파견(베트남)
  - 다문화 청소년 맞춤형 진로 지원
  - '친친무지개' 프로젝트 1차 연도 우수사례 발표회
- 04 • 우리의 영웅을 위한 작은 음악회(문래)
- 06 • 서울 강북 청소년 Dream센터 개소
- 07 • 세대를 잇는 작업 이음展(두석장)
- 08 • 우리의 영웅을 위한 작은 음악회(고령)
  - '임직원 글로벌 봉사단' 2기 파견(베트남)
- 10 • 우리의 영웅을 위한 작은 음악회(안산)
- 11 • 재단 2주년 '감사 나눔의 밤'
- 12 • 인천 '동구랑 스틸랜드' 기공식

2016



- 01 • '임직원 글로벌 봉사단' 3기 파견(베트남)
- 02 • '친친무지개' 2차 연도 우수사례 발표회
- 03 • 우리의 영웅을 위한 작은 음악회(군산)
- 05 • 우리의 영웅을 위한 작은 음악회(제천)
- 07 • 우리의 영웅을 위한 작은 음악회(영암)
- 08 • '임직원 글로벌 봉사단' 4기 파견(베트남)
- 09 • 세대를 잇는 작업 이음展(장도장)
- 11 • 재단 3주년 '감사 나눔의 밤'

2017



- 01 • '임직원 글로벌 봉사단' 5기 파견(베트남)
- 02 • '친친무지개' 3차 연도 우수사례 발표회
- 05 • 미얀마 '스틸 브릿지' 건립
  - 인천 '동구랑 스틸랜드' 완공
- 06 • 베트남 '스틸 빌리지' 종합 준공
  - 우리의 영웅을 위한 작은 음악회(광주)
- 08 • '임직원 글로벌 봉사단' 6기 파견(태국)
- 09 • 우리의 영웅을 위한 작은 음악회(서울, 음성, 대구, 부산)
- 10 • 멕시코 지진피해 성금 전달
- 11 • 세대를 잇는 작업 이음展(주물장)
  - 포항 지진피해 성금 전달
  - '스틸 빌리지' 프로젝트, UN SDGs 등재





- 01. '임직원 글로벌 봉사단' 7기 파견(태국)
  - UNESCO와 '학교 밖 아이들' 지원 사업 파트너십 체결
- 06. 우리의 영웅을 위한 작은 음악회(인천·광양)
- 07. 포스코 '스틸 빌리지' UN본부 SDGs 우수사례 발표
- 08. '임직원 글로벌 봉사단' 8기 파견(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 성금 전달
- 09. 서대문구 청년 셰어하우스 입주식
- 10. 우리의 영웅을 위한 작은 음악회(구미·익산)
- 11. 세대를 잇는 작업 이음展(대장장)



- 04. 포스코1%나눔재단 최초 모바일 연차보고서 발간
- 06. 장애예술인 대중화 프로젝트 '만남이 예술이 되다' 신규 론칭
  - 장애인 체육선수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 '희망드림' 신규 론칭
- 10. 국가보훈부와 '국가유공자 첨단보조기구 지원' 사업 MOU 체결
- 12. 연말 온라인 기부활동 '1%마리체' 신규 론칭



2018

2020



2019

- 03. 다문화 청소년 맞춤형 진로 지원 '친친무지개'
- 04. 기부자 아이디어 공모전 'Change My Town' 신규 론칭
- 06. 지역 아동 예술교육 '1% 나눔 아트스쿨' 신규 론칭
- 07.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두드림' 사업 개편
- 09. 다문화 아동 베트남 외가 방문
  - 광양 학대피해아동 쉼터 개소
- 10. 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구 '희망날개' 전달식
  - 찾아가는 과학교실 '상상이상 사이언스' 신규 론칭
  - 다문화 아동 필리핀 외가 방문
- 12. 장애인 이용공간 개선 '희망공간' 포항 리모델링 나린 센터 오픈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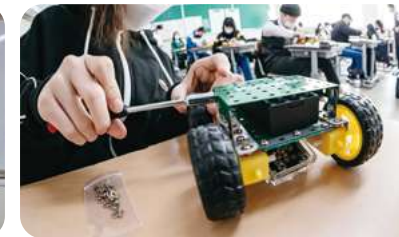


- 05. 여성가족부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MOU 체결
- 07.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두드림' 그룹사 확대
- 08. 지역사회 청소년학습멘토링 사업 '드림스쿨' 런칭
- 09. '희망공간' 개소식
- 10. '희망날개' 전달식
- 11. '국가유공자 첨단보조기구 지원' 사업 전달식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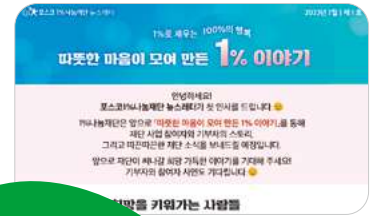
2022

- 03.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VR직업훈련센터' 구축
- 04. 장애예술인 '힐링 버스킹' 진행
- 05. 장애인 디지털 인재육성 및 취업지원 '장애인 디지털 아카데미' 신규 론칭
- 08. '장애인 e스포츠센터' 구축(포항, 광양)
- 10. 국가유공자와 소방공무원, 군인 대상 첨단보조기구 지원
- 12. 다문화가족 우수 대학생 장학금 전달 및 네트워크 행사 진행
  - '상상이상 사이언스'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선정, 기부자 기부처 발굴 및 기부



2023

- 04.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 1, 2차 연도 성과보고회
  - 2023 글로벌 기업시민콘퍼런스(IGCC)에서 포스코1%나눔재단 소개
- 07. 포스코1%나눔재단 뉴스레터 발간
  - '청소년 지구하다' 신규 론칭
- 09. 포스코1%나눔재단-교육부, 친환경 소재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11. 포스코1%나눔재단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 10년의 동행

## 나무가 자라 숲을 이루다



### 더불어 자라는 숲, 10년의 동행

더 나은 세상으로의 변화를 꿈꾸며 뿌린 씨앗이 싹을 틔워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우람한 나무로 자라며 거대한 숲을 이루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국내외 곳곳에서 꿈을 북돋으며 동행해 오면서  
1% 나눔을 밑거름으로 성장하고 변화한 분야를 돌아봅니다.



## 사회 구성원의 성공적인 자립 지원

포스코1%나눔재단은 미래를 이끌 청소년과 사회적으로 취약한 구성원들이 원하는 꿈을 펼치고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하고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오늘의 꿈이 더 희망찬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24

미래세대 성장

36

다문화가족 정착

44

장애인 자립





# 미래세대 성장

## 미래세대의 푸른 꿈

포스코1%나눔재단은 미래 우리 사회의 주축이 될 아동과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미래를 일굴 수 있도록 학업과 취업을 돕는 사업들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미래세대의 푸른 꿈을 밝히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함께 합니다.

1% 나눔 아트스쿨

청소년 지:구하다

상상이상 사이언스

학교 밖 아이들

드림스쿨

두드림

## 1% 나눔 아트스쿨

### 아이들의 잠재력이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2019~2023년 참여센터 및 아동



아이들은 놀면서 자랍니다. 예술도 아이들에게는 신나고 즐거운 놀이가 됩니다. '1% 나눔 아트스쿨'은 문화예술을 통해 아이들의 잠재력을 성장시키는 참여형 예술 프로그램입니다. 공예, 무용, 문학, 미술, 사물놀이, 음악놀이, 일러스트레이션, 합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체험과 창작활동을 하는 1% 나눔 아트스쿨 활동으로 아이들의 창의력과 잠재력이 성장합니다.

1% 나눔 아트스쿨은 포항·광양의 80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약 6개월간 매주 1회, 총 1,500여 시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지역의 예술을 전공하거나, 예술 강의 경험이 있는 청년층으로 구성되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합니다. 방과 후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은 친구들과 소통하고 행동을 표현하는 법을 키워갑니다. 또한, 즐거운 상상과 배웠던 기량을 펼치는 무대를 경험하며 아이들은 한 걸음 더 성장하고, 마음도 쑥쑥 자라납니다. 1% 나눔 아트스쿨은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한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협력기관: 한국메세나협회

연도별 참여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

2019년  
총 76개(포항 59개, 광양 17개)  
총 1,029명(포항 782명, 광양 247명)

2020년  
총 79개(포항 61개, 광양 18개)  
총 1,072명(포항 814명, 광양 258명)

2021년  
총 80개(포항 62개, 광양 18개)  
총 1,099명(포항 844명, 광양 255명)

2022년  
총 80개(포항 62개, 광양 18개)  
총 1,208명(포항 920명, 광양 288명)

2023년  
총 80개(포항 62개, 광양 18개)  
총 1,200명(포항 920명, 광양 280명)



#### 지원내용

##### 아동

미술, 음악 등 분야별 다양한 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

##### 강사

주제별 예술 수업을 위한 재료비, 강사비 등 프로그램 전반의 모든 비용

### 1% 나눔 아트스쿨 참여자 인터뷰

66  
‘1% 나눔 아트스쿨’을  
통해 아이들의 꿈이  
자랍니다.

99



**Q. ‘1% 나눔 아트스쿨’은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지역 아동들은 예술 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저희 하늘꿈지역 아동센터에서는 2019년부터 포스코1%나눔재단 및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매년 ‘1% 나눔 아트스쿨’ 동영상, 공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Q. ‘1% 나눔 아트스쿨’ 동영상 제작, 공예에 참여하면서 인상에 남았던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이들이 함께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협동작품을 만들 때 부족하더라도 노력하며 서로 맞춰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개인 작품을 만들 때와는 다르게 공동작품을 만들 때 아이들의 분위기가 또 달라서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열정이 담긴 멋진 작품을 모아 두었다가 1년에 한 번씩 지역의 관계자들과 학부모들과 함께 장소를 대관하여 발표회 겸 작품 전시회도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Q. ‘1% 나눔 아트스쿨’ 활동 중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소개해주세요.**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한 4년 전 초반에는 수업 시간에 엄청 떠들고, 집중을 못하거나 하지못해 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하며 아이들이 점점 수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회차가 거듭되면서 수업을 기다렸고 4년 차에 접어들자 수업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자신감과 자존감이 향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Q. ‘1% 나눔 아트스쿨’을 통해 아동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1% 나눔 아트스쿨’의 예술 교육으로 아이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함은 물론 심리적, 정서적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창작활동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친환경 업사이클링 콘텐츠를 활용한 작품들을 만들며 환경 의식 및 실천 행동을 향상시켜 지역사회의 작은 변화를 가져오고 이를 통해 더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눈에 띄게 손재주가 있고 남다른 아이디어로 작품을 완성하는 한 친구의 재능을 발견하여, 학교와 단체의 공모전에 참여하였고, 좋은 성과도 내어 디자이너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나눔은 ‘변화’다.**

나눔이란 서로에게 즐거움과 행복과 감사로 이어지며, 반드시 좋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윤성애 포항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

## 청소년 지:구하다 지속가능한 미래, 생물다양성에서 배웁니다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줄이고 회복시키는 것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포스코1%나눔재단은 미래 생태계 보호에 앞장설 청소년 육성을 목표로 생물다양성 보전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지:구하다’를 2023년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청소년 지:구하다’는 주인공인 꿀벌의 이야기를 따라 다양한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실천방법을 쉽게 학습하고 감수성을 높이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위험에 빠진 꿀벌을 구하는 보드게임 ‘Bee Cause, 꿀벌을 구해줘’, 원인과 결과를 이용한 토론, 밀원식물 식재, 생물관찰일지 작성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을 배웁니다.

청소년 지:구하다에 참여한 학생들은 환경 문제를 재미있게 해결하는 경험을 하고, 참여 학생들 중 우수 교육 수요자는 유엔환경계획(UNEP)과 에코맘코리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주최하는 ‘UN생물다양성유스포럼’에 참가 기회도 얻었습니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이해와 실천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협력기관: 에코맘코리아



2023년 참여 초등학교 및 학생

포항·광양 20 개교

1,500여 명



# 상상이상 사이언스

## 과학 꿈나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갑니다

미래의 과학 꿈나무를 키워내기 위해 찾아가는 과학교실이 있습니다. ‘상상 이상 사이언스’는 교육 여건이 부족한 지역의 학교를 찾아 과학자의 꿈을 북돋우는 창의개발 교육사업입니다. 포항·광양 지역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창의 체험, 탄소중립 등 환경교육 및 진로 적성 검사 등을 제공하여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과학 분야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합니다.

상상이상 사이언스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상상교사들이 학교로 찾아가 즐겁게 수업을 진행합니다. 친환경 소재로 철의 장점과 포스코의 탄소중립 정책을 게임, 학습,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배울 수 있으며, 미래 핵심산업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 알아보고 진로탐색까지 해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창의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 꿈나무를 양성하는 상상이상 사이언스의 체험형 과학수업은 올해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맺어 교육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였으며 이로써 새로운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는 청소년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협력기관: 씨드콤플(창의 체험·환경 교육), 더한교육(진로교육)



주요 정부기관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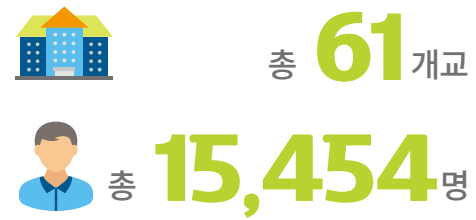


2022년 교육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환경부 우수교육 프로그램 인증 **2**건

- 그린수소 주제로 개발한 디지털 방탈출(2020년)
- 수소환원제철 및 도시재생(2021년)

### 2019~2023년 참여학교 및 학생



2019년	6개교	543명
2020년	11개교	1,640명
2021년	20개교	2,773명
2022년	30개교	3,958명
2023년	61개교	6,540명

### 기부자 인터뷰

‘상상이상 사이언스’ 교사 출신, 포스코 입사

#### Q. ‘상상이상 사이언스’ 프로그램에 어떻게 교사로 참여하셨나요?

대학 시절, 포스코대학생봉사단 비온드 9기로 활동하면서 포스코그룹과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제 가치관 확립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포스코 입사 준비를 하던 중, 친구를 통해 ‘상상이상 사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어 포스코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서 참여하였습니다.

#### Q. 교사로서 진행하신 프로그램과 학생들의 반응도 소개해주세요.

‘상상이상 사이언스’는 창의 체험을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를 선물하고 진로 선정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엘리오’라는 RC카를 조종하면서 제철 공정과 철과 금속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TV 화면에 나오는 환경 퀴즈를 풀어나가는 형식의 ‘To Green Earth’라는 환경 관련 교육에 많은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였습니다.

#### Q. ‘상상이상 사이언스’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나요?

‘상상이상 사이언스’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진로 선택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게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과학에 관심 없던 학생들도 흥미를 갖게 되었으며 철과 금속 소재의 활용과 탄소중립 등 환경 문제와 관련된 내용도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주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 Q. 교사로서 참여하면서 의미 있게 느낀 점과 스스로 변화한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상상이상 사이언스’ 참여가 남긴 의미와 변화는 매우 큼니다. 교사로 참여하면서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나와 다른 나 이대의 사람과의 소통 방법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이 제게는 “새로운 경험과 배움”이라는 의미로 남습니다. 이런 경험을 기반으로 2021년 10월 포스코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 나눔은 ‘대화’다.

해외에서 집짓기 봉사활동을 했을 때, 집에 거주하실 분을 호파트너라 칭하는데, 소통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충분히 그분들이 고마워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눔의 과정에서 다양하고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눔은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완 포스코 사원(포항 STS제강부 근무)

66  
꿈을 향한 도전,  
성장배움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99





# 학교 밖 아이들

## 전 세계 아동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응원합니다



초등학교조차 갈 수 없는 아이들이 전 세계에 6,400만 명이나 됩니다. 가난과 장애, 폭력, 마약, 아동노동, 인신매매, 전쟁, 난민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기회도 잃게 됩니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아동들이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유네스코(UNESCO)와 함께 '학교 밖 아이들 지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약과 폭력, 인신매매에 노출된 태국의 국경 지대와 인도네시아 섬에 방치된 아이들 1,150명(만 11~18세)에게 기초 교육과 함께 식사를 제공하고, 학교 개보수, 교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인프라 조성을 지원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2023년에는 베트남 소외계층 아동 1,000명의 디지털 원격 학습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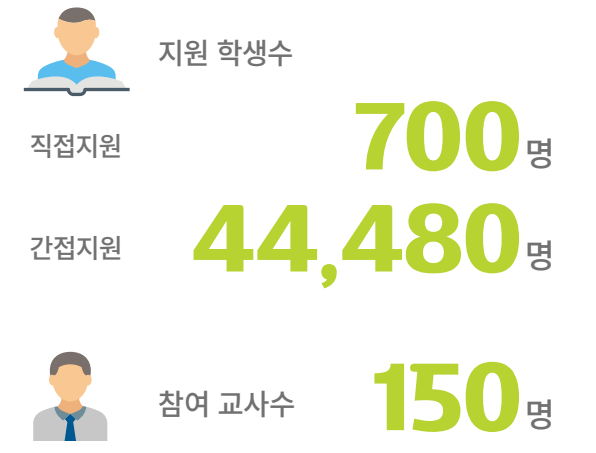
포스코1%나눔재단의 학교 밖 아이들 지원사업은 ASEAN 학교 밖 아동을 위한 주요성과 및 모범사례(UNESCO)로 등록되었으며, 지역 정부가 지속 운영하도록 글로벌 홍보도 이어졌습니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학교 밖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새로운 기회와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계속 응원합니다.

협력기관: 유네스코

### 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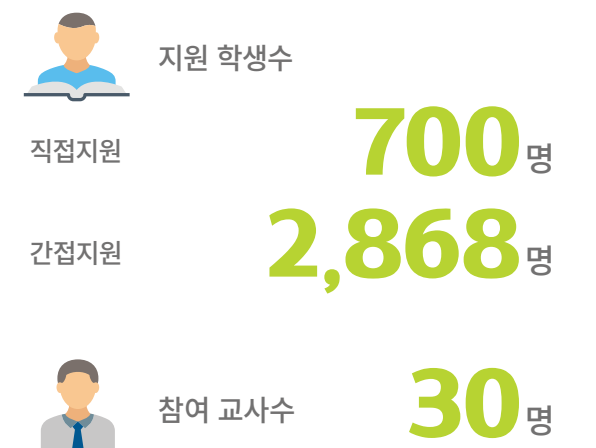
대상지역 : 치앙라이, 탁  
 사업기간 : 2018. 5~2019. 9  
 사업내용  
 • CLC\* 활용 FLS\*\* 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 초·중등 저학년 대상 학생 기본 교육 제공  
 • 정부, 공무원, 교사, NGO 등 역량 개발  
 • Coin initiative 시범운영\*\*\*  
 \* CLC : Community Learning Center,  
 \*\* FLS : Flexible Learning Strategies  
 \*\*\* 취약계층 아동의 독서습관을 기르고 코인을 통한 가족 지원



### 인도네시아



대상지역 : 까라왕, 반텐, 자카르타 북부  
 사업기간 : 2019. 12~2022. 3  
 사업내용  
 •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들 대상 프로그램 지원  
 • CLC 교사 및 관계자 역량 개발, CLC 환경 개선 및 업그레이드  
 • 중퇴 아동 위한 개별 학습 프로그램 및 ICT 장비 제공



### 베트남



대상지역 : 봉따우성, 동탐  
 사업기간 : 2022. 8~2024. 8  
 사업내용  
 베트남 바리아 봉따우성 & 동탐 시의 지역 사회 교육 및 직업훈련센터(CEVTC)를 통해 11~18세 학교 밖 아이들의 유연한 학습과 이전 가능한 기술을 교육하고 이들이 교육 환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 드림스쿨

## 청소년을 위한 1:1 온라인 멘토링을 지원합니다

2021~2023년 참여인원



2021년부터 포스코1%나눔재단에서는 수도권 대비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포항·광양의 중·고등학생들에게 ‘1:1 맞춤형 온라인 학습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발된 청소년들에게는 대학생 멘토들의 캠퍼스를 탐방하며 진학상담 및 멘토링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예체능 분야를 꿈꾸는 학생들에게는 진로 교육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력기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YMCA, 수파자

### 사업현황

- 주요 교과목 학습 멘토링 지원(1:1 온라인 학습 멘토링, 학습 IT기기)
- 예체능 진로 교육비 지원(레슨비, 교재비, 학원비 등)
- 멘토 장학금 지급
- 방학기간 캠퍼스 투어 진행

내신 보충

<본문 1 : The right to be different>

In many ways, 42-year-old Joseph Palmer was an ordinary person. He had a job and cared for his family. But in 1830, after he moved to a small town in Massachusetts, he began to face difficulties. Joseph looked different from other people: he had a long beard. People did not like it very much.

The town's people avoided the man with a beard. They did not want to sit next to him. They even whispered behind his back, "What is he trying to

[단어]

- right 권리
- ordinary 평범한
- face 인형, 외모
- difficulty 어려움, 고난
- different from ~와 다른
- beard 수염
- avoid 피했다. (ing)
- whisper 속삭이다
- back 뒤



# 두드림

## 청년들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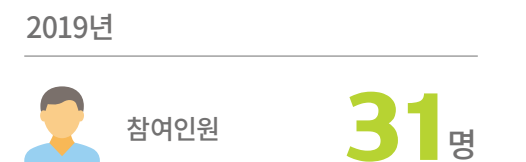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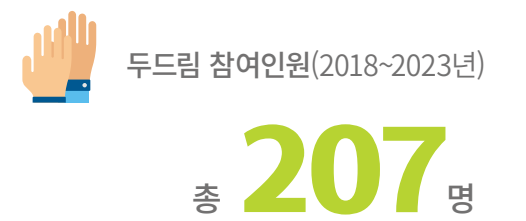
**지원내용**

**자립 지원금**  
취창업 및 생활 지원을 위해  
인당 1천만 원  
수준 지급

### 희망의 발판을 제공하는 성장 로드맵

아직은 따뜻한 보살핌이 더 필요한 나이에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일정 연령이 되면 복지시설을 떠나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입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2,60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들이 홀로서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두드림(Do Dream)’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원하는 진로를 찾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포스코1%나눔재단의 취창업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두드림’은 2018년부터 시작해 포항, 광양 지역을 중심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의 생활안정 및 진로설계를 통한 지원하다가, 2019년 개편하여 전국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희망 진로에 필요한 교육을 개인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창업 분야로도 지원 범위를 넓혀 창업 지원금과 창업 공모 및 창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드림은 진로개발에 필요한 전문교육부터 더 나아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청년들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성장 로드맵을 함께 그리고 있습니다.

협력기관: 한국아동복지협회, 아동자립지원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20년

참여인원 47명

취업인원 13명

2021년

참여인원 65명

취업인원 29명



모집공고 포스터

2022~2023년

참여인원 45명

취업인원 29명

진로교육부터 취업성공수당까지 자립플패키지 지원

‘두드림’은 만 18~27세의 보육시설 퇴소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비부터 진로지원금, 취업준비금, 취업성공수당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취업 전략 수립,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모의 면접 등 진로지원 컨설팅부터 사회복지사의 1:1 밀착 사례관리를 통한 자립 생활, 취업계획 코칭, 지역별 모임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DX 등 그룹 사가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각 회사의 특성을 살려 해외무역, 건설업, IT 등 청년들이 희망하는 분야로의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설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드림’의 실용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드림 참여자 인터뷰

Q. ‘두드림’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본래 심리학을 전공했지만, 사회에 좀 더 이로운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IT 분야로 진로를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비전공자다보니 제대로 된 길을 가이드해 줄 멘토가 절실했죠. 때마침 포스코1%나눔재단의 ‘두드림(Do Dream)’ 3기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Q. ‘두드림’ 활동을 통해 어떤 지원을 받으셨나요?

포스코DX에서 현업으로 일하고 계신 멘토 분과 주기적으로 만나 진로 방향에 대한 가이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전공자가 IT분야에서 어떠한 직무를 할 수 있는지, 교육-인턴 과정은 무엇이 있는지 등 현실적인 레퍼런스를 통해 ‘두드림’ 참여 기간 중 데이터전문가(ADsP), 구글 애널리틱스(Google Analytics) 등 여러 자격증을 획득하고,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사회정보원이 주관한 해커톤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Q. ‘두드림’에 참여하면서 특히 인상에 남은 부분이 있다면요?

‘두드림’은 진로뿐만 아니라 삶과 생활, 저의 일상에 대한 고민 등의 조언도 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며 함께 고민해 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옆에 있는 경험은 정말 따뜻하고 인상 깊었습니다. 입사 불합격 통보로 마음고생이 많았던 때도 멘토의 조언과 격려로 잘 이겨낼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KT에 채용 합격하기까지 ‘두드림’이 곁에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Q. ‘두드림’은 자신에게 어떤 의미로 남았을까요?

‘두드림’에 참여하는 동안 자립준비청년들과 함께 <내일이 기다려지는 마법 같은 일이 내게도 올까요?>라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책을 집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처럼 ‘두드림’ 참여는 제게 내일이 기다려지는 마법 같은 일이었습니다.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라는 걸 스스로 믿게 만들어 준 ‘두드림’은 제 인생에 터닝포인트입니다.

나눔은 ‘스타일’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사회에 이롭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스타일이든 그것을 ‘나눔’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저도 묵묵히, 제 스타일대로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김권석 KT수도권강북본부 컨설팅담당

66  
희망처럼 찾아오는 내일,  
‘두드림’을 통해  
IT 인재로 거듭납니다.  
99





# 다문화가족 정착

##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

따뜻한 세상을 희망하는 포스코1%나눔재단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지원 활동을 비롯해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 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컴퓨터 활용능력 교육 등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친친무지개

결혼이주여성 교육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지원

## 친친무지개

### 무지개처럼 다채로운 꿈을 펼칩니다

####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교육

해마다 증가하는 다문화 아동들, 어렵게 희망을 찾아온 탈북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적응과 미래를 향한 준비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주배경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 적응 및 언어 등의 학습과 실질적인 진로 교육이 필요합니다. 포스코1%나눔재단에서는 다양한 색깔의 무지개처럼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친친무지개’를 운영하였습니다. ‘친친무지개’는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다문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진로 교육 지원 사업으로 지난 2013년 9월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부터 여성가족부 위탁 운영기관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과 함께 해당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 희망 진로 맞춤형 지원 프로젝트

‘친친무지개’는 매년 포항, 광양 및 그 외 지역 다문화 및 이주배경청소년 중 약 50명의 성장 가능성 높은 인재를 선발해 예체능, IT 등 진로 교육비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사례관리 담당 멘토의 1대1 멘토링, 여름캠프 등을 진행하며 자격증 취득, 특기 계발, 기초학습 역량 향상에 안정적인 관리지원도 제공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은 검정고시 응시, 진로 개척을 위해 전문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은 네일, 미용, 정비, 제빵, 컴퓨터 등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연계기관 방문, 우수사례 발표, 장학동창 모임, 정기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진로계발에 도움이 되도록 연계했습니다. 친친무지개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들이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장을 열어주고, 더욱 든든히 하여 지역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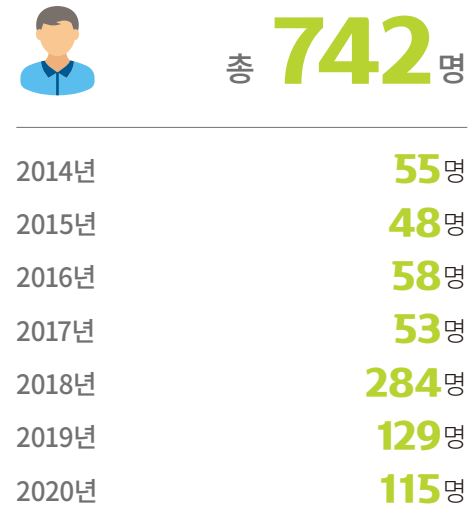
## 이주배경청소년의 꿈이 실현되도록 응원

‘무지개처럼 다양한 배경과 이야기를 가진 청소년들의 친한 친구가 되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가 담긴 이름처럼, ‘친친무지개’를 만난 청소년들은 다양한 꿈을 펼쳤습니다.

참여 청소년들의 열정과 꿈을 향한 노력은 반가운 소식들을 전해왔습니다. 섬유미술·패션디자인을 비롯해 IT, 서양화, 통번역 커뮤니케이션, 환경공학, 호텔조리 등 꿈꾸던 전공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전국 꿈나무 축구대회 최우수 선수상(MVP) 수상, 비바M 음악콩쿠르 고등부 1위, 유학시험 모의고사 전국 수석, 싱글앨범 발매, 각종 자격증 취득 등의 성과가 가득 쌓였습니다. 친친무지개는 7년 동안 742명의 장학생을 배출하고 이들의 진로개발과 성장을 적극 응원하며 꿈 성장 멘토로 함께 했습니다.

협력기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전국),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포항), 광양YMCA(광양)

### 2014~2020년 참여학생 수



## 기부자 인터뷰

다문화가족 지원 봉사 담당

66  
다문화가족에  
생명의 등불을 밝히고  
미래의 희망을  
선사합니다.

99

나눔은 '밝은 희망'이다.

우리의 나눔이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프렌즈봉사단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프렌즈봉사단은 1997년부터 지역사회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007년부터는 다문화 이주여성들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을 위해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Q.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활동을 소개해주세요.**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의 합동 결혼식을 비롯해 다문화가족 고국 방문, 다문화가족 초청 문화행사와 크리스마스 수제 케이크 전달, 다문화가족 추억 만들기,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서포터즈,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연합 봉사활동 등 다양한 지원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Q. 다문화가족 지원 봉사활동을 하면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다문화 이주여성인 마리아님은 알코올 중독으로 폭력을 일삼는 남편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이혼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며 홀로 어린 딸을 키우던 중 2019년 6월, 급성신부전증이 발병해 일주일 2번 신장 투석을 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국적이 없어 국가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아픈 몸을 이끌고 세차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를 돕기 위해 광양시에서 위기 가정 긴급 생활비를 지원 받고, 신장이식을 위해 해피빈 등 모금활동을 통하여 '가정 희생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장기 공여자인 남동생과 간병할 어머니를 한국으로 초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장기이식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 잘못 기록되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수술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필리핀 현지 관공서가 폐쇄되어 필수 서류 수정과 발급도 중단되어, 포스코 필리핀 현지 법인과 주한 필리핀 대사관, 질병관리본부 등에 협조 요청을 하는 글로벌 프로젝트가 전개되었습니다. 다각도로 노력한 끝에 2021년 1월, 드디어 신장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수술 후 마리아님은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울먹였고, 포스코 임직원을 비롯 필리핀 대사관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격려와 감사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Q. 다문화가족 봉사활동을 통해 본인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다문화가족과 소외된 이웃들이 밝은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이어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되새겼습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도움을 받을 곳이 어딘지, 도움을 줘야 할 가정이 어딘지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서 봉사하려고 합니다.

최창록 포스코 과장(광양 생산기술부 근무, 프렌즈봉사단 단장)



## 친친무지개 참여자 인터뷰

“ ‘친친무지개’는 저의 꿈을 이어준 희망의 다리입니다. ”

### Q. ‘친친무지개’는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셨나요?

저는 함경북도 함흥이 고향이고, 북한에서 예술학원에 다니면서 미술을 공부했습니다. 2013년에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왔고, 이제 하고 싶은 미술 공부만 마음껏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2014년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며 주말마다 에어컨 분리 세척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어렵게 공부하던 그때, ‘친친무지개’ 1기가 되었습니다.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을 때 너무 기뻐고, 학원비를 지원받게 되어 알바도 줄이고 미술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 Q. ‘친친무지개’에 참여하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소개해주세요.

‘친친무지개’는 선발된 장학생들이 나눔활동에도 동참하며 참여자들의 사회적 함양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다문화가정 초·중학생들을 위한 공부방인 ‘천국의 아이들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아이들과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연말에는 ‘친친무지개’ 성과 발표 행사에도 참여했습니다.

### Q. ‘친친무지개’ 활동 중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처음에는 입시로 마음의 여유가 없어 한 달에 한 번의 봉사활동도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포항제철소 견학, 영화 관람, 식생활 체험 등 프로그램이 거듭될수록 힐링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쓰레기 줍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우리의 작은 활동으로 환경이 변화되는 모습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때를 계기로 심각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부’와 ‘나눔’이라는 멋진 의미를 어렵듯이 새기게 된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 Q. ‘친친무지개’를 통해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힘들었던 시기에 큰 도움이 되었던 ‘친친무지개’ 덕분에 2016년에 고려대학교 디자인 조형학부에 진학했습니다. 회화와 설치 작업을 하는 순수미술 작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합니다. 그래도 ‘친친무지개’에서 얻었던 에너지를 되새기며 곳곳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친친무지개’와 포스코1%나눔재단에 그때도 고마웠고 여전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나눔은

‘사랑과 평온의 씨앗’이다.

나눔이라는 선행은 현대의 메마른 사회에 사랑을 나누어주는 평온의 씨앗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역시 ‘친친무지개’를 통해 사회환원과 기부와 나눔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결혼이주여성 교육 지원

##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1~2023년 참여인원

총 **1,554**명

2021년 총 **694**명  
검정고시 98명, 컴퓨터 활용교육 596명

2022년 총 **303**명  
검정고시 110명, 컴퓨터 활용교육 193명

2023년 총 **557**명  
검정고시 163명, 컴퓨터 활용교육 394명

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립할 수 있는 직업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포스코1%나눔재단에서는 2021년, 여성가족부와 MOU 체결을 시작으로 포스코 및 그룹사 사업장이 위치한 경북, 전남, 인천에 거주 중인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기초 학습 및 검정고시와 컴퓨터 활용 등 IT 기초교육을 지원했습니다.

협력기관: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지원 내용

취업에 필요한 학력 취득 지원,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검정고시 및 기초 IT교육 지원



2023년 결혼이주여성창업역량강화 및 자립지원사업  
결혼이주여성 스마트교육 '컴퓨터 활용교육'



#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지원

##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다문화가족의 아이들이 밝은 미래를 꿈꾸고 건강한 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포스코1%나눔재단이 함께합니다. 다문화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는 1:1 맞춤형 진로 상담을 통해 이주배경이나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 주체적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제공합니다. 또한 우수한 다문화가족의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에게는 특기를 계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여 우수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밑거름을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2021~2023년 참여인원



총 **846**명

2021년 총 **343**명  
진로지원 324명, 장학금 지급 19명

2022년 총 **326**명  
진로지원 299명, 장학금 지급 27명

2023년 총 **177**명  
진로지원 146명, 장학금 지급 31명

### 지원 내용

중·고등학생 대상 진로상담,  
우수대학생 장학금 지원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인터뷰

**Q. 포스코1%나눔재단과 함께 하셨던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사업'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2019년 9월에 진행된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사업'은 결혼이주여성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모국을 방문해서 가족애를 느끼도록 하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또한 다문화 자녀들이 이중 언어의 중요성을 느끼고, 미래를 설계하는 값진 계기가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엄마 나라와 외갓집 방문뿐만 아니라, 현지 포스코 베트남 법인 방문을 통해 향후 포스코그룹과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 능력을 발휘할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Q.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 중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소개해주세요.**

2022년 한남노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던 포항제철소 '응원 프로젝트'가 기억납니다. 당시 포항제철소가 큰 피해를 입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그동안 포스코1%나눔재단의 지원에 보답할 방법을 생각하다가 수해복구를 위해 땀 흘리고 계신 직원들에게 시원한 물, 물티슈, 컵라면과 간식 등을 보내고자 자발적인 기부 활동을 계획하고 홍보자료를 센터 홈페이지와 다문화 블로그에 올렸어요. 베트남어로 번역해 페이스북에 올린 홍보글을 본 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저도 동참하겠습니다"라는 리플을 달았고, 다른 결혼이주여성이 "나도 입금했어요"라고 댓글을 달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발적인 기부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항상 다문화가족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응원합니다', '모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에 정말 감사합니다' 등의 응원 문구와 성금이 모였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양희은, 서경석입니다>에도 소개되어 많은 분들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Q.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 참여자들에게 어떤 변화 또는 영향을 주었을까요?**

앞서 소개한 에피소드에서 보듯이 포스코1%나눔재단에서 지원해 주신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으로 다문화가족들은 지역사회 중심에서 지역 시민들과 함께 지역을 이끌어 나가는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역 사람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가 함께 발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성 있는 포스코1% 나눔재단의 사회공헌활동에 우리 모두는 더 큰 미래를 위해 함께 성장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들이 보여준 선행은 저에게도 많은 배움과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나눔은 '실천'이다.

나눔의 발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그 마음은 행함으로 실천된다.

손경화 광양시가족센터 센터장

66  
다문화가족이 수혜자에서  
능동적 참여자로,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99



# 장애인 자립

## 장애인을 위한 희망의 날개

포스코1%나눔재단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게 최첨단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희망날개’와 ‘희망공간’, ‘디지털 아카데미’ 등을 통해 보다 밝은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가유공자 첨단보조기구 지원

희망날개

장애인 디지털 아카데미

발달장애인 VR직업훈련센터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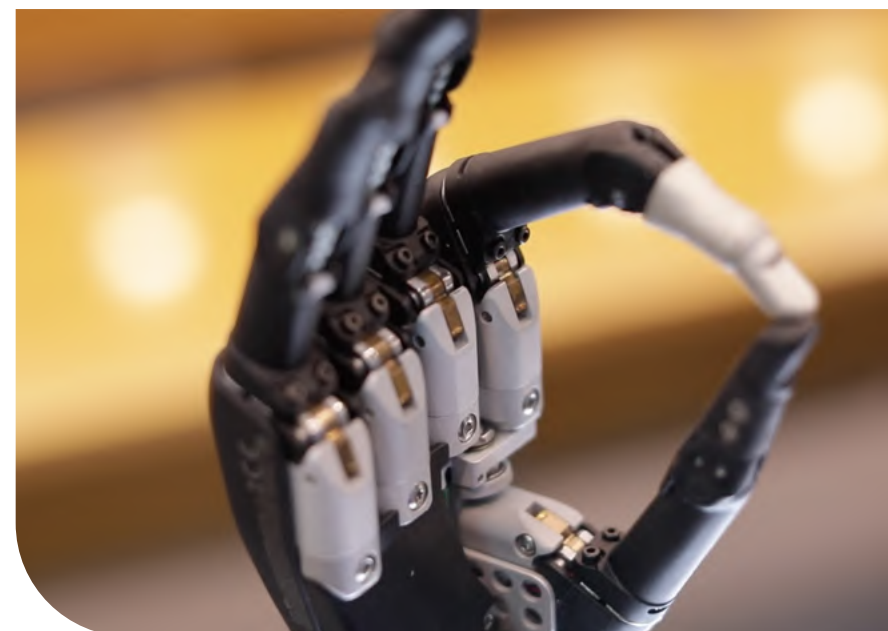
e스포츠센터 구축

## 국가유공자 첨단보조기구 지원 최첨단 로봇기술 보조기구로 희망을 장착합니다

### 맞춤형 로봇 의수와 의족 지원

화재를 진압하다 장애를 입은 소방공무원, 지뢰 폭발 사고로 다리를 잃은 군인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장애를 갖게 된 영웅들이 있습니다. 국내 전상, 공상으로 퇴직(전역)한 국가유공자는 60만 명이며, 이중 12만 명이 장애인입니다. 국가에서 의료기구 등을 지원 중이지만, 실제 활동에 도움이 되는 첨단보조기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이처럼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상(傷痕)을 입은 국가유공자들이 불편함 없이 사회로 돌아오기 위해 가장 필요한 보조기구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국가보훈부와 함께 총 156명의 국가유공자들에게 로봇 의수·의족, 다기능 휠체어뿐만 아니라 사물을 인식하는 시각 보조기구, 주위 잡음과 울림을 방지하는 스마트 보청기 등 맞춤형 첨단보조기구를 지원했습니다.







### 국내 공익재단 중 최초 ‘국가유공자 첨단보조기구 지원’

포스코1%나눔재단은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념해 2020년부터 국가보훈부와 함께 상이 국가유공자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공익재단 중에서는 처음으로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첨단보조기구를 지원해 더욱 뜻깊은 사업으로 꼽힙니다. 2020년 첫 사업에서는 전국의 국가유공자 26명에게, 2021년에는 32명에게 로봇 의수·의족과 다기능 휠체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대상을 더 확장해 현역 군인과 화재진압 현장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사이렌 소리에 장시간 노출되어 난청이 생긴 소방관들도 포함해 48명에게 새 희망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도 50명의 국가유공자들에게 첨단보조기구를 지원하였습니다.

### 신체적 제약 극복으로 찾은 새로운 삶의 희망

포스코1%나눔재단이 지원하는 로봇 의족은 자연스러운 보행과 달리기와 자전거타기 등 다양한 신체활동을 돕고, 로봇 의수는 5개 손가락이 독립적으로 구동되고 엄지손가락이 회전합니다. 이처럼 장애인 당사자의 특성에 맞게 제작된 로봇 의족, 의수 등 최첨단 보조기구는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스포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로 인한 신체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같은 신체의 기능적 제약 해소는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며, 사회적 활동을 비롯한 자립·자활의 가능성 등 새로운 삶의 희망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협력기관: 따뜻한동행(사업 협력), 국가보훈부(국가유공자 선별), 중앙보훈병원(제품 소켓 제작 및 훈련 지원)

#### 2020~2023년 장애인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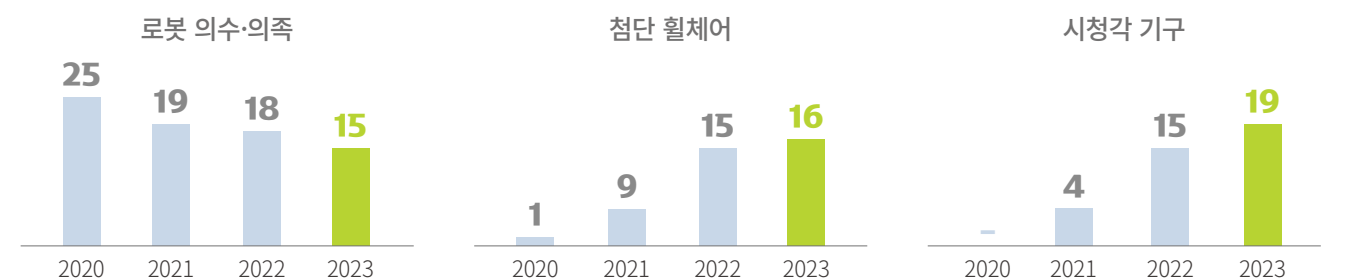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소방공무원 및  
현직 군인 장애인

#### 장애유형별 지원 현황



#### 연도별 지원 현황



기대효과	
<b>의족</b>	관절의 탄성이 좋아 자연스러운 보행(계단, 경사, 등산 등)
<b>의수</b>	물건을 집거나 손가락 사용으로 동작범위 확대
<b>휠체어</b>	장거리 이동이 용이, 기립기능을 통한 재활 가능
<b>시각기구</b>	텍스트, 사물 등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삶의 질 향상
<b>청각기구</b>	회의 등 소통 시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많이 감소함

감사패 수여 및 수상 실적	
<b>2021년 10월</b>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지원 감사패
<b>2021년 11월</b>	CSR필름페스티벌 고용노동부장관상
<b>2022년 12월</b>	소방공무원 처우 공로 행정안전부장관상



### 기부자 인터뷰

국가유공자 첨단보조기구 지원사업 참여, 포스코휴먼스 입사

**Q. ‘국가유공자 첨단보조기구 지원’ 사업에 선정되셨을 때 소감이 궁금합니다.**

광주 보훈병원 추천을 통해 제가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자식 의족을 지원해 주신다니 정말 기뻐요. 전자식 의족의 가격이 워낙 비싸서 친구한테 농담으로 로또에 당첨돼도 못 사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진짜 로또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Q. 국가유공자가 되기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신 걸로 압니다.**

전투공병으로 복무하다가 전역을 28일 앞두고 훈련 중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 270kg 정도 철재를 이동 중 앞사람이 떨어뜨리면서 무릎을 부딪쳤어요. 전역을 앞두고 있어서 나중에 병원에 가보라는 정도로 끝났어요. 전역 후 한 달쯤 되었을 때 골육종이라는 암이 발견되었고, 항암 투병을 이어가다가 전역 7년 만에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2015년에 삽입했던 인공관절이 부러지면서 염증이 발생했고, 총 22번의 수술 끝에 결국 왼쪽 다리를 포기하게 됐죠.

**Q. 이번에 지원받으신 의족을 착용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지원받은 의족은 지난해 수술 경과를 지켜본 후, 오는 10월부터 착용할 예정입니다. 지원해 주시는 인공지능 의족을 착용하고 계곡물에도 들어갈 수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고 계단도 한 발 한 발 교차하며 오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설정해서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고, 걸을 때도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지만, 제일 먼저 우리집 막내와 함께 달리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Q. ‘국가유공자 첨단보조기구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것이 바뀐 것 같습니다.**

2021년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일자리 연계로 포스코휴먼스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회사에 갔을 때 관계자분들이 저한테 어떤 업무를 맡겨야 할지 고심이 많아 보이셨어요. 그때 저는 수선 업무를 하겠다고 자처했죠. 입사 전까지 2개월간 재봉 학원에 다니면서 나름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일 즐겁게 일하고 있으며, 업무 만족도는 100%입니다. 입사 후 지난 2년 동안 발달장애인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로봇 의족 덕분에 일상의 영역이 더 넓어지고, 희망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 나눔은 ‘최고’다.

무슨 일을 하든지 최고가 되고 싶은 제게 나눔은 그 무엇보다 ‘최고’입니다.

고영주 포스코휴먼스 사원



66  
로봇 의족 덕분에  
일상의 영역이  
더 넓어지고,  
희망도 더 커졌습니다.

99

## 희망날개

### 장애인의 일상에 날개를 달아 드립니다

#### 장애인 삶의 질 개선, 꿈이 현실이 되다!

2019년 시작한 ‘희망날개’는 포스코그룹 비즈니스 지역(포항, 광양, 인천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발된 장애인들에게는 의족, 맞춤형 휠체어, 시각장애인용 독서대 등 장애유형에 따라 신체의 일부와도 같은 맞춤형 보조기구를 제작·지원하였습니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희망날개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781명의 장애인들에게 의족, 휠체어, 안구마우스, 경기용 장비 등 장애 유형별 보조기구를 지원했습니다. 희망날개를 통해 보조기구를 지원받은 장애인 체육선수는 전국장애인체전에서 한국 신기록을 달성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30대 장애인 청년이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자립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협력기관: 따뜻한동행(포항), 광양시장애인복지관(광양)





### 장애 유형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특히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명도학교 육상부에는 운동선수에게 적합한 계단형 운동기구를 전달했고,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에게는 언어 습득 효과가 있는 점자보조기구를 기증하는 등 개인별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희망날개’는 보다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장애인들의 꿈을 현실로 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기술, 예술·체육, 사회교육 등 다양한 분야별 꿈을 가진 장애인들에게도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보조기구 지원인원



### 2019~2023년 보조기구 지급현황

- 2019년 **26**명(포항 12명, 광양 14명)  
의수·의족 2건, 휠체어 21건, 신체재활기구 1건, 시각 보조기구 2건
- 2020년 **135**명(포항 76명, 광양 59명)  
의수·의족 1건, 휠체어 15건, 시각 보조기구 7건, 신체재활기구 2건, 인체재활기구 103건, 청각보조기구 4건, 기타 3건
- 2021년 **174**명(포항 81명, 광양 72명, 기타 21명)  
의수·의족 1건, 휠체어 54건, 시각 보조기구 5건, 인지 재활기구 33건, 청각보조기구 3건, 신체 재활기구 16건, 기타 62건
- 2022년 **120**명(포항 28명, 광양 31명, 기타 61명)  
의수·의족 3건, 휠체어 54건, 시각 보조기구 19건, 청각보조기구 3건, 신체재활기구 32건, 기타 9건
- 2023년 **326**명(포항 28명, 광양 80명, 기타 218명)  
의수·의족 2건, 휠체어 69건, 재활기구 31건, 시청각 24건, 기타 200건

## 장애인 디지털 아카데미 4차 산업형 장애인 디지털 인재를 육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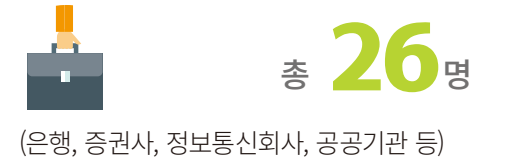
포스코1%나눔재단에서는 장애인들의 자립과 4차 산업형 장애인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2022년부터 ‘장애인 디지털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고등학교 졸업 또는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장애인을 선발하여 코딩 전문가로 육성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협약하여 IT기업으로의 채용까지 연계해 장애인 자립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합니다. 장애인 디지털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구로디지털센터에서 진행되며, 온라인 직무 기초 교육(4주), 직무 심화 및 프로젝트 역량 교육(16주), 기업별 맞춤형 과정(4주) 등으로 구성됩니다. 장애인 디지털 아카데미는 온오프라인 교육과 교육 훈련비 지급은 물론 숙식·교육 관련 용품까지 무상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디지털 아카데미는 성장 잠재력을 가진 장애인들에게 꿈을 이룰 희망의 날개가 되어줄 것입니다.

협력기관: (교육)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구로디지털센터  
(협력) 따뜻한동행, (채용지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2022~2023년 참여인원



### 2022~2023년 취업인원



### 지원 내용

코딩 개발자(백엔드, 프론트엔드, 퍼블리싱) 4~7개월 교육 후 채용 연계





장애인 디지털 아카데미 참여자 인터뷰

66  
 ‘디지털 아카데미’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사회 속에서 제 역할을  
 하며 계속 성장하는  
 저를 만났습니다.  
 99

Q. ‘장애인 디지털 아카데미’에 어떤 계기로 참여하셨나요?

2022년 5월부터 11월까지 포스코1%나눔재단에서 진행한 ‘장애인 디지털 아카데미(이하 디지털 아카데미)’에서 약 6개월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청각장애인으로서는 당시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걱정되던 중 ‘디지털 아카데미’에 관한 권유 메일이 왔습니다. 제 장애 환경과 개발 업무가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해서 ‘디지털 아카데미’에서 진행한 자바 백엔드 개발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Q. ‘디지털 아카데미’ 교육에 참여하면서 인상적이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디지털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마지막 프로젝트를 하기 전 짧게 여러 가지 분야의 기술을 두루 접해보고 배울 수 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프로그래머라도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와 좋아하는 분야는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 기회로 인해 제가 흥미롭게 잘 할 수 있는 기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게는 정말 좋은 기회였고 그 과정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Q. ‘디지털 아카데미’ 교육이 취업까지 연계되었지만, 힘든 순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기업에서도 서류 탈락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6개월간 여기서 받은 교육이 의미가 있는 건지, 취업은 할 수 있는 건지. 동기들에 비해 제 노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자신했지만 1차 합격도 하지 못한 입장이다 보니 조급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때마다 분명히 빛을 볼 때가 올 거라고 마음을 다잡으며 취업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만 다시 일어섰던 때가 기억납니다.

Q. ‘디지털 아카데미’는 어떤 의미로 기억될까요?

‘디지털 아카데미’ 사업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줬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문서 작업 등 단순한 노동일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K은행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 역할을 하는 개발자라고 할 순 없지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저를 볼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나눔은 ‘나를 채우는 것’이다.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나눔을 베풀고, 그로 인해 나 자신도 무엇인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눔은 나누고 받는 행위까지 통틀어 나를 채워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강용 K은행 개발자



장애인 디지털 아카데미 수행기관 인터뷰

Q. ‘디지털 아카데미’에 어떤 계기로 참여하셨나요?

2022년부터 포스코1%나눔재단과 함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코딩을 교육하고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디지털 아카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IT 융합 교사로서, 하이엔드 코딩 교육 파트 담당으로서 디지털 아카데미 IT 개발자 과정의 교육 기획 및 관리와 운영의 사업 전반을 맡게 되었습니다.

Q. ‘디지털 아카데미’ 사업이 참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참여자들 대부분에게 인생을 바꾸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취업자 중 편부 가정의 청각장애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학 전부터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훈련 도중에 수술까지 받게 되었는데, 간병할 사람이 없어서 일주일간 병원에서 먹고 자며 센터에 왔다 갔다 하며 교육을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가정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던 그 학생이 취업자 중 최고 연봉을 받고 국내 굴지의 금융그룹 IT 개발자로 들어가면서 한 가정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 학생을 선발하고 기회를 주고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하고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Q. 교수님께서는 ‘디지털 아카데미’가 어떤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되었는지요?

오래전부터 신념을 가지고 장애인 IT 개발자를 만드는 교육을 하면서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교육을 통하여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산 등의 문제를 비롯해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로 힘든 싸움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포스코1%나눔재단의 지원으로 예산이나 학생 지원과 관계된 부분에서의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혼자 느꼈던 안타까움과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겪었던 좌절감들을 덜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눔은 ‘정의’다.

정의롭게 사는 것이 제 신념입니다. 나눔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무이자 책임이고, 당연히 옳은 일을 하는 것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정의와 동일한 것입니다.

남기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구로디지털센터 교수

66  
 정말 필요하고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99





## 발달장애인 VR직업훈련센터 구축 발달장애인의 취업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포스코1%나눔재단이 포항과 광양지역 발달장애인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VR직업훈련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포항 명도학교를 시작으로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광양시 햇살학교와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총 4곳에 VR직업훈련센터를 구축하였으며, 교육 프로그램 운영까지 지원합니다.

발달장애인들은 VR기기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개발한 콘텐츠를 통해 바리스타와 세차 등 다양한 직업교육을 집중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VR기기가 다양한 센서로 교육생이 과제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자동으로 분석하고, 교육생은 즉시 실무에 투입 가능한 수준까지 숙련도를 높이며 취업역량 강화를 합니다. 포항과 광양지역의 40세 이하 취업희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과정 종료 후에는 지역 내 장애인 채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추천하는 등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VR직업훈련센터는 발달장애인들의 취업문을 열어주는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력기관: 따뜻한동행



### 센터 구축



4개

포항 2개, 광양 2개

### 연간 참여인원



3,000여 명

### 연도별 취업인원



총 39명

2022년

19명

2023년

20명

## e스포츠센터 구축 청장년 장애인이 e스포츠에 도전합니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장애인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포항국민체육센터 및 광양국민체육센터 내에 '장애인 e스포츠센터'를 구축해 장애인의 자립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애인 e스포츠센터는 리그오브레전드와 배틀그라운드 등 다양한 e스포츠 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최고 사양의 컴퓨터 10대씩을 갖추고 있습니다. e스포츠에 관심 있는 청장년 장애인 전용 e스포츠센터는 이동용 슬로프와 손잡이 등도 설치해 장애물 없는 훈련 환경에서 재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합니다.

협력기관: 따뜻한동행

### e스포츠센터 구축



총 2개

포항 1개, 광양 1개





# 지속가능한 사회·문화적 기반 마련

포스코1%나눔재단은 글로벌 철강 기업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 안정적인 주거를 기반으로 삶의 질 향상의 동력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개척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의 가치를 잇고, 장애예술인들이 꿈을 펼칠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문화적 기반을 단단히 다지며 밝은 희망의 가능성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사회적 기업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58

자립공간 건립

76

현지 자립기반 강화

82

문화예술 보존



# 자립공간 건립

## 강하고 아름다운 철

‘포스코 스틸 빌리지’는 2018년 7월 UN뉴욕본부에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의 우수사례로 발표되었습니다. 국내에는 인천 동구랑 스틸랜드를 비롯해 포항 청림별관, 청년 쉼어하우스 등 스틸 복지시설을 만들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는 스틸 빌리지를 건립하여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철로 세우는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포스코 스틸 빌리지  
희망공간

## 포스코 스틸 빌리지

###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은 스틸 빌리지 입니다

#### 비즈니스 역량과 연계한 스틸 빌리지

‘포스코 스틸 빌리지(POSCO Steel Village)’는 포스코그룹이 보유한 역량과 강점을 활용해 국내외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건축하고, 지역사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포스코1%나눔재단에서는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외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다양한 스틸 빌리지를 건립해 왔습니다. 포스코그룹의 우수한 철강 기술력으로 건립한 스틸 빌리지를 통해 따뜻한 철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 위로와 희망을 선사하는 스틸 복지시설

포스코1%나눔재단은 지역사회 배려계층을 위한 스틸 복지시설 건립에 앞장서 왔습니다. 보살핌이 필요한 포항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 ‘해피 스틸하우스(2013년)’, 광양 지역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피 스틸 복지센터(2014년)’, 서울 지역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상담하는 ‘강북 청소년 Dream센터(2015년)’ 등을 준공했습니다. 2016년 이후에는 인천지역 영유아복지시설 ‘동구랑 스틸랜드’ 건립을 비롯해 서울시 서대문구 ‘청년 쉼어하우스’, 포항시 청림동 ‘무료급식소 청림별관’, 광양시 중동 학대피해아동 단기보호쉼터 ‘마음나누리쉼터’ 등의 복지시설을 건축해 왔습니다.



포스코 스틸 빌리지 전경(베트남)



## 국내 스틸 복지시설

### 어르신들의 행복한 쉼터 포항 ‘해피 스틸하우스’

고령화 사회에 학대피해 노인의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2013년 1월, 포항시 송도동에 ‘해피 스틸하우스’를 건립하였습니다. 고독으로 인한 노인 우울을 해소하고, 노후생활의 만족감을 향상시키고자 마련한 해피 스틸하우스는 노인 신변보호 및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노인보호 쉼터입니다. 해피 스틸하우스는 고령화 사회에서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함으로써 자존감 향상 및 우울감 해소를 통한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심리 정서적 회복을 도와 노후생활의 만족감을 향상시키고자 마련했습니다.



### 시청각장애인 고충상담 나누는 보금자리 광양 ‘해피 스틸 복지센터’

포스코1%나눔재단은 2014년 1월, 전남 광양시 중동에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해피 스틸 복지센터’를 건립했습니다. 해피 스틸 복지센터는 이동에 제약을 받는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출퇴근과 외출 등을 돕는 이동 서비스와 점자교육, 정보화교육은 물론 수화통역사를 배치해 장애인들의 고충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연면적 1652㎡, 지상 2층 규모의 해피 스틸 복지센터는 이웃을 보듬는 따뜻한 마음이 모인 정성으로 건립된 공간인 만큼 여러 장애인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는 명실상부한 보금자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 학교 밖 청소년 보호하는 청소년 쉼터 서울 ‘강북 청소년 Dream센터’

집과 학교를 떠나는 위기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5년 6월, 포스코1%나눔재단이 서울 ‘강북 청소년 Dream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자리한 강북 청소년 Dream센터는 서울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포스코1%나눔재단이 건립비를 지원하며, 여성가족부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동 설립한 민·관 협력 청소년 쉼터 1호입니다. Dream센터는 위기청소년 임시보호 및 상담을 지원하는 청소년 쉼터로 교육공간, 시민휴게공간 등을 갖추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북 청소년 Dream센터에서 청소년들이 다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갈 힘을 얻게 되길 응원합니다.



### 사회 초년생 청년들의 주택 고민 해결 서대문구 청년 웨어하우스 ‘청년누리 달팽이집’

포스코1%나눔재단은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 웨어하우스 ‘청년누리 달팽이집’을 건립하였습니다. 2018년 9월 건립한 청년누리 달팽이집은 지상 5층 연면적 110평 규모의 다세대 주택으로 서울시에 거주 중인 만 19~35세의 무주택 청년 18가구가 입주했습니다. 청년누리 달팽이집은 포스코1%나눔재단에서 건축비를 출연하고 서대문구가 부지를 제공했으며, 태양광을 활용한 에너지감축형 친환경시설로 주거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적 사례로 손꼽힙니다.





## 어르신을 보듬는 따뜻한 무료급식소 포항 '청림별관'

포스코1%나눔재단은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더 좋은 무료급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19년 11월에 '청림별관'을 완공하였습니다. 포항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포스코1%나눔재단이 스틸하우스 건축공법을 활용하여 아름답고 튼튼한 건축물로 완공되었습니다. 청림별관은 연면적 466㎡ 규모의 지상 2층 건물로, 1층은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소로, 2층은 휴식을 위한 북카페로 설계되었습니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청림별관을 건축해 지역사회의 공간문화를 조성한 공로로, '2019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 청년 웨어하우스 '청년누리 달팽이집' 입주자 인터뷰

### Q. '청년누리 달팽이집'에는 어떻게 입주하게 되셨나요?

2017년, 해외에서 1년 거주 후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고향인 지방이 아니라 서울에서 거주하고 싶었습니다. 주거비를 절감하면서도 방이 넓은 곳을 찾아보던 중 포스코1%나눔재단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서대문구청이 협업하여 공급하는 '청년누리 달팽이집' 입주 공고를 보았습니다. 서류 제출과 면접까지 진행 후 첫 입주자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 Q. 처음 입주하셨을 때 소감은 어떠셨는지요?

당시 서울에서 이토록 저렴한 가격의 집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입주가 간절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웨어하우스에 거주한 경험이 있어서 입주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고, 다른 입주자들과 어떤 추억을 같이 만들어 갈지 기대와 설렘이 있었습니다.

### Q. 포스코1%나눔재단이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도움되는 방안으로 웨어하우스를 건립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난 5년여 동안, '청년누리 달팽이집' 말고 다른 곳에서 거주했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종종 상상해 보곤 합니다. 늘 결론은 '여기 청년누리라서 서울에서의 삶을 더 풍족하게 보내고 있다.'였습니다. 높은 주거비 때문에 서울에서의 삶을 일찍 접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공공임대가 많아지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지만, 이렇게 기업에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들여다보고 실제 주택까지 건립하여 제공해 주셨다는 점이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의 주택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 Q. 웨어하우스는 청년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요?

주거비 문제에 부담을 더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쯤 젊을 때 웨어하우스에서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한데 모여 살며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에 대한 시너지를 경험해 보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 나눔은 '채움'이다.

내가 가진 것을 비워낼수록 더욱 내 안의 마음은 가득 채워진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채워지다 보면 제 자신이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라 굳건히 믿습니다.

정준혁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주거문화팀 매니저

66  
웨어하우스는  
청년들에게 풍족한 삶을  
선사해 줍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살며  
그 시너지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99





### 기부자 인터뷰

‘청림별관’ 무료급식 봉사 담당

66

‘청림별관’은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며 활짝 웃는  
공간입니다.

99



**Q. ‘청림별관’은 어떤 곳이고, 청림별관 봉사단은 어떤 봉사를 하시나요?**

‘청림별관’은 포항시 청림동에 자리하고 있으며,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식사를 제공하는 무료 급식소입니다. 저희 청림별관 봉사단은 이곳에서 제공하는 급식을 위한 반찬 재료 손질부터 식탁 세팅, 식사 후 설거지 및 외부 봉사단체와 연계한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Q. ‘청림별관’ 봉사에 참여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 인가요?**

어르신들이 정성들여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볼 때면 뿌듯합니다. 또 식사를 마치고 가면서 항상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럴 때면 아침부터 땀을 뻘뻘 흘리며 시간에 쫓기느라 지쳐있다가도 의욕이 생기고, 보람도 느끼고 ‘더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Q. ‘청림별관’에서의 봉사가 더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저소득층 집수리 및 다문화가족 집수리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10년 정도 참여하였는데 ‘청림별관’에서는 어르신들께 잠시나마 따뜻한 위로가 되고 활짝 웃는 시간을 선사할 수 있다는 뿌듯함이 큼니다. 특히 ‘청림별관’은 포스코1%나눔재단에서 건립해 주셨고, 제가 속한 기업의 사업이기에 더 애착을 갖고 봉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나눔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저도 어린 시절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며 자랐고, 그 덕분에 지금의 위치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금전적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서로 나눔을 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천익기 포스코 과장(포항 전기강판부 근무)

###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키즈 카페 인천 ‘동구랑 스틸랜드’

인천 지역 아이들을 위해 2016년 12월에 ‘동구랑 스틸랜드’를 건립했습니다. 인천 동구청과 공동으로 건립한 동구랑 스틸랜드는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뛰어놀며 창의력을 키우고 신체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는 키즈 카페(Kids Cafe)입니다.

포스코그룹의 건축 기술이 적용된 동구랑 스틸랜드는 파형강판으로 만든 꽃잎 모양의 독특한 외관으로 건축물의 심미성과 기능성을 높였습니다. 높은 층고와 탁 트인 시야는 창의력 발달을 돕고, 고망간바닥재로 층간소음을 방지했으며 클라이밍, 정글짐, 미니축구장처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놀이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창의력과 꿈을 키우는 동구랑 스틸랜드는 인천 최고의 나눔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 아이들 위한 안전하고 편안한 단기보호쉼터 광양 ‘마음나누리쉼터’

포스코1%나눔재단은 2019년 9월, 광양시 최초의 아동쉼터인 ‘마음나누리쉼터’를 열었습니다. 광양시 중동에 설립된 마음나누리쉼터는 연면적 474.77㎡ 규모의 지상 2층으로 건축되어, 1층은 상담실, 심리치료실, 음악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2층은 아동쉼터로 남아 5명, 여아 5명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음나누리쉼터는 국내 최초로 남녀 분리된 출입구를 이용하면서도 한 건물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혼성 보호쉼터로 설계되었고, 아동들을 일시 격리해 보호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적 안전을 확보하고 초기 상담에서부터 심리치료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광양에는 아동쉼터가 없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은 인근 순천이나 목포로 보내져 보호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포스코 1%나눔재단은 포스코그룹 고유기술과 제품을 활용해 튼튼하고 안전한 쉼터를 건립해 광양시에 기부채납했습니다. 마음나누리쉼터는 아동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성장과 권리를 증진시켜줄 아동보호 전문쉼터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해외 스틸 빌리지

## 해외 지역민들을 위한 집과 다리 건립

‘포스코 스틸 빌리지’ 사업은 포스코그룹이 진출한 비즈니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에서도 펼쳐졌습니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등에서 포스코그룹 철강재를 적용한 튼튼한 스틸 빌리지, 스틸 돔, 스틸 브릿지 등을 지원해 지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스틸 빌리지 건축 현장에는 포스코그룹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더욱 사랑 가득한 공간으로 세웠습니다. 국경을 넘어 철로 만든 공간이 전하는 따뜻한 나눔의 정신은 지구촌 이웃들에게도 널리 퍼져가고 있습니다.



## 저소득 가정을 위한 안락한 주거환경 제공

### 베트남 ‘스틸 빌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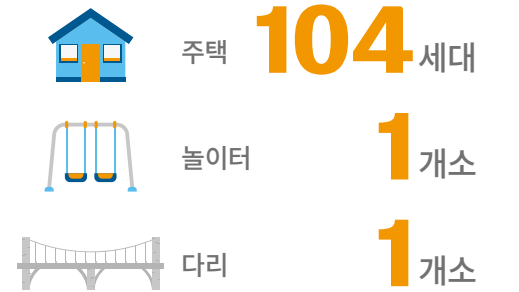
베트남 봉따우성은 POSCO Vietnam과 POSCO YAMATO VINA가 위치한 지역으로, 살 곳을 찾지 못한 주거빈민 문제가 심각했던 곳입니다. 이에 포스코1%나눔재단은 봉따우성 띠엔띠엔 띠엔호아 지역의 저소득 가정을 위해 지방정부로부터 부지를 제공받아 2014년부터 3년간 104세대의 주택, 놀이터, 다리로 구성된 ‘베트남 스틸 빌리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베트남 스틸 빌리지 조성을 위해 POSCO Vietnam, POSCO YAMATO VINA, 포스코A&C 등 현지 법인과 그룹사의 역량을 모아 자연통풍이 가능한 주택을 설계하고 방음·차양에 효과적인 단열재를 공급했으며, 지붕과 골조 캐노피(canopy)에 스틸을 사용해 주택의 성능을 극대화했습니다.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H형강을 공급했습니다.

또한 기부자인 포스코그룹 임직원 글로벌 봉사단과 현지 임직원, 포스코 대학생봉사단 ‘비욘드(Beyond)’ 1,500여 명이 용접, 페인트칠, 자재 운반, 벽 시공 등 주택 건축 봉사에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협력기관: 해비타트, 봉따우성 지역 정부

## 베트남 스틸 빌리지 건립





인도네시아 스틸 빌리지 건립

-  주택 **25**세대
-  화장실 **30**개소
-  학교 **3**개소
-  다목적시설 **1**개소

찐레곤 지역민에게 선사한 희망의 집  
인도네시아 ‘스틸 빌리지’

포스코1%나눔재단은 인도네시아 현지 국영 철강사와의 합작 제철소 PT.KP가 있는 찐레곤시 인근의 4개 마을에 주택과 공공화장실 등을 건립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이 사업은 반자르네가르-꾸방사라-뜨갈라뚜-사망라야 4개 마을에 주택을 신축 및 리모델링하고 화장실, 세면대 등 위생시설이 없는 가정에 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급수대·쓰레기소각장·학교 기숙사 등 공공시설도 건립하였습니다.

찐레곤 스틸 빌리지 건립을 위해 현지에 설립한 사회적기업 직원들이 주택 개보수에 참여했으며, 포스코 대학생 봉사단 비온드와 글로벌 임직원 봉사단이 주택, 학교 등 건축에 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이처럼 포스코1%나눔재단의 ‘포스코 스틸 빌리지’ 건립을 통해 찐레곤시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개선과 아동들의 꿈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협력기관: 해비타트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강철 야외돔  
태국 ‘스틸 돔(STEEL DOME)’

태국에서는 강한 태양빛과 열대성 스콜에서도 학생들이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스틸 돔(Steel Dome)’을 건립, 기증했습니다. POSCO-TCS, POSCO Thainox 등 포스코 현지 법인이 위치한 라용 지역에서 남탄따완역 초·중등 학교를 포함 5개 학교에 스틸 돔을 선사했습니다. 포스코그룹 철강재를 사용한 스틸 돔은 POSCO-TCS와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우포스코의 철강제품을 적용해 가로 12미터, 세로 30미터, 높이 8미터의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100여 명 이상의 인원을 동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잦은 열대성 스콜, 높은 일사량에도 현지 학생들이 안전하게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협력기관: 해비타트

태국 스틸 빌리지 건립

-  스틸 돔 **5**개소





여와마을과 세상을 연결하는 드림 브릿지

미얀마 '스틸 브릿지'

미얀마 양곤 인근의 여와마을에는 건기와 우기가 번갈아 찾아옵니다. 우기가 되면 아이들은 통학이 어렵고, 어른들은 곡물과 생선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없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건기와 우기가 반복되면서 마을과 세상을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도 군데군데 낡아 위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여와마을의 사연을 접한 포스코1%나눔재단은 2017년에 포스코그룹 철강재를 적용한 튼튼한 교량을 건설했습니다. 아치형 다리를 설계해 우기에 유량이 많아져도 침수되지 않도록 했고, 국내 제작 부자재를 현지로 운송·조립·설치하는 '조립식 교량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넓고 안전 우려가 있는 목재교량을 폭 2.5미터, 길이 20미터 사양의 스틸 브릿지로 새로 지으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스틸 브릿지 덕분에 차량의 유동량이 늘어 마을 경제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고, 아이들은 굶은 날씨에도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협력기관: 미얀마 농업축산관계부, KOICA 미얀마사무소

허용 하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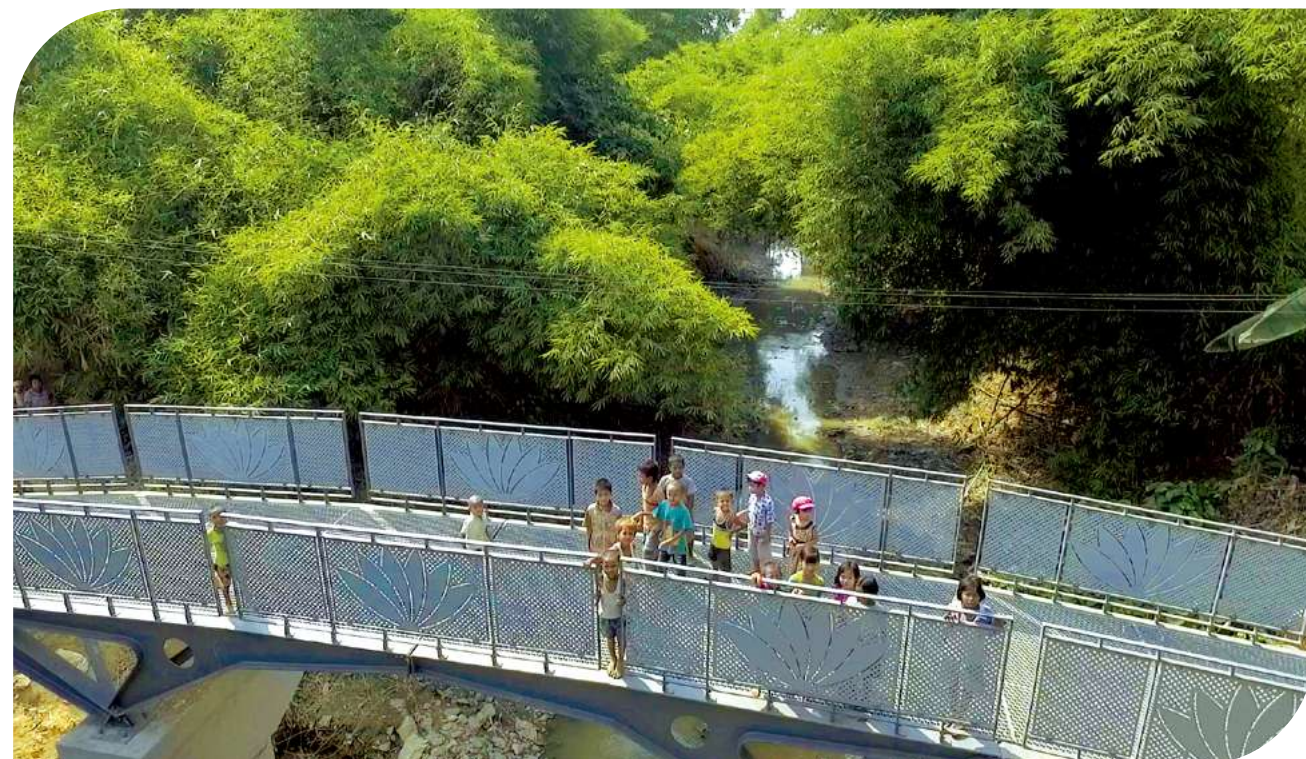


2.8톤

교량 길이



20미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철로 이끄는 변화의 패러다임

'포스코 스틸 빌리지' UN 모범사례 인증

'포스코 스틸 빌리지' 사업은 2018년 11월 UN으로부터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우수사례로 선정됐고, 2019년 4월에는 유엔공식외견서로 채택돼 193개 전체 회원국에 모범사례로 권고됐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포스코그룹의 철강소재와 건축공법을 활용해 주택이나 다리 등을 만들어주는 스틸 빌리지 사업을 통해 수혜를 받은 인원은 6,000여 명에 이릅니다.

포스코 스틸 빌리지 사업 현황





# 희망공간

## 공간복지로 희망을 리모델링하다

### 장애유형별 맞춤형 공간으로 개선

장애인이 스스로 생활하고 자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거 안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장애인 시설은 대다수가 휠체어 통로, 핸드레일 등 장애인 편의 시설 및 안전 시설(소방·대피시설) 부족으로 장애인들이 실질적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2019년부터 포항·광양 지역의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장애인 공동 거주 및 이용시설을 리모델링해 새로운 공간으로 선물하는 ‘희망공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시선에 맞춰 장애 유형별로 안전성을 고려하고, 주방 싱크대 높이 단차 해소 및 화장실 설비, 냉난방 설비 등 편의성, 위생 환경, 공간 활용 등을 고려하여 시설을 개선합니다. 또한 화재 등의 위험요인도 제거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력기관: 따뜻한동행



### 더 나은 공간에서의 자립생활 지속 지원

공간복지의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희망공간’ 사업은 포항과 광양의 30인 이하의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단체, 주간·단기보호센터 등 총 50개 장애인 시설을 맞춤형 리모델링하였고, 장애인 이용자 2,500여 명의 편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처럼 ‘희망공간’ 사업은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지원하여 맞춤형 공간복지를 제공하는 모범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장애인들이 행복한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23년에는 장애인 가정과 아동·청소년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생활을 위해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협력기관: 따뜻한동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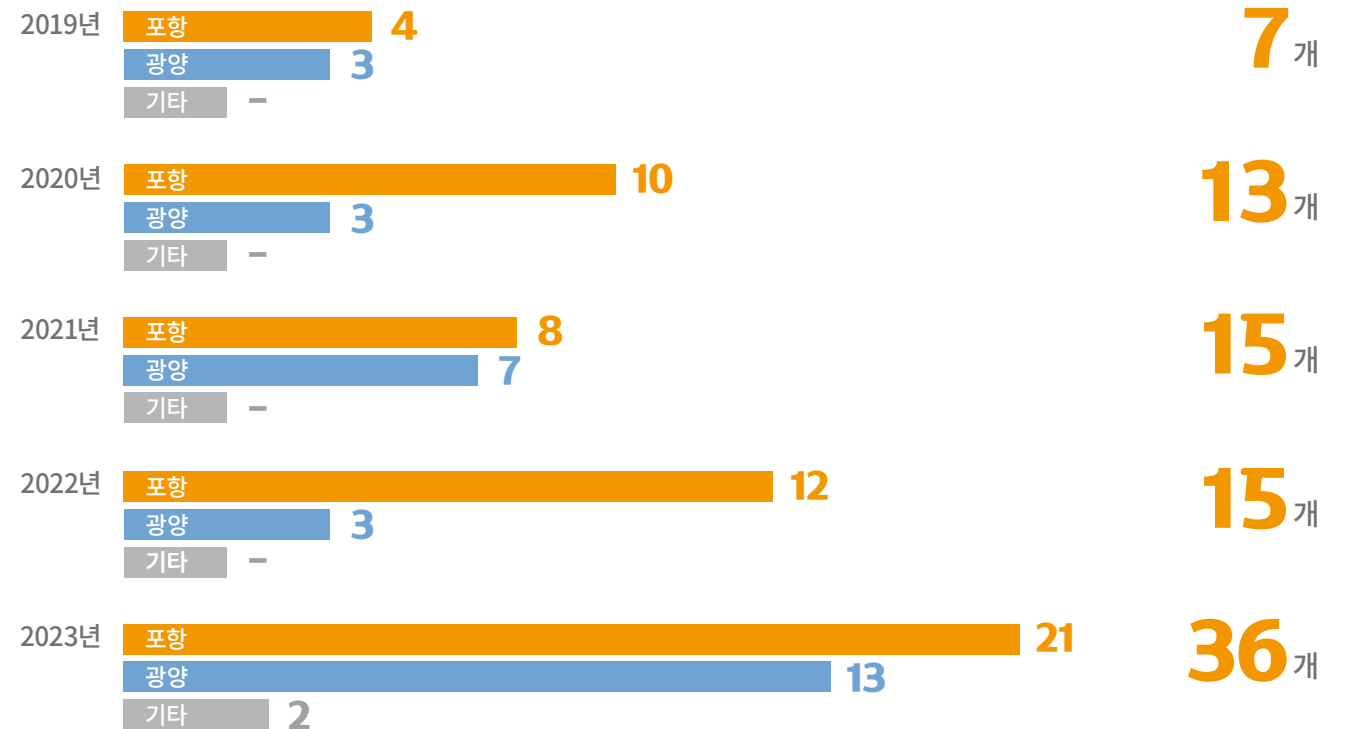


#### 장애인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 효과

- 발달장애** 이용자의 정서적 안정성과 돌발행동 대응 능력향상
- 지체장애** 비좁은 화장실, 보행편의 확보 등 개선
- 시각장애** 소리형 화재대피 알람, 점자 블록 등 감각대체
- 청각장애** 시각형 화재대피 알람, 공간 분리 등 감각대체
- 복합장애** 발달, 지체, 시각각 등 맞춤형 지원

#### 2019~2023년 지원 현황

총 **86** 개소



포항 나린센터 시공 전



포항 나린센터 시공 후





## 희망공간 참여자 인터뷰

66  
 밝고 안전한  
 ‘희망공간’에서  
 나눔을 실천합니다.  
 99

### Q. ‘희망공간’ 사업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포항시지부에서 진행하는 성인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 사업 ‘나린센터’는 안전 및 공간 노후화 문제로 인해 개선이 필요한 상태였고, 2019년 하반기 포스코1%나눔재단에서 진행한 장애인 시설 리모델링 ‘희망공간’사업에 선정되어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 Q. ‘희망공간’ 사업에 참여하신 계기와 사업 완료 후 나린센터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희망공간’ 사업이 진행된 후 계단에 튼튼한 핸드레일 설치와 미끄럼 방지, 석면 제거와 방염 소재로 교체 및 활동실 바닥재 변경, 창문 안전장치 설치 등을 하여 이용자분들이 안전하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파스텔톤의 화사한 분위기로 꾸며져 방문하시는 분들마다 공간이 밝고 따뜻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 Q. ‘희망공간’ 사업에 참여하면서 인상에 남았던 점은 무엇이였을까요?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 시설에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한 것은 나린센터가 국내 최초일 것입니다. 포스코1%나눔재단에서 발달장애인이 활동하는 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이 지속된다고 하여 반가웠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에 맞는 공간 전문가 컨설팅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이 도입된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 Q. ‘희망공간’ 사업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리모델링으로 이용자들이 분리된 공간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되었고, 픽토그램을 활용한 공간 디자인으로 공간별 사용 의미를 인지하고, 소방 대피 훈련 시 핸드레일에 의지해 계단을 빠르게 내려가 대피하는 등의 모습에서 공간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용자들뿐 아니라 보호자와 선생님들까지도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 나눔은 ‘실천’이다.

‘희망공간’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분들도 나눔을 전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경로당 어르신들과 우리 지역 경찰서, 소방서, 관공서를 찾아가 나눔을 실천하고, 할로윈 날에 지역주민에게 사탕과 간식 나눔을 진행하였습니다. ‘희망공간’ 사업은 나눔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예람 희망공간 나린센터 팀장



## 희망공간 참여자 인터뷰

66 ‘희망공간’이 선사한 변화의 힘이 곧 나눔의 힘입니다. 99

### Q. ‘희망공간’ 사업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저는 24살 발달장애인(자폐성장애 1급)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희망공간’ 프로젝트 공모 시 책임자(경북장애인부모회 포항시지부 지부장)로 있었으며, 당선 후 공간 리모델링 작업에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공간이름 ‘나린’도 ‘하늘에서 내려 온’이란 순우리말로 제가 지었습니다. 제 딸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3년째 나린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Q. 자녀분이 나린센터에 주로 어떤 목적으로 방문하시는지요?

발달장애인은 학령기를 졸업하면 취업을 하거나 집에서 지내거나 낮시간 돌봄(주간보호, 주간활동 등)센터 이용, 시설에 입소 등 4가지 유형으로 대부분 성인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의 딸도 학교 졸업 후 이곳 나린센터에서 낮시간 동안 많은 경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Q. ‘희망공간’ 사업 진행 후 어떤 점이 좋아졌나요?

‘희망공간’ 리모델링 설계 시 두 가지 요구사항을 부탁드렸습니다. 첫째는 발달장애인 특히 자폐성 장애를 가진 이용자들은 색감에서 안정을 찾는 경우가 많으므로 색감 사용에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자해를 하는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바닥, 벽 등에 충격 완화 제품을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만은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 완성된 것을 보니 사무실처럼 딱딱했던 공간이 동화 속 공간처럼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바뀌어 있어, 이용자들도 어머님들도 너무 기뻐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특히 이용자들이 안정적으로 바뀌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공간이 주는 힘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Q. 나린센터 리모델링 후 자녀분과 어머니께는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제 딸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중 9시간을 나린센터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보다 이곳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더 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딸에게 편안함을 주어서인지 표현을 거의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나린센터 가요”라고 하며 즐겁게 나서는 모습을 보며 부모인 저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양희경 희망공간 나린센터 참여자 어머니



### 나눔은 ‘행복’이다.

나눔을 하는 사람도 나눔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 현지 자립기반 강화

## 인도네시아와 개발도상국 지역사회의 미래

포스코1%나눔재단은 인도네시아에 사회적기업인 ‘PT.KPSE Services Indonesia’를 설립해 청년들을 고용하고, 업무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자립을 위해 포스코그룹이 진출한 개발도상국가의 지역사회 지도자 양성사업을 운영하여 참여자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리더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사회적기업 설립

개발도상국 지역사회 지도자 양성사업

## 인도네시아 사회적기업 설립 사회적기업으로 지역의 청년들을 고용합니다

인도네시아의 반텐주 찰레곤시는 포스코와 크라카타우스틸이 찰레곤시에 합작 설립한 크라카타우포스코가 위치해 신흥 산업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제철소 인근의 사망라야(Samangraya), 꾸방사리(Kubangsari), 뜨갈라뚜(Tegalratu) 3개 마을은 세대의 90%가 월소득 200달러 이하의 대표적인 빈민지역으로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절대적인 곳입니다. 2014년에 포스코1%나눔재단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의 미래 역량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PT.KPSE(KP Social Enterprise) Services Indonesia를 찰레곤시에 설립했습니다. 이 기업은 ‘찰레곤시 고용 촉진을 통한 지역 자립기반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기획 설립했습니다.

### 청년들의 역량강화로 안정적 재취업

제철소 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PT.KPSE Services Indonesia는 인도네시아 제철소 인근 지역의 빈곤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였습니다. 고용된 청년들은 6개월 동안 기계 정비, 용접 수리, 배수로 관리 등 제철소 내 환경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주중에 제철소 내 배수로 준설, 녹화 관리, 자원 재활용 등 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주말에는 컴퓨터 교육을 비롯한 직무역량강화프로그램에 참여해 일과 학습을 병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본 소양과 업무수행 역량이 향상되면 협력업체 등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었습니다. 2015년 1기를 시작으로 2023년 13기까지 378명의 청년들을 교육하고, 이중 237명이 인근 지역 회사의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 발생한 수익은 지역사회에 재투자

PT.KPSE SI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지역사회에 재투자돼 청년들에게 역량강화 교육, 창업 컨설팅, 초기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자립기반 조성에 쓰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청년 실업률 감소와 함께 현지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인력 양성과 창업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직업 창출, 지역 기반산업 육성 등 다각적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지역에 PT.KPSE SI가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취업을 한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미래까지 함께 일구는 기반이 된 것입니다.

협력기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단법인 코피온



2015~2023년 청년 교육인원





### 기부자 인터뷰

인도네시아 사회적기업 설립 제안

66

일거리가 없는 청년들을 위해 사회적기업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99



**Q.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프로젝트 추진 초기였던 2010년 11월, 처음 인도네시아에 부임해 배수종말 설비 등 환경설비 PM을 담당했습니다. 종합 준공 후에는 환경, 에너지, 보건, 소방,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Q. 인도네시아 사회적기업을 제안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회적기업을 구상하셨는지요?**

사업 초기에 부지조성 사업과 건설 과정에서 제철소와 인접한 3개 마을 지역민들로부터 공사장 먼지 발생과 우기 때 배수 문제 등으로 민원이 많았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을 대표, 종교 지도자 등 오피니언 리더들과 소통을 자주 했는데, 그때 마을에 일자리가 없어서 놓고 있는 청년들을 취업시켜 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주민의 90% 이상이 월소득 30만 원 이하에 불과한 대표적인 빈민 마을이었고, 마을 사람들이 공사 현장에 들어와서 목재, 폐전선 등을 훔쳐 가는 일들도 자주 발생했었습니다. 그때 마을 청년들에게 직업훈련 후 취업을 시키면 일자리는 물론 도난 사고 방지와 제철소의 환경개선, 포스코그룹의 기업시민 정신에도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해서 사회적기업 설립사업을 구체화하게 되었습니다.

**Q. 인도네시아 사회적기업은 어떤 과정을 통해 실현되었는지요?**

마침 포스코1%나눔재단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사회적기업 설립지원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함께 사업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KOICA와 포스코1%나눔재단의 실무진들과 고민 끝에 포크레인, 지게차 등의 장비를 사서 PT.KP의 배수로 청소작업과 폐쇄화물 분류 작업 등을 하고 그 수익금으로 마을 청년들을 교육시켜 취업 기회 제공 및 창업 컨설팅, 초기 사업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소득증대 및 자립기반 마련에 기여하도록 사업 방향을 잡았습니다.

**Q. 인상에 남았던 활동,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소개해주세요.**

당시 포스코1%나눔재단과 KOICA에서 출장을 오셔서 업무를 지원해주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며칠씩 제가 살던 집에 와서 밤늦게까지 토론하고 사업계획을 검토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다녔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PT.KPSE SI 내 인도네시아 직원, 찰레군시 공무원, 마을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요즘 표현으로 '인싸'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눔은 '배려'이다.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나눔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경석 포스코 임원(환경기획실장)

### 인도네시아 사회적기업 PT.KPSE 프로그램 참여자 인터뷰

**Q. PT.KPSE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인상에 남았던 활동, 프로그램은 무엇이었나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6개월 동안은 업무와 병행하여 조직 적응 및 인성·직무 교육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당시 참여했던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5일 동안 세랑 지역에 있는 기동 여단 군단에서 신체 훈련 및 정신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 우리 참여자들은 공감 능력과 의사소통, 집단 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과 같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Q. PT.KPSE SI 근무 당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소개해주세요.**

트레이닝 기간 동안 참여자들은 매주 다른 범위로 일을 번갈아 진행했는데, 이를 통해 다양하고도 새로운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배수 청소 작업을 하면서도 지정된 목표와 팀 내 응집력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 외에 매주 토요일에는 컴퓨터 수업을 비롯해 지식과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Q. PT.KPSE SI 사업이 참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중요한 변화도 있었습니다. 참여자들 중 처음에는 지각과 결근을 자주하고, 근무 중 성실하지 못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에 대한 인식과 직업관에 대해 배우면서 사고방식이 바뀌었고, 일을 대하는 태도도 성실하게 변화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트레이닝과 일을 통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Q. PT.KPSE SI 참여로 본인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 시간이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요?**

훈련을 받은 후 저는 PT.KPSE 소속으로 크라카타우 포스코의 환경개선 및 폐기물 수집 관리 업무를 맡았고, 현재는 작업반의 반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KPSE에서 8년 동안 일하면서 우리 가족의 경제는 안정되었고, 동생들도 학교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크라카타우 포스코 패밀리'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료들도 같은 마음이며,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 성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눔은 '진실된 마음'이다.

진정한 나눔은 물질, 힘, 마음 등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진실되게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FAKIH 인도네시아 PT.KPSE 근무

66

프로그램 참여 후 취업까지 성공하여 경제적 안정도 얻고, 포스코그룹의 일원이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99





### 인도네시아 사회적기업 설립 수행기관 인터뷰

66 기존의 틀을 깨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꾼 프로젝트입니다. 99



나눔은 '작은 실천'이다.

나눔은 어렵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 재능 기부, 기부 등 내가 나누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나눔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포스코1%나눔재단과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한 KOICA-포스코1%나눔재단의 '인도네시아 찰레곤시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 자립기반 강화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KOICA에서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을 연계하여 빈곤 등 개발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업에게도 이익이 되는 CSV(Creating Shared Value) 시범사업이었습니다.

**Q. KOICA가 인도네시아 사회적기업 KPSE.SI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설립 과정을 소개해주세요.**

당시 포스코는 인도네시아 찰레곤시에 최초의 일관제철소를 건설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사회적기업 설립을 염두에 두고 KOICA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처음 포스코1%나눔재단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설립해 제철소 내 환경미화 업무를 위탁하고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기획조사를 실시하면서 찰레곤시 지역의 심각한 청년 실업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방향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Q. 당시 담당자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요?**

KOICA 담당자로서 사회적기업에서 23~30세 사이의 청년을 6개월 동안 채용해 역량 강화 교육을 한 후, 협력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재취업 시키는 사업 모델을 제안하고, 추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제철소와 연관된 마을 기업을 설립하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Q. 해당 사업이 참여자들에게 어떤 변화 또는 영향을 주었을까요?**

사회적기업 사업은 누군가에게는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지역사회에는 변화를 통한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는 결혼하려면 신부 쪽에 돈을 쥐야하는 풍습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에 채용된 후 비로소 결혼에 골인한 분도 있었고, 집안 환경이 어려워서 학업을 이어 나가지 못하다가 대학에 진학한 분도 있었습니다.

김수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주 유엔 한국 대표부 주재관

## 개발도상국 지역사회 지도자 양성사업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리더를 키웁니다

2014~2016년 참여인원



2014년	인도	11명
	인도네시아	6명
2015년	베트남	14명
	인도네시아	19명
	태국	11명
	중국	15명
2016년	베트남	17명
	미얀마	13명
	인도네시아	21명

포스코1%나눔재단은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포스코 그룹이 진출한 개발도상국가의 '지역사회 지도자 양성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교육과정은 강의학습(산업경제부문, 지역개발정책)과 현장체험(산업현장탐방, 한국문화체험)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여자에게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지역사회 개발 사례를 학습 및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해당 국가-지역사회의 개발·발전을 선도하는 리더로 육성하는 이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했습니다.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미얀마 등 다양한 국가의 지역사회 지도자들을 초청해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연수생들로부터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습니다.

협력기관: 영남대 국제개발협력원





# 문화예술 보존

## 전통문화 계승 및 문화예술 지원

포스코1%나눔재단은 중요무형문화재 지원 사업 ‘세대를 잇는 작업 이음展’을 통해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하고, 산업현장의 영웅을 위한 음악회, ‘우영음’을 통해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이 빛을 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장애예술인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지원 사업 ‘만남이 예술이 되다’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으로 문화예술이 꽃피울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세대를 잇는 작업 이음展

우리의 영웅을 위한 작은 음악회

만남이 예술이 되다

## 세대를 잇는 작업 이음展 전통문화로 과거와 현대의 맥을 잇습니다

### 중요무형문화재를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

포스코1%나눔재단은 중요무형문화재 지원 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세대를 잇는 작업 이음展’을 개최하였습니다. 포스코그룹의 업 특성과 역량을 활용한 금속무형문화재 보존 및 계승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세대를 잇는 작업 이음展’은 전통 무형 문화유산의 숨겨진 가치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매년 특별전으로 기획되었습니다. 2015년 제1회 이음展은 국가 무형문화재 64호 두석장 보유자, 2016년 개최된 제2회 이음展은 국가 무형문화재 60호 장도장을 중심으로 현대 공예가 및 디자이너들이 함께 참여하여 전통 문화의 계승과 새로운 가치 창조를 모색하는 특별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2015~2018년 참여 무형문화재



총 7명

2015년	두석장	2명
2016년	장도장	2명
2017년	주물장	1명
2018년	야장	2명

### 관람객

 60,000여 명

김극천 두석장



### 시대를 넘어 세대를 잇다

전통 공예의 멋과 문화적 의미에 대한 현대적 계승과 재창조는 이 시대 한국 문화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2017년에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45호 주물장을 중심으로 현대공예가들이 주방용기를 제작했으며, 철로 만들어진 협업 작품들을 판매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경기도와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야장 보유자의 작품과 현대공예가들의 작품을 전시해 한국의 철공예를 알렸습니다.

이처럼 이음展을 통해 장인들과 현대작가들 모두 세대도 분야도 다르지만, 단절위기에 놓인 전통 공예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한마음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더불어 전통과 문화재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끊임 없이 새로운 가치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전통의 아름다움에 함께 공감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깊은 의미를 새겼습니다.

한편 포스코1%나눔재단은 이음展을 통해 거둔 수익금을 기부해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후진 양성에도 기여했습니다.

협력기관: 한국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음展 참여자 인터뷰

66 장도의 정신을 알리고 꿈의 장도를 재현하는 기회였습니다.

99

Q. 국가무형문화재 장도장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장도장(국가무형문화재 제60호)은 장도를 만드는 장인이며, 장도(粧刀)는 칼집이 있는 작은 칼로 장신구이자 호신용 공예품입니다. 허리춤이나 옷고름에 달고 다닌다 하여 '패도(佩刀)', 주머니에 매거나 주머니에 넣어 다녀서 '낭도(囊刀)'라고도 하였습니다. 선조들은 장도를 보면서 마음을 다스렸고, 장도에는 변하지 않는 마음과 가치 있는 삶을 위한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Q. 2016년에 '세대를 잇는 작업 이음展' 장도장 전시회를 준비하실 때 소회가 어떠셨는지요?

살면서 장인으로서 보람을 느낀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75년간 장인으로 사셨고 저도 장도장으로서 전통을 지켜오고 있지만, 지금까지 기업이나 국가가 작품하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는 조건 없이 지원해 준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음展' 제안은 정말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Q. '이음展'을 위해 특별한 작품을 만드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작품이었나요?

국보급이라고 자부할 만큼 좋은 작품들이 탄생했는데, 제일 뿌듯한 것은 '백옥금 장환별자리금상감보검'이라는 작품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연산군 11년(1505) 5월에 신하에게 옥으로 칼자루를 만들고 금으로 장식하여 오색술을 달아서 만들라고 전교하였다'는 보검 제작 지시 기록에서 착안해 고증과 작가적 상상력을 더해 재현해 낸 특별한 작품입니다. 특히 칼날은 포스코에서 지원한 강철로 만들었습니다. 망치질이 잘 안될 정도로 강도가 높고 순도 높은 철이었기에 좋은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Q. '이음展'을 통해 장도장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전시장을 찾아주셨어요. 제가 장도를 만드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전시장에서 상영했는데, 장도장에 대해 전혀 모르던 분들도 감명을 받아서 박수를 크게 치셨어요. '이음展'을 통해 조금은 장도장에 대해 알리는 기회가 되고 무형문화재에 대해 잠시나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나눔은 '배려'다.

포스코그룹 임직원들이 배려하는 마음으로 좋은 사업에 쓰라고 기부하는 거잖아요. 포스코1%나눔재단 역시 그렇게 배려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좋은 작품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박종군 장도장 장인



우리의 영웅을 위한 작은 음악회(友·英·音) 산업 영웅들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산업현장 속 영웅들을 위한 음악회

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진정한 영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포스코1%나눔재단은 2015년부터 전통문화 보존계승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의 영웅을 위한 작은 음악회(友·英·音, 우영음)'를 진행했습니다. 우영음은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기반을 닦으면서 국민기업으로 성장해 온 포스코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 산업현장 속 근로자들에게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 찾아가는 공연으로 힐링을 선사하다

2015년 문래 철공단지에서 첫 공연을 시작한 이후 제조업 근로자들의 기충전을 위해 전국 각지의 산업 현장을 찾아 다양한 장르의 문화 공연을 선사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15회의 공연을 진행한 우영음은 문화향유의 기회가 적은 근로자들에게 치유와 힐링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국악을 중심으로 가요,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만남, 전통음악과 대중 가요의 크로스오버를 통해 전통문화의 대중화에 기여했고, 신진 음악가들이 자신의 음악을 널리 알리는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협력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메이드바이, 한국산업단지공단

2015~2018년 공연



총 15회

총 관람객



5,000여 명

### 우리의 영웅을 위한 작은 음악회 공연장소

- |                |                 |
|----------------|-----------------|
| 1회 문래 철공단지     | 9회 음성 원남산단      |
| 2회 고령 주물단지     | 10회 부산 명지녹산산단   |
| 3회 시흥 시화공단     | 11회 대구 성서일반산단   |
| 4회 군산 국가산업단지   | 12회 광양백운아트홀     |
| 5회 제천 산업단지     | 13회 인천 남동소래아트홀  |
| 6회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 | 14회 구미 산업단지공단   |
| 7회 광주 첨단산단     | 15회 익산 슨리문화예술회관 |
| 8회 서울 디지털산단    |                 |



### 기부자 인터뷰

66  
척박한  
문화 공백 지대에  
문화예술의 장을  
펼쳤습니다.

99

나눔은 '중독'이다.

한번 시작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한번 맛보면 쉽게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Q. '우영음' 담당자셨는데, 우영음을 처음에 어떻게 기획하고 진행하셨는지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런걸 왜 무료로 해주고, 기념품까지 주는 거죠?” ‘우리의 영웅을 위한 작은 음악회(이하 우영음)’를 담당하면서 이처럼 의심으로 가득한 눈초리로 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2015~2016년에 포스코1%나눔재단에서 신인 예술가들에게 다양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외되고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우리 제조업의 영웅들인 근로자들을 위한 무대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저는 2016년에 ‘우영음’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하였습니다.

Q. '우영음'을 진행하면서 인상에 남았던 순간,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우영음’은 소외되고 열악한 지역, 공연이 꼭 필요한 곳과 대상 근로자분들을 위해 적합한 무대, 장소를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직접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가는 지역마다 마을 이장님 혹은 산업공단의 단장님 등 관계자분들께 사업을 직접 설명드렸지만, 문화홀이나 공연 전문 장소가 아닌 사업장 내에 직접 무대를 설치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런 활동이 생소한 분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홍보 활동을 하여 결국 많은 분들이 공연장에 와주셨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Q. '우영음' 관람객들의 소감 및 반응 중 기억나는 모습이나 이야기 등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세번째 공연장이었던 ‘시화공단’은 주변 상황이 어려워 사업장(공장)들 한가운데 있는 작은 공터에 무대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시내, 역근처, 사업장들까지 전단지를 직접 돌리면서도, 과연 공단 한가운데까지 사람들이 찾아올까 맘을 졸였어요. 그런데 공연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아와주셨고 맨바닥에 주저앉아 공연을 즐기는 주민, 근로자들을 보며 “됐다”라며 뿌듯해 했죠. 그런데 공연이 끝난 후에 외국인 근로자와 할머니분들까지 눈시울을 붉히며 손을 꼭 잡고 “이런 동네에서 이런 멋진 공연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라며 마음을 전해주셔서,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던 기억이 납니다.

Q. '우영음'은 참여자들, 관람객들에게 어떤 변화 또는 영향을 주었을까요?

‘우영음’은 ‘국악’ 장르에 초점을 맞춰 신인 예술가와 장인들과의 콜라보 무대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인 예술가는 장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배우고, 장인분들은 능력있는 후배를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관람객분들도 ‘국악’이 얼마나 친근하고 흥겨운 음악인지 경험해보는 기회가 되었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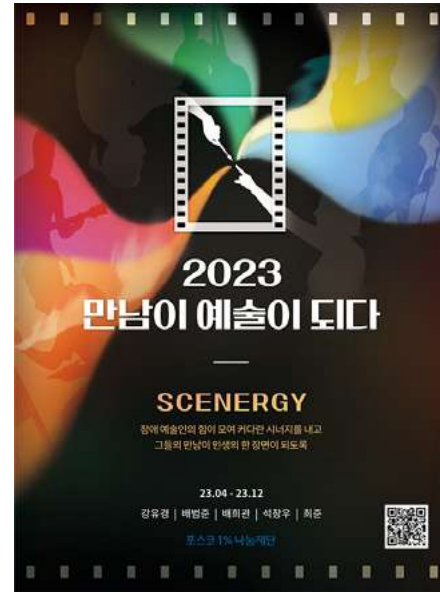
박유정 포스코 과장(우영음 사업 담당)



# 만남이 예술이 되다

## 장애예술인들과의 만남, 아름다운 예술을 꽃피우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장애예술인 창작활동의 대중화를 위한 '만남이 예술이 되다'를 시즌제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만남이 예술이 되다'는 뛰어난 예술적 능력을 갖추고도 상대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장애예술인들의 일상 및 활동을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을 통해 영상으로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사업 개시 이후 2023년까지 미술, 음악, 무용,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장애예술인 34명(32팀)을 선정해 총 74편의 영상을 제작하였으며 누적 2,3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만남이 예술이 되다' 포스터

### 장애예술인 스토리 영상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온라인 전시·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대중과의 소통 채널을 확장하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만남이 예술이 되다’를 통해 알려진 장애예술인들에게 온라인 전시회와 공연 등 문화예술활동 기회를 지속 제공하는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한 장애예술인 화가 분들을 초청해 온라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장애예술인 5명의 스토리와 셸럽과의 콜라보 창작활동을 재단 유튜브 채널과 방송매체를 통해서도 방영해 대중들이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남이 예술로 되는 특별한 기회로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이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기 바랍니다. 영상은 포스코1%나눔재단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poscofoundation)에서 영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협력기관: 트레저헌터

#### 2020~2023년 운영 성과



2022년 아트버스킹 장면



### 만남이 예술이 되다 참여기관 인터뷰

#### Q. 포스코1%나눔재단과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2020년 포스코1%나눔재단과 협업하여 장애예술인 대중화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 포스코1%나눔재단에서 이 기획안을 ‘만남이 예술이 되다’라는 타이틀로 구현했고,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시즌4로 이어졌습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만남이 예술이 되다’ 시즌1부터 4까지 모두 참여하며, 장애예술인을 소개하고 제작 동영상 콘텐츠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Q. ‘만남이 예술이 되다’ 사업의 가치, 장애예술인들이 갖는 의미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그동안 언론에서는 주로 역경을 딛고 자립한 장애인의 극복 스토리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장애예술인의 예술 세계가 제대로 조명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남이 예술이 되다’는 장애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장애인예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제대로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예술인들에게는 자신의 예술 세계를 알리는 중요한 창구가 되었으며, 특히 유명한 예능인들과 협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 무척 감동하고 설레어 했습니다.

#### Q. 사업에 참여하면서 인상에 남았던 활동, 프로그램은 무엇이였을까요?

시즌에 참가한 작가들이 모두 인상적이지만, 특히 시각장애 화가 박환 화백의 모습은 아름다움을 너머 경이로웠습니다. 그는 화가로 인정을 받기 시작할 무렵 교통사고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는데 캔버스에 노끈을 붙여서 스케치를 하고, 손가락에 물감을 묻혀 채색을 하는데 어둠 속에서 완성된 작품은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의 그림 그리는 모습을 소개한 영상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콜라보를 한 3D펜 작가 사나고가 박환 화백의 작품을 3D로 입체화하여 추천의 자택으로 갔다왔을 때 자기가 그린 그림을 비로소 손가락으로 더듬어 보면서 기뻐하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 Q. 해당 사업이 참여자들에게 어떤 변화 또는 영향을 주었을까요?

‘만남이 예술이 되다’에 참여한 장애예술인들은 자신의 예술 활동을 알릴 수 있는 아주 퀄리티 높은 포트폴리오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참여 후 공연이 더 많아진 작가들도 여럿 있습니다. 특히 장애예술인에게 예술 활동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비장애 예능인과 콜라보를 통해 함께 했을 때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은 장애인 예술의 큰 변화입니다. ‘만남이 예술이 되다’ 사업을 4년 동안 함께 진행하며 포스코1%나눔재단은 장애인예술 사업을 선도하는 재단으로 새롭게 각인되고 있습니다.

방귀희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회장

66  
장애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제대로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99

나눔은 ‘곱셈’이다.

나눔은 인생의 곱셈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남들이 놓친 부분을 볼 수 있고, 약자에 대한 배려심이 있으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나눔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합을 내는 곱셈입니다.





## 기부자 참여로 선순환 나눔문화 구축

포스코1%나눔재단의 기부자들은 물질적 기부에  
그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직접 재능을 나누며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전문성을 살린 봉사  
진심을 다하는 나눔은 이웃들을 위한 기반을 쌓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일깨우며  
아름다운 선순환으로 이어져 지역사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94

임직원 봉사

106

국내외 맞춤 공헌

118

기부자 주도 나눔



임직원 글로벌 봉사단



# 임직원 봉사

## 봉사로 더하는 행복한 복지

포스코1%나눔재단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나눔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임직원이 봉사자로 지원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글로벌 봉사단’을 운영하여 현지 이웃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 봉사를 펼쳤습니다. 그 외에도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111개의 ‘재능봉사단’이 자신의 재능과 경험 등을 살려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글로벌 봉사단

재능봉사단

## 임직원 글로벌 봉사단 해외 이웃을 위한 희망을 건설하다

###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해외 사회공헌 건설 봉사

포스코1%나눔재단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임직원 글로벌 봉사단’을 운영했습니다. 임직원 글로벌 봉사단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공모를 통해 선발하며, 100여 명으로 구성된 임직원 봉사단원이 해외 사업지역에서 진행하는 재단의 해외 사회공헌 활동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입니다.

봉사단원들은 현지민(홈파트너)들의 보금자리인 집을 건축하는 현장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 학교, 보육원 등 현지 복지시설에서 교육을 하는 등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가는 현지 이웃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주택 시공 및 관리기술 전수와 위생 청결 교육까지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생활여건 개선활동을 펼쳤습니다.



2015~2018년 임직원 글로벌 봉사단



355명







## 포스코그룹 임직원 역량의 산물

‘임직원 글로벌 봉사단’은 2018년까지 355명의 봉사단원을 배출했으며, 인도네시아 찰레곤을 포함해 베트남 봉따우, 태국 라용 등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한편, 임직원 글로벌 봉사단의 건축 봉사활동에는 POSCO Vietnam, POSCO YAMATO VINA, POSCO-VST, POSCO-TCS 등 현지 법인 소속의 글로벌 스태프들도 함께 참여해 이웃을 위한 나눔에 힘을 보탰습니다.

협력기관: 해비타트



### 베트남 봉따우

 **210**명

1기 **10**명(2015. 01) 베트남 봉따우 주택 1세대 건축 및 교육봉사

2기 **44**명(2015. 08) 베트남 봉따우 주택 6세대 건축 및 고아원 봉사활동

3기 **58**명(2016. 01) 베트남 봉따우 주택 6세대 건축 및 마을 벽화 봉사

4기 **61**명(2016. 08) 베트남 봉따우 주택 5세대 건축 및 고아원 봉사활동

5기 **37**명(2017. 01) 베트남 봉따우 주택 4세대 건축 및 고아원 교육봉사

6기 **49**명(2017. 08) 태국 라용 주택 3세대 건축 및 학교 교육봉사

7기 **47**명(2018. 01) 태국 라용 주택 3세대 건축 및 학교 교육봉사

8기 **49**명(2018. 08) 인도네시아 찰레곤 주택 10세대 건축 및 학교 교육봉사

### 태국 라용

 **96**명

### 인도네시아 찰레곤

 **49**명



## 기부자 인터뷰

임직원 글로벌 봉사단

모두가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벽돌이  
홈파트너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Q. ‘글로벌 봉사단’ 활동에 참여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2015년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베트남 봉따우 ‘포스코 스틸 빌리지’ 조성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일이 그렇게 힘들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장에서는 매일 정해진 목표량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중일 일을 하느라 저녁에는 완전히 녹초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추위 때문에 한국에서부터 고생하던 감기가 베트남의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땀을 흘리다 보니 불과 하루 만에 치유되기도 했습니다.

Q. ‘글로벌 봉사단’에 참여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힘들게 지은 집을 완공하고, 홈파트너께 소중한 보금자리를 전달한 헌정식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뜨거운 날씨에도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마지막 헌정식에 저희 직원들은 무대에서 합창을 하였습니다. 헌정식을 마무리하고 한국에서 준비해 간 선물과 전날 만든 사진을 홈파트너께 전달하였습니다. 홈파트너 할머니께서 “나는 준비한 게 없는데 받기만 해서 미안하고 감사하다”라며 눈물을 흘리시는데,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기억이 납니다.

‘글로벌 봉사단’ 1기로 참여해 다음 기수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 귀감이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록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진정한 봉사와 감사의 의미를 깨닫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김성훈 포스코 계장(광양 제선설비부 근무, 글로벌 봉사단 1기)

장애를 딛고 참여한 글로벌 봉사에서  
봉사의 행복을 깨달았습니다.

Q. 현지 주민들과의 교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특별히 기억나는 내용이 있을까요?

홈파트너 응아님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스스럼없이 다가와 금세 친해졌습니다. 저에게 베트남어를 하나씩 알려주셔서 저도 한국말을 알려주었고,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눈빛, 몸짓으로 대화를 하면서도 깔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특히 제가 가르쳐 준 “예쁘다”라는 말을 만날 때마다 해주셨는데, 그 음성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듯합니다.

Q. 글로벌 봉사활동 참여 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더운 날씨에 땀범벅이 되어도 힘들다는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았고, 집의 모양이 갖춰 가는 순간순간이 모두 보람이었습니다. 글로벌 봉사단 활동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봉사활동 후의 즐거움과 행복이 너무도 소중하기에 지금도 벽화 봉사, 반려해변 봉사, 취약계층 환경정화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향숙 포스코휴먼스 차장(글로벌 봉사단 2기)



## 기부자 인터뷰

글로벌 봉사단

“나눔은 내 삶의 꽃입니다.  
나눔은 제게 아름다운 순간 그 자체입니다.”



**Q. 글로벌 봉사활동 참여는 본인에게 어떤 의미로 남았으며, 봉사 참여 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글로벌 봉사단’ 활동은 제 삶에서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고아원에 방문했을 때, 장애인 보육 선생님 한 분과 스마트폰 번역기를 사용해 소통했는데, 그 선생님께서 “당신은 천사의 미소를 가졌다”라는 글을 적어 보여주셨습니다. 울컥한 기분이 들어 그분 손을 잡고 감사하다고 인사했던 순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그 경험과 기운을 되새기며, 지금도 독거노인을 돌보고 농촌마을 꽃길을 조성하는 등 또 다른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또 다른 마음으로 돌아오는 봉사활동, 그 자체가 너무 즐겁습니다.

박영식 포렌 부장(글로벌 봉사단 5기)

## 글로벌 봉사단 지원 대상자 인터뷰

“‘스틸 빌리지’는 꿈꿀 수 있는 집으로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Q. 베트남 ‘스틸 빌리지’ 사업이 지역에서 언제 진행됐으며, 당시 동네와 본인의 집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2014년 당시 우리 가족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남편이 공사에서 심부름 업무를 하다 보니 불규칙한 수입으로 생활이 불안정하였고, 3명의 아이들은 제대로 공부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도 없어서 강가에 지은 낡고 좁은 집에 수년 동안 살았는데, 비가 오면 낡은 철제 지붕에서 빗물이 새고 산사태로 집이 무너질까 봐 밤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Q. ‘스틸 빌리지’ 사업은 본인과 가족에게 어떤 의미로 남았으며,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현재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스틸 빌리지’는 매우 튼튼하고 거실, 주방, 침실 2개로 공간도 넓으며 깨끗한 수도와 전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센 폭우가 내려도 집이 무너지거나 빗물이 샅 걱정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스틸 빌리지’는 우리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계속 노력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었습니다. 안정적인 거주 장소가 생기면서 아이들도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남편과 제가 좋은 일을 찾게 되어 생활도 개선되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다시 태어난 것처럼 바뀌었습니다.

응엔 티 프엉 베트남 스틸 빌리지 거주 주민



## 글로벌 봉사단 수행기관 인터뷰

“안정적 주거로 인한 회복 동력은  
‘글로벌 봉사단’이 전한 발전적인 삶의 방향입니다.”

**Q. 해비타트에서는 어떻게 포스코 ‘스틸 빌리지’ 사업에 참여하셨나요?**

해비타트는 전 세계 주거문제 및 커뮤니티 개발을 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국제 NGO입니다. 포스코 ‘스틸 빌리지’ 사업은 해비타트와 포스코그룹의 핵심 가치를 존중하며 서로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고, 각자가 가진 장점으로 사업에 시너지를 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해비타트 해외사업팀장으로 베트남 포스코 ‘스틸 빌리지’의 완공 및 지역사회 이익을 담당하였습니다.



**Q. 사업을 진행하며 각각 어떤 역할을 맡아서 진행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의 실행을 위해 해비타트와 포스코1%나눔재단은 서로의 전문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실행을 위해 포스코A&C 등 다양한 그룹사가 함께 했고, 해비타트 베트남이 보유한 표준 주택 모델을 기반으로 포스코 기술력을 접목하고, 현지 법인에서 생산하는 H-형강 등을 활용하여 더욱 견고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각자의 전문성을 투입하였습니다. 해비타트 베트남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대상을 선발하고 주민들에게 주택, 식수위생 등의 기초교육을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Q. 해당 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나요?**

‘스틸 빌리지’ 사업으로 인해 안전하고 견고한 주택을 제공받은 주거 취약계층은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되면서 사회경제적 회복탄력성도 강해졌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포스코 ‘스틸 빌리지’에서는 집을 개조하여 구멍가게를 운영하거나, 재봉기술을 배워 집에서 옷 수선 비즈니스를 하는 등 삶을 확장했고, 아이들이 방이 생겨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등 주민들의 행동양식에 많은 변화가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루어 낸 ‘스틸 빌리지’ 사업은 지역 정부가 참고하여 인근지역까지 확장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Q. ‘임직원 글로벌 봉사단’의 봉사활동은 어떤 기여를 했을까요?**

‘글로벌 봉사단’은 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를 도와주러 온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졌지만, 장기적이고 꾸준한 봉사단의 활동 참여로 주민들은 봉사단의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스틸 빌리지’에 입주한 가정은 자녀들에게 “너도 커서 저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교육한다고 말하며 자녀에게 올바른 미래상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유식 한국해비타트 해외사업팀 팀장



# 재능봉사단

## 기술과 재능으로 아름다운 변화를 창조합니다

### 찾아가는 나눔, 봉사로 전하는 감동

재능을 살려 봉사와 결합시킨 '재능봉사단'은 임직원이 가진 전문 기술과 지식, 경험 등의 재능에 열정을 더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단입니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임직원들이 취미와 특기를 살려 나눔활동에 참여하는 재능 봉사활동도 적극 지원합니다.

재능봉사단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수혜자와 봉사자 모두가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어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가구 제작, 기계 수리, 도배, 어학능력, 마사지, 사진촬영 등 다양한 역량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봉사로 사랑과 나눔을 전하고 있습니다. 재능봉사단은 꼭 필요한 곳으로 찾아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방면의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지역사회에 사랑과 재능을 전하고 있습니다.



재능봉사단 \* 2023년 기준

총 **111** 개

포스코1%나눔재단 기금으로 운영된 2018년 기준, 25개 봉사단, 2,120명 참여



### 지역 중심 111개의 '재능봉사단' 활약

2018년까지 포스코1%나눔재단 기금으로 운영됐던 '재능봉사단'은 2023년 기준 포항, 광양, 서울 지역에서 현재 111개의 재능봉사단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소에는 해양정화, 자전거 수리, 발 마사지, 사진, 코딩, 목공예, 공공시설가꾸기 등 45개 재능봉사단이 있으며, 3,000여 명이 넘는 봉사단원이 매주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이웃들에게 도움을 전하며 포항시와 동반성장하는 이웃으로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 재능봉사단은 꾸준히 늘어나 현재 46개 재능봉사단, 2,500여 명의 직원들이 활발히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를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네일아트, 사랑 나눔 빵튀기, 행복이음 세탁, 보금자리 정리 정돈, 전래놀이문화 등 보다 다양한 재능과 기술을 발휘하며 지역민들에게 즐거운 마음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서울·송도 지역에서도 20개의 재능봉사단, 1,000여 명의 직원들이 활발하게 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응원의 글귀를 캘리그래피로 작성해 선물하는 달필봉사, 시각장애 아동이나 다문화가족 아동의 독서 학습 능력 향상을 돕는 굿보이스봉사단, 재봉틀로 생활 소품을 제작 지원하는 사랑의 재봉틀 봉사, 취약계층에게 직접 조리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요리조리봉사 등 다양한 봉사단들이 즐거운 웃음과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협력기관: 포항시자원봉사센터, 광양중마노인복지관, 강남구자원봉사센터 등

\* 재능봉사단 사업은 2019년부터 포스코 비영리 지출 체계로 변경되었습니다.

재능봉사단 활동인원 **6,500** 여 명 \*2023년 기준





## 기부자 인터뷰

클린오션 봉사단

### 클린오션 봉사단

클린오션 봉사단은 2009년 11월 창단되었으며, 포스코그룹 직원 및 사외 봉사자로 구성이 되어 바다, 담수 등 수중환경 정화 활동을 주로 하는 봉사단입니다. 포항·광양 등지에서 19,000여 명의 봉사자가 건져 올린 해양 쓰레기는 무려 2,060톤에 이릅니다. 현재 클린오션 봉사단은 서울, 포항, 광양 지역별로 전체 50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포항 클린오션 봉사단이 대통령 표창(제10기 국민추천포상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아내와 제가 먼저 시작한 봉사활동을 이제 아들 둘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Q. ‘클린오션 봉사단’에 참여하신 계기는 무엇이었고,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요?**

“아빠! 이 큰 새가 왜 죽은 거야?”

아들들이 어릴 때 가족이 함께 해안가를 산책하다가 철새로 보이는 제법 큰 새 여러 마리가 바닷가에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죽은 새 옆에는 생활 쓰레기와 스티로폼 덩어리, 여러 가지 비닐 쓰레기 등이 잔뜩 있었는데, 아마도 이 새들은 오염된 물고기를 먹었거나 사람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죽은 것 같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철새들이 죽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아들들에게 물었더니, 우리 가족이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보자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활동 봉사 단체를 찾다가 2011년에 아내와 제가 먼저 ‘클린오션 봉사’ 활동을 시작하고, 아들 둘은 2017년부터 ‘클린오션 봉사단’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들 둘은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취득하여 4년 전부터 함께 수중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Q. 클린오션 봉사활동 참여는 본인에게 어떤 의미이며, 봉사 참여 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버지께 이끌려서 나올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자원해서 토요일 봉사활동을 어디서 하는지, 친구를 데리고 와도 되는지 물어보는 등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 입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입사하면 더 열심히 ‘클린오션 봉사단’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부부간 대화도 많아지고, 어른이 되어 가는 자식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어 가족이 더욱 화목해진 것 같습니다.

**이춘선** 포스코 과장(포항연구인프라그룹 근무)

나눔은 ‘반사’다.

나눔을 경험하고 받아본 사람은 자신도 나눔에 동참하고 실천하게 됩니다.

“해양 생태계 보호에 힘을 보탠다는 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Q. 서울 ‘클린오션 봉사단’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떤 봉사를 하는 곳인지 소개해주세요.**

서울 ‘클린오션 봉사단’은 2010년 창단되어 연중 주기적으로 포항, 광양, 강릉, 울릉도 등에서 연합 수중 봉사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바다에 인접한 지역이 아니다 보니 포항이나 광양처럼 자주는 못하지만, 언제든지 해양 정화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매월 안전교육을 통해 스쿠버다이빙 스킬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Q. ‘클린오션 봉사단’에 참여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활동, 프로그램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해 참여했던 광양 연합 봉사활동이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클린오션 봉사활동에서 해적 생물이라는 개념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는데, 바닷속에 쓰레기보다 해적 생물이 더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과다 번식한 불가사리나 성게처럼 유용 생물을 먹어 치우거나 생육과 번식을 방해하는 해적 생물은 심하면 생태계를 교란하고, 지역 어민들의 어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봉사활동이 끝나고, 단원들이 수거한 수중 쓰레기와 해적 생물이 해변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마치 훈장을 받은 것처럼 뿌듯했습니다.

**Q. 클린오션 봉사활동 참여는 본인에게 어떤 의미이며, 봉사 참여 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클린오션 봉사활동을 하면서 해양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이 더 강해졌고, 해양 환경 정화와 생태계 보호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데 큰 보람을 느낍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포스코그룹의 해외 사업장 인근 바다에서 회사를 대표해서 해양 정화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해양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복원과 보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또, 클린오션 봉사단원으로서 새로운 바다숲 조성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경** 포스코홀딩스 대리(인재경영팀 근무)



나눔은 ‘더 나은 나를 만드는 습관’이다.

포스코그룹 일원으로서 재단에 기부도 하고, 클린오션을 포함한 ‘재능봉사단’ 활동에 참여하면서 어느새 나눔이 습관처럼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불어 살아가면서 주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 기부자 인터뷰

클린오션 봉사단



〰〰  
지속가능한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해  
노력합니다.  
〰〰

### Q. ‘클린오션 봉사단’에 참여하신 계기는 무엇이었고,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요?

2009년 11월 25일, ‘클린오션 봉사단’ 창단일은 저의 봉사활동 시작일입니다. 해양 생태계 파괴와 해양 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되면서, 도움이 싶다는 생각에 ‘클린오션 봉사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울릉도, 거문도, 한강, 옥계, 연도, 오동도 등지에서의 수중정화 활동뿐만 아니라 섬진강 경비행기 실종자 수색, 광양읍 용강리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코크스 공장 CDQ Cooling Tower 필터 수거 등 다수의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 Q. 클린오션 봉사활동 중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클린오션 봉사단’에 참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포항, 광양을 중심으로 진행된 해양정화활동이었습니다. 이 활동은 제철소 인근 지역 해안 청소와 바다 정화를 목표로 하였는데, 이를 통해 지역 어민들의 소득증대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활동은 언론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조명을 받았고, 포스코를 대표하는 사회 공헌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며 포항 클린오션 봉사단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 Q.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수중 봉사활동 시 건져 올렸던 폐그물과, 폐어구 중에 갇혀 있던 작은 물고기들을 풀어 주자, 자유롭게 헤엄치며 바다로 돌아가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수중에 버리고 방치한 해양 쓰레기와 폐어구들이 바다 생물들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 실감했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더욱 깨달았습니다.

## 나눔은 ‘희망’이다.

나눔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앞으로  
잘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중영 포스코 과장(광양 화성부 근무)

## 재능봉사 수행기관 인터뷰

〰〰 포스코1%나눔재단은 나눔의 동력이 되는 지속적인 힘입니다. 〰〰

### Q. 포스코1%나눔재단 사업에 참여하신 계기와 사업참여가 어떤 의미로 남았는지 말씀해주세요.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에서 포스코1%나눔재단과 ‘포스코 FEEL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운영했습니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고, 동시에 지역의 욕구와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과제를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는 포스코1%나눔재단과 논의 끝에 ‘문화재 가꿈이 봉사활동’을 정하고 전문교육을 통해 문화재 가꿈이 재능봉사단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포스코1%나눔재단의 나눔과 봉사활동의 핵심 동력은 속도에 치중하지 않고 화려하게 돋보이는 것보다 묵묵히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그 지속성이 제게 큰 의미로 남았습니다.

이화옥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 풀뿌리 자원봉사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

### Q. 사업에 참여하면서 인상에 남았던 활동, 프로그램은 무엇이였을까요?

많은 사업을 했지만 특히 2020년 말 북한 이탈 주민 아동 대상으로 했던 ‘원목 책상 나눔 사업’이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자가 학습이 늘어난 상황에서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밥상에서 공부하는 지역 내 북한 이탈 주민 가정의 아이들에게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원목 책상과 의자, 스탠드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중에 실직과, 희귀병, 하반신마비 가정의 아이들이 반에서 가장 좋은 책상이 생겼다면 책상에서 떠나지 않는 모습에 매우 감동을 받았고 보람도 컸습니다.

이상섭 포항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 우리 사업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

### Q. 사업 참여는 어떤 의미로 남았으며, 본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도시락 배달사업’을 진행하면서 독거노인의 사망사고를 발견한 안타까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사업이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업을 진행하며 어르신들께 정성을 다해야겠다는 마음가짐도 더욱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셨던 포스코1%나눔재단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영역의 복지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병관 광양 중마노인복지관 관장





# 국내외 맞춤 공헌

## 세계로 달려가는 구호의 손길

포스코1%나눔재단은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국경 없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 현장에 즉각적인 도움을 건네는 것은 물론 포항·광양제철소 및 그룹사 자체적으로도 적극적인 나눔 실천에 나서고 있어 지역과 기업의 동반성장에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 긴급구호

POSCO-HANDS

POSCO Care

포항·광양제철소 및 그룹사 자체 사업

## 재난재해 긴급구호

### 국내외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과 위로 나눔

포스코1%나눔재단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에도 구호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2013년 12월 태풍 피해로 인한 필리핀 수해현장에 구호자금 기탁을 비롯해 세월호 성금 출연, 멕시코 지진 피해 성금 전달, 인도네시아 롬복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구호 기금 출연 등 국내외 할 것 없이 재난 상황에 처한 지구촌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과 위로의 마음을 보태왔습니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앞으로도 지구촌 이웃들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따뜻한 나눔 활동을 실천할 것입니다.

\* 재난재해 긴급구호 사업은 2019년부터 포스코 비용 지출 체계로 변경되었습니다.



#### 2013~2018년 재난재해 긴급구호

- 2013년 필리핀 태풍피해 긴급구호 기금 출연
- 2014년 세월호 성금 출연
- 2015년 네팔 지진 피해 긴급구호 기금 출연
- 2017년 강릉 산불 피해 이재민 긴급구호 기금 출연  
포항 지진 피해 복구 기금 출연  
멕시코 지진 구호 기금 출연
- 2018년 인도네시아 롬복 지진 피해 긴급구호 기금 출연





# POSCO-HANDS

## 해외 취약계층을 위한 글로벌 나눔활동

포스코1%나눔재단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현지 해외 법인 글로벌 스타프의 주도적인 봉사 활동을 장려하고자 ‘글로벌 모범시민 위크’와 연계하는 지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선정된 해외법인은 현지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주거환경 개선, 장애인 재활 지원, 배려계층에 대한 교육과 물품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협력기관: 밀알복지재단



# POSCO Care

## 지역 환아들 위한 의료비 지원

‘POSCO Care’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술 및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사회 환아들을 위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포항, 광양지역에서 질환을 겪고 있는 환아들에게 항암치료비, 특수의료장비 구입비, 화상수술비, 전악재건 치료비, 레이저 치료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들은 힘겨운 치료를 이겨내고 미래세대의 주역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협력기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포항·광양제철소 및 그룹사 자체 사업

## 각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공헌 프로그램

포항·광양제철소 및 그룹사는 각 사업지가 위치한 지역사회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포항제철소

#### 취약계층 어르신 비대면 스마트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포항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사업연도 2022~2023년(현재)  
누적실적 **150**명

취약 어르신 가정에 ICT기반 스마트센서, 119긴급호출버튼 등 비대면으로 24시간 모니터링 가능한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일상 관리부터, 긴급상황 응급호출까지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 포스코홀딩스

#### 페어 스타트(Fair Start)를 위한 영어 교육 프로젝트

수행기관 사회적협동조합 잉쿨  
사업연도 2023년(현재)  
누적실적 1개 복지관 초등생 **12**명, 주 **2**회 교육

서울시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 영어 강사들이 영어 교육을 진행합니다. 공정한 출발선에서 교육을 제공하자는 목표로 아동들의 정서적인 부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광양제철소

#### 결혼이주여성 인형극단(색동나무) 사업

수행기관 광양시 가족센터  
사업연도 2020~2023년(현재)  
누적실적 공연관람 수혜인원 **11,000**명,  
누적공연회수 **400**회

색동나무는 전국 최초 다문화 이주여성이 주도하는 인형극단 육성 프로그램 사업으로 2022년 전국 가족센터 최우수 사업 선정, 2022년 세계전래놀이 지도자 자격증 12명 취득 등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 포스코엔텍

#### 도담도담 빌리지(안전안심마을 만들기)

수행기관 사랑나눔복지재단, 광양경찰서  
사업연도 2021~2023년(현재)  
누적실적 월 **1**회 방범 봉사활동 실시, 광양시 농촌마을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CCTV, 횡단보도 바닥조명 설치와 안전이 취약한 초등학교에 안전한 등하굣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2021년 안전안심마을 만들기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 포스코인터내셔널

### 우즈베키스탄 미래세대 취업역량 교육 사업 '스피크 포 석세스'

수행기관 하트하트재단  
 사업연도 2021~2023년(현재)  
 누적실적 포스코인터내셔널 페르가나 교육센터를 활용, 총 **140**명의 청소년들에게 무상영어 교육 지원

'우즈베키스탄 미래세대 취업역량 강화 교육 사업'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유학 및 취업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외

### 우즈베키스탄 안보건 증진 사업

수행기관 비전케어(2015년~2018년), 하트하트재단(2018년~2019년)  
 사업연도 2015~2019년  
 누적실적 부하라 및 페르가나 지역에 안과진료 **4,949**명, 안과수술 **728**명, 안경지원 **2,294**명, 현지 의료진 교육 **5**명

우즈베키스탄의 의료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백내장 수술을 제공하여 실명 예방 및 시력개선을 지원합니다. 또한 '안경 지원 사업'을 통해 환자의 눈에 맞는 안경과 돋보기를 지원하여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포스코이앤씨

### 지역아동센터 One&One

수행기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업연도 2014~2023년(현재)  
 누적실적 **9,000**명(30여 개소/연) 지원

인천 지역아동센터 30곳과 회사 내 30개 부서가 1:1 결연을 통해 학습지원과 체험활동, 시설 개보수 등 정기적 돌봄을 제공하는 직원 주도 사회공헌활동입니다. 최근에는 사회적 이슈인 ESG에 맞게 아동들의 환경감수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생태학습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 에너지 절감형 화재예방 주거환경개선 '에코드림'

수행기관 한국해비타트  
 사업연도 2015~2018년, 2021~2023년(현재)  
 누적실적 주택 **148**가구, 복지시설 **13**개소, 기초소방시설 **1,650**개소

2015~2018년에는 관할 소방서와 함께 화재 위험이 높은 주거환경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주거환경개선과 기초소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펼쳤습니다. 2021~2023년에는 50년 이상 된 노후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형 화재예방 개선 사업을 펼쳐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 포스코퓨처엠

### 희망충전 사랑나눔 푸드충전소

수행기관 중마노인복지관, 소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나눔의집  
 사업연도 2020~2023년(현재)  
 누적실적 포항 **250**명, 광양 **200**명, 세종 **200**명

'푸드충전소 사업'은 포항, 광양, 세종 각 지역별로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노인 100명을 선정해 생필품을 지원합니다. 푸드마켓 형식으로 생필품을 수령하며,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 의 경우 직접 배달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포항지역에서 최초로 시작하여 2021년 광양, 세종으로 확대 운영했습니다. 광양의 경우 3명의 노인 일자리 창출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 생명의 빵 나눔사업

수행기관 오천읍 자원봉사센터, 포항시 이웃사촌복지센터, 베들레헴 교회  
 사업연도 2022~2023년(현재)  
 누적실적 65세 독거노인가정 및 한부모가정 **1,400**세대

'생명의 빵 나눔사업'은 매주 목요일마다 1,800여 개의 빵을 만들어 65세 독거노인가정 및 한부모가정 700세대에 나눔 및 지원합니다. 매달 마지막 주에는 포스코퓨처엠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빵 배달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 포스코DX

### 미래IT인재육성 초등학생 대상 '코딩 꿈나무 양성교실'

수행기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업연도 2019~2023년(현재)  
 누적실적 **20**개 초등학교, **963**명 교육 수료

'코딩 꿈나무 양성교실'은 포스코DX의 전문성과 직원들의 재능 기부를 기반으로 지역 공공기관, 비영리 기관 등과 협력하여 코딩 분야 전문역량을 보유한 사내 직원 50여 명이 IT 교육 기회가 적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코딩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유튜브 성장 지원 '꿈을Green다'

수행기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사업연도 2019~2023년(현재)  
 누적실적 공모전 **936**개팀 참여, 교육 수료 **603**명, 채용 **1**명(포스코휴먼스)

사회적 취약계층 장애인 대상 신개념 일자리 창출 지원을 목적으로 유튜브를 꿈꾸는 중증장애인들도 손쉽게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촬영, 편집, 콘텐츠 개발까지 영상제작 전 과정의 교육프로그램을 5개 그룹사가 함께 협력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포스코플로우

#### 미래세대 1인 1악기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업연도 2023년  
 누적실적 광양시 관내 **4**개 초등학교에 통기타 기증 및 음악 교육 정규 프로그램 지원

광양시 미래세대의 음악교육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인성 함양 및 감성 발달을 위해 방과 후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지역사회 문화예술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 포스코스틸리온

#### 지역 복지기관 및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수행기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사업연도 2016~2023년(현재)  
 누적실적 **12**개소

자사의 강건재를 활용한 '지역 내 복지기관 및 취약계층 가정 주택 수리·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용 스틸제품 기증 사업으로 점자 교구, 입체 사진 등 시각장애인용 점자, 촉각 제품 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 포스코와이드

#### 자원도있다

수행기관 그린웨이브  
 사업연도 2022~2023년(현재)  
 누적실적 **350**톤, CO<sub>2</sub>감축 목표

'자원도있다'는 사무용 물품을 기업이 기부하면 보관했다가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사무용 가구 재사용 온라인 B2B 플랫폼입니다. 포스코와이드는 이를 통해 ESG가치확산과 자원순환 문화 확대를 위한 노력과 지역사회 나눔활동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 포스코MC머티리얼즈

#### 한부모가정 가족관계 프로그램 운영

수행기관 광양시가족센터  
 사업연도 2021~2023년(현재)  
 누적실적 전체 수혜가정 **32**가구, 가족관계 프로그램 **6**회, 심리상담 **12**회

한부모·조손가족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심리치료 및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형성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한부모가정 대상 가족관계 프로그램 및 운동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SNNC

#### 사랑채움 SNNC '미래세대' 지원사업

수행기관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사업연도 2020~2023년(현재)  
 누적실적 학대피해아동 대상 원예프로그램 **23**회, 문화체험 **15**회, 심리치료 **63**회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아동그룹홈 심리치료·문화체험지원을 통해 아동의 마음 치유와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아동센터 예체능 프로그램 지원 등 미래세대 지원 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 다시 그린 미래이야기\_그린모션재능봉사단

수행기관 드림공존  
 사업연도 2022~2023년(현재)  
 누적실적 **10**개 농장

낙후된 지역사회의 축산 농가나 환경개선이 필요한 보육원 등을 대상으로 공공예술 벽화를 지원하였으며, 더불어 환경정화 활동까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그린모션재능봉사단'의 손길까지 더해져 깔끔하고 아름답게 변신한 공간이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 포스코A&C

#### 희망의 집짓기 및 주거환경개선

수행기관 한국해비타트  
 사업연도 2014~2023(현재)  
 누적실적 희망의 집짓기 **12**세대, 주거환경개선 **1**세대  
 입주가정의 자립을 돕는 희망의 집짓기 건축봉사활동과 저소득층 아동과 주거취약계층 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엔투비

#### 세대교류 및 정서교감 프로그램 '역삼패밀리'

수행기관 역삼노인복지관  
 사업연도 2014~2023년(현재)  
 누적실적 연인원 **1,985**명, 실인원 **496**명, 총 **80**회 진행(2014~2023년)

2014년부터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대교류 및 정서교감 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 친환경 문화체험 기관탐방, 친환경 생활용품 KIT 지원, 역삼패밀리의 날(작품집 제작 및 배포, 활동평가 등) 등 세대가 교류하며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포스코휴먼스

#### With Dream 장학사업

수행기관 포항명도학교 외 8곳  
사업연도 2015~2023년(현재)  
누적실적 총 **146**명

2015년부터 장애학생을 위한 'With Dream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항, 광양, 서울 지역별 초·중·고·대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선정된 장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장애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의 동반자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 PNR

####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지원사업

수행기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업연도 2018~2023년(현재)  
누적실적 수혜인원 **60**명, 지역아동센터 **2**개소,  
**144**회 봉사활동 실시

사회적 돌봄 계층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PNR 직원들이 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 포스코인재창조원

#### 아빠랑 나랑! 아빠-자녀 소통캠프 '랑랑캠프'

수행기관 포항시청소년수련관  
사업연도 2020~2023년(현재)  
누적실적 총 **181**명, **5**회 진행

아버지와 자녀가 하룻밤 동안 다양한 놀이 활동을 함께 진행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족 간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선정해 가족의 소중함과 행복을 주는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아빠-자녀 소통캠프'는 가족관계 개선과 아이 인성교육에 효과가 있다고 호평받고 있습니다.



### 포스코기술투자

#### 아동 성장 지원 '희망드림'

수행기관 대한적십자사  
사업연도 2018~2023년(현재)  
누적실적 수혜인원 **230**명

제빵 봉사, 전통문화 체험활동 및 장학금 전달 등을 통해 서울 서초구·강남구·동작구 보호아동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유로 가정 해체를 경험한 아동복지시설 및 그룹홈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 RIST

#### 청년발달장애인 고용지원을 위한 직업지원 사업

수행기관 멘토장애인평생교육원  
사업연도 2018~2023년(현재)  
누적실적 **1**개 기관

청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및 체험 등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2022년에는 장애인들의 자존감 향상과 자기성장을 위해 만다라 작품을 교육하고 작품 전시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제공과 장애인 인식개선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습니다.



### 포스코경영연구원

#### 프로보노 봉사단 사업

수행기관 주식회사 상상우리, 가톨릭대학교  
사업연도 2020~2023년(현재)  
누적실적 연 **1**회 총 **4**회

직무경험과 전문지식을 사회적기업에 전수해 사회적기업의 비즈니스 현안을 해결하고, 가톨릭대 학생 봉사단과의 협력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세대융합 프로보노 활동입니다. 재능 나눔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당면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학생들 대상 멘토링을 통해 미래세대 전문역량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포스웰

#### 꿈꾸는 아이들을 위한 Dream On프로젝트

수행기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업연도 2023년(현재)  
누적실적 지역아동센터 **34**개소 **400**여 명 아동,  
프로그램 누적 인원 약 **50**회차  
**15,000**명 아동 참여

업의 특성을 반영한 아동복지 및 건강케어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지역 내 미래세대의 건강한 삶과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양방향 온라인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K-POP댄스 및 성장판키우기 체조교실, 챌린지댄스 경연대회, 랜덤플레이댄스, 오프라인 수업 및 성과공유의 장 페스티벌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전남드래곤즈

#### 감사나눔 희망골 사랑의 쌀 전달식

수행기관 광양사랑나눔복지재단  
사업연도 2013~2023년(현재)  
누적실적 **49,400**kg

2012년 말부터 홈경기에서 득점을 할 때마다 쌀 100kg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도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참여하여 적립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립한 쌀은 시즌 종료 후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며 감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2020년부터 포스코1%나눔재단 예산 사용



## 포스코인터내셔널 우즈베키스탄 '스피크 포 석세스' 참여자 인터뷰

### 포스코인터내셔널 우즈베키스탄 '스피크 포 석세스' 사업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21년부터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Fergana)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피크 포 석세스(Speak for Success)'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피크 포 석세스' 사업은 지역사회 미래세대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외국어와 IT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은 17~24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초급과 중급반으로 나누어 주 2회 실시간 화상수업 형태로 운영되며, 포스코인터내셔널에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건립한 페르가나 교육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총 140명의 청소년들이 영어 교육에 참가했습니다.

66 목표를 향한 사고와 시야를 넓히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99

#### Q. '스피크 포 석세스'에 참여하신 계기는 무엇이었고,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요?

저는 페르가나 제10번째 학교 10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K-팝 음악과 댄스와 드라마 등을 좋아하며,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 꿈입니다.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 외국어 공부를 해왔으며, 영어로 많이 말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 Q. '스피크 포 석세스' 참여는 어떤 의미로 남았으며, 본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스피크 포 석세스' 프로그램 참여 후 저의 영어 말하기 실력이 정말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로 저의 사고와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3개 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포스코1%나눔재단 덕분에 제 꿈에 한발 더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솔리에바 마흐료(Soliyeva Mahliyo)

66 나눔은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의무입니다. 저도 가치 있는 프로그램에 기여할 것입니다. 99

#### Q. '스피크 포 석세스'에 참여하신 계기는 무엇이었고,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요?

저는 페르가나 제17번째 학교 10학년에 다니고 있는 16살의 소년입니다. 장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외국어 말하기 실력 향상 및 취업역량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외국어 실력이 향상되어 취업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Q. '스피크 포 석세스'에 참여하면서 인상에 남았던 활동, 프로그램은 무엇이였을까요?

저는 1:1 수업을 약 4개월간 들었고, 영미권 명문대의 전문 튜터와 함께 실시간으로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하는 동안 수업을 함께한 외국인 튜터분들과 친해졌습니다. 이들이 우즈베키스탄에 방문했을 때 저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압두잡보로프 야호벡(Abdujabborov Yahyobek)

## 포스코이앤씨 '에코드림' 참여자 인터뷰

### 포스코이앤씨 '에코드림' 주거환경개선 사업

포스코이앤씨는 2013년부터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소방청과 함께 전국 현장 인근 293가구의 노후 주택을 개보수했으며, 골목 소화기 60곳, 기초 소방시설을 2,809가구에 지원 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화재예방과 에너지 절감형 주거환경개선을 합쳐 '에코드림' 주거환경개선 활동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2023년에는 서울과 부산, 경기, 세종, 대구 지역 8개 건설 현장 인근에서 해당 관할 소방서 직원들과 함께 화재에 취약한 31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보수 활동을 실시하고, 약 400가구에 화재 예방 및 생활안전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Q. 포스코1%나눔재단과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부산 동래구의 우리 집은 오래되고 낡은 집입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제일 힘들 때가 바로 겨울이었습니다. 외풍이 너무 심해서 보일러를 세게 틀어도 겨울이면 늘 추위로 고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2022년에 포스코1%나눔재단에서 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 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2022년 10월에 약 2주 동안 공사를 진행했는데, 공사 전에 포스코이앤씨와 한국해비타트에서 담당자들이 방문해 집을 구석구석 둘러보고 불편한 곳이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 등에 대해 물어보고 세심하게 체크했습니다.

66 불편해도 엄두도 못내던 것들을 척척 고쳐주니 정말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따뜻하게 지냅니다. 99

#### Q. '에코드림'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주택의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나요?

나는 불편해도 엄두도 못 내던 부분들도 전문가들이 와서 척척 고쳐주니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어요. 그렇게 보일러 교체부터 창문을 비롯해 옥상에 방수페인트, 도색, 욕실 공사, LED 등까지 설치를 해서 집이 한결 환하고 화사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 Q. 주택 개선 후 달라진 점, 좋아진 점 등은 무엇인가요?

기대 반 설렘 반으로 고대하던 공사를 마친 후에는 우리 집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옷풍이 심했던 집안에는 찬바람이 조금도 들어오지 않고, 주방 창문도 바꿔주셔서 음식할 때도 쾌적하고 좋아요. 집안에 찬 기운이 들어오지 않으니 전체적으로 집이 안온하고, 보일러를 예전보다 약하게 틀어도 온기가 가득해 하루 종일 따뜻하게 지내고 있어요. 포스코1%나눔재단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십니다.



설정자 할머니



# 기부자 주도 나눔

## 기부자 주도형 지역사회 나눔 사업

포스코1%나눔재단은 기부자가 직접 지역사회에서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부자인 임직원들이 기부처를 직접 선택하고 기부하는 '1%마리채', 기부자 참여형 나눔 사업인 'Change My Town' 등을 통해 보다 더 주체적인 나눔의 선도자가 되어 갑니다.

1%마리채

Change My T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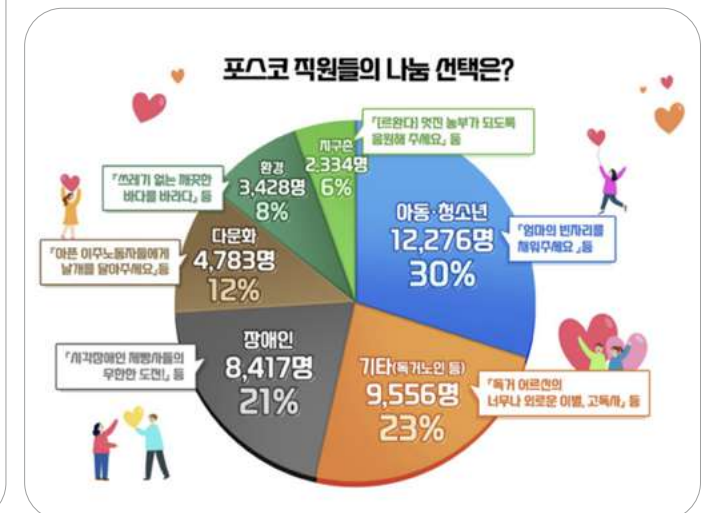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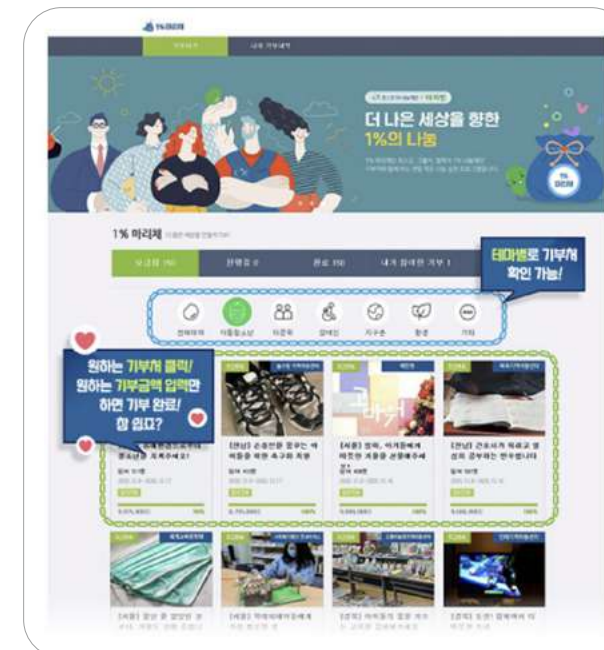
# 1%마리채(My Little Charity) 기부자가 직접 기부처를 추천하고 기부합니다

## 온라인 기부로 더 따뜻한 나눔 확산

'1%마리채'는 '마이 리틀 채리티(My Little Charity)'의 약자로, 포스코1%나눔재단 기부자가 직접 기부처를 추천하고, 원하는 기부처에 기부하는 포스코그룹 고유의 연말 작은 나눔 프로그램입니다. 2018년과 2019년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작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개별적인 기부 방식으로 실시한 '연말 작은 나눔'으로 시작하였습니다. '1%마리채'는 '함께 참여하는' 의미를 더하고, 임직원들이 직접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 소액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네이버 해피빈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기부'로 진행되면서 더 따뜻한 나눔 프로그램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기부자가 직접 기부처를 추천하고 기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1%마리채'에 꼭 참여하고자 포스코1%나눔재단에 가입했다는 신규 가입자들이 있을 정도로 임직원들의 관심과 참여율이 높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곳곳에 포스코그룹 직원들이 직접 나서 프로그램 참여자를 격려해 주기도 합니다. 이에 참여자들은 기부에 참여한 33,000여 명의 임직원들이 보여주는 뜨거운 관심과 응원에 함께 만드는 나눔의 힘을 확인하고 든든함을 느낍니다.

협력기관: 네이버 해피빈





2020~2022년 운영 성과

총 **25.7**억 원 기부

총 **83,852**명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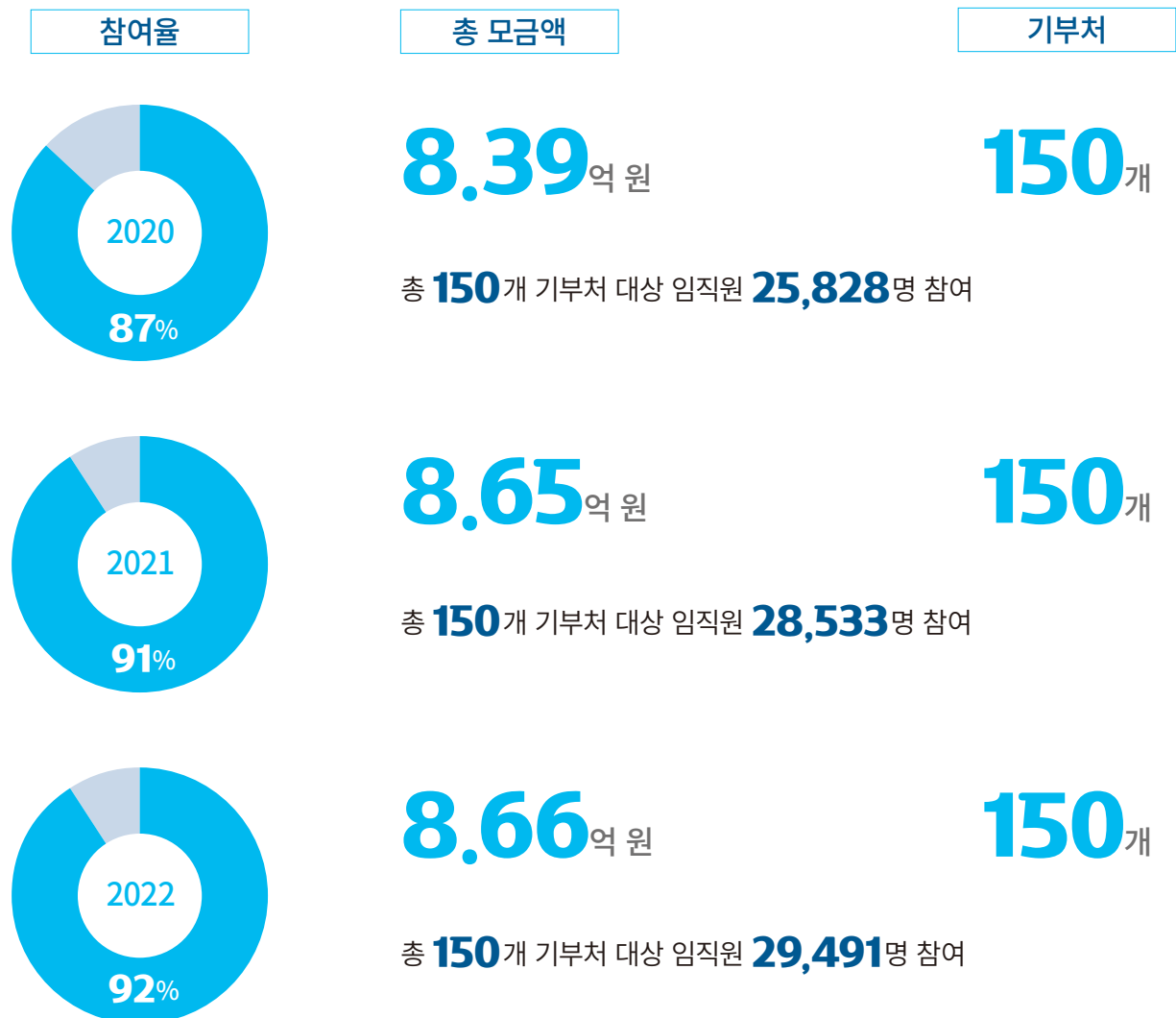
총 **450**개 기부처

기부자가 직접 기부처 발굴

기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희망 분야별 기부를 통해 모금액 달성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반영하여 포스코1%나눔재단은 연중 기부처 발굴로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다양한 기관을 발굴하고, 직원 선호도를 고려하되 각 분야별 균형적인 구성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눔도 기부도 기부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1%마리채'는 앞으로도 연말마다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채색해 나갈 것입니다.

연도별 운영 성과



1%마리채 참여자 인터뷰

“'1%마리채'는 아이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주었습니다.”



Q. '1%마리채' 사업이 기관에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고 있나요?

강동꿈마을은 영유아부터 초중고 아동까지 50여 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2019년부터 '1%마리채' 사업에 참여했으며, 시설보수기금(2019년), 아동숙소내 에어컨 등 시설개선(2021년), 신규관련결 비가림 차양막설치(2022년) 등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1%마리채' 사업에는 저희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신청하면, 적합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안전 및 환경 개선 사업에도 지원을 해주셔서 아동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성장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은미 강동꿈마을 원장

“'1%마리채' 밀키트는 어르신도 요리에 눈뜨게 만들었습니다.”



Q. '1%마리채'를 통해 진행하신 사업과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1%마리채' 사업은 그동안 포스코1%나눔재단의 지원으로 포스코그룹사들과 함께 논의해오던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022년 말에는 '우리가족 버킷리스트\_특별한 제주 나들이' 모금활동을 진행하였고, 올해 5월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3가정(총 13명)이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1%마리채 지원은 우리 복지관의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갈수록 후원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줄어들지만,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가는 요즘, '1%마리채' 지원이 꺼져가던 희망을 되살려 주는 것 같습니다.

이형 열린가람 학산중합사회복지관 관장

“나눔은 씨앗입니다. 희망의 싹을 키우고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Q. '1%마리채' 사업을 통해 어떤 지원을 받으셨나요?

2020~2022년 '1%마리채' 사업 기부처로 선정되면서 총 5개의 해피빈 모금함을 개설하였는데, '유미 씨에게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주세요, 목련 씨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해 주세요, 안전한 오늘을 선물해 주세요, 편안한 공간에서 쉬고 싶어요, 엄마, 나도 맛있는 밥 먹고 싶어요' 등이었습니다. 포스코그룹 임직원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개설된 5개의 모금함 전부 전액 모금액을 달성하였고, 후원금은 장애인 당사자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이영재 광양장애인복지관 관장



1%마리채 수행기관 인터뷰

66 ‘1%마리채’ 사업은  
선순환의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섭니다. 99



**Q. ‘1%마리채’ 사업이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매년 9월, 포스코1%나눔재단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기부처 추천을 받는 과정부터 그 해의 ‘1%마리채’ 사업이 시작됩니다. 임직원분들께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셔서 평균 180여 개의 단체 신청서가 접수되는데요. 해피빈에서는 사업의 내용과 단체 활동성 등을 확인하며 최종 기부처 150곳을 확정합니다. 10월에 지원 단체가 확정되며 150개 단체에서 해피빈 모금함을 개설하면, 11월부터 약 3주간 임직원들이 원하는 기부처를 검색, 사연과 기부금 사용계획을 확인하고 기부를 진행합니다.

또한 ‘1%마리채’ 사업은 포스코그룹 임직원의 기부금뿐 아니라 네티즌들도 함께 기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해피빈이 공익 플랫폼으로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임직원-공익단체-네티즌을 연결하는 선순환의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것입니다.

**Q. 모금된 ‘1%마리채’ 성금이 수혜자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1%마리채’의 지원 대상은 취약계층 어르신, 장애, 다문화, 아동 청소년을 비롯해 다양한 우리 사회 소외 이웃들입니다. 임직원들이 직접 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의료, 생계, 주거, 환경, 지구촌 등 필요로 하는 여러 영역들을 추천하고, 선정된 단체들을 통해 수혜 대상자에게 지원될 사업을 확인하고 기부금을 배분합니다. 이렇게 확정된 기부금은 12월 말 단체 모금함을 통해 배분되고 다음 해 1월에 단체로 사업비가 전달됩니다.

이후, 단체는 작성했던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차년도 8월 말까지 최종 후기를 작성하고 임직원들에게도 투명한 후기로 사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됐는지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Q. 해피빈 실무자로서 ‘1%마리채’ 사업에 대해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2021년부터 ‘1%마리채’ 사업에 PM으로 참여하면서 재작년과 작년에 기획·운영하는 업무에 참여했습니다. 사업이 시작되는 9월부터 마무리되는 12월까지 포스코1%나눔재단 담당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다 보니 전우애 또는 동지애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늘 함께 고민하며 지원해 주시는 재단 담당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올해 사업도 잘 부탁드립니다, 해피빈이 사업 파트너로서 오래오래 포스코1%나눔재단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눔은 ‘일상’이다.

모두에게 ‘나눔’이 ‘일상’이 되는 기부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익 플랫폼 해피빈의 존재 목적입니다.

**전하예** 네이버 해피빈재단 CSR제휴팀 매니저

# Change My Town

## 기부자가 기부사업의 제안부터 실행까지 주도합니다

### 기부자 주도형 나눔 참여의 場

포스코1%나눔재단은 지난 2019년부터 기부자 주도형 참여 활동인 ‘Change My Town’을 펼쳐 오고 있습니다. ‘Change My Town’은 기부자가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제안하면 심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을 직접 실행하는 기부자 참여형 나눔 사업입니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기부자가 제안한 사업의 지원금을 후원하여 단순한 기부를 넘어 능동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기부자가 보람과 기쁨을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재난재해 지원과 지역사회 개선

그동안 ‘Change My Town’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코로나19 관련 어려움과 포항, 광양 집중호우 피해 등을 복구한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주민들을 위해 복구활동 및 생필품 키트를 제공하였으며, 지역사회 재난에도 대응하였습니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문제 개선과 피해 복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사회와 더불어 상생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협력기관: 기아대책**

2019~2023년 지원 현황

총 **377** 건

2019년 시즌 1~4 총 **49** 건

- 시즌 1 우리 동네: 동네 사각지대의 환경 개선(6건)
- 시즌 2 나의 이웃: 지역 취약계층 이웃에게 시원한 여름나기 선물(21건)
- 시즌 3 책 읽는 우리마을: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책 선물(17건)
- 시즌 4 다함께 태풍 타파: 태풍으로 훼손된 이웃의 보금자리 마련 지원(5건)

2020년 시즌 1~2 총 **70** 건

- 시즌 1 Cheer Up My Town: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사회 활성화 지원(58건)
- 시즌 2 다함께 수해 극복: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변 이웃 지원(12건)

2021년 시즌 1~2 총 **49** 건

- 시즌 1 지역사회 지원활동: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사회 활성화 지원(27건)
- 시즌 2 수해복구 지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변 이웃 지원(22건)

2022년 시즌 1~2 총 **90** 건

- 시즌 1 산불피해 복구: 울진, 강릉일대 대형 산불피해 복구 지원(11건)
- 시즌 2 글로벌모범시민워크 연계: 지역사회 환경 개선(79건)

2023년 시즌 1~2 총 **119** 건 내외

- 시즌 1 글로벌모범시민워크 연계: 지역사회 환경 개선(99건)
- 시즌 2 재단 주요 사업분야 연계: 미래세대, 장애인, 다문화 분야 취약계층 지원(20건 내외)





## 기부자 인터뷰

‘Change My Town’ 참여

### 66 ‘Change My Town’은 주민숙원사업 해결사입니다. 99

#### Q. ‘Change My Town’에 참여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로 주민수가 점점 줄어드는 석병2리와 25년째 자매결연을 하고 고향처럼 여기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예산과 행정력 여건 부족, 주민들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 때문에 2021년에 처음 ‘Change My Town’ 참여하게 됐습니다.

#### Q. 진행하신 ‘Change My Town’ 활동 중 가장 인상적인 사업을 소개해주세요.

석병2리에서는 갓길로 걸어가다가 발을 헛디디거나, 지나가는 차를 피하기 위해 길 가장자리로 가다가 7~8미터 높이의 언덕 밑으로 주민 2~3명이 굴러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대로변을 다닐 때 안전하도록 안전난간을 튼튼하게 설치하고 갓길도 콘크리트 포장으로 넓히면서 간이의자를 설치했으며, 야간 통행 시 난간이 눈에 잘 띄도록 태양광등을 설치했습니다. 이처럼 마을 곳곳에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를 지켜드릴 수 있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 Q. ‘Change My Town’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Change My Town’을 진행하며 많은 이들의 마음도 더해져 더욱 감사했습니다. 굿은 날씨와 대체휴무 연휴에도 가족 단위로 참여해 난간 도색작업을 하고, 일손이 모자랄까 봐 동참해 준 타부서 임직원들은 비를 맞으면서도 대나무를 낮으로 베느라 비옷이 다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도로변 안전난간 설치작업 물량이 증가돼 모자라는 자재를 추가 구매해야 하는데 선뜻 포터차량을 빌려주신 마을 주민, 난간 설치작업에 수고 많으며 집에 있던 음료수와 고무마 등을 새참으로 갖다주며 응원해 주신 할머니와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더해져 힘들었던 사업을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 Q. ‘Change My Town’ 사업은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나요?

‘Change My Town’ 사업 참여는 ‘事雖小 不作不成’(사수소 부작불성:일이 비록 작더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의 의미를 되새긴 계기가 됐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고 원하는 부분을 맞춤형으로 해결해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과 기여 가치도 더 큼니다. ‘Change My Town’은 진정한 맞춤형 포스코1%나눔재단 사업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강성태** 포스코 과장(포항 FINEX부 근무, 사진, 붓글씨 재능봉사단 단장)

### 나눔은 ‘햇살’이다.

나눔은 사회의 구석지고 소외된 곳에 햇살 같은 따스함과 포근함으로 골고루 스며들어 세상을 환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줍니다.

### 66 봉사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기업시민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99

#### Q. ‘Change My Town’에 참여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광양제철소 도배 재능봉사단 단장을 맡으면서 배려계층의 수혜가정에 하나라도 더 환경개선을 해 드리고자 하였으나 적은 예산으로 는 엄두를 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전문 기술이 필요할 때는 비용 부담과 작업 소요 시간이 길어져 봉사활동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Change My Town’에서 비용 부담을 덜게 해주는 지원책이 있어서 전문 업체를 활용할 수 있었고, 함께 작업하면서 리모델링 전문 기술을 배울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좋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매년 ‘Change My Town’에 참여 하게 되었고, 최다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 Q. ‘Change My Town’에 다수 참여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참여하신 활동을 소개해주세요.

지금까지 독거노인 새로운 보금자리,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봉강마을 가정에 허물어진 벽면 보강작업, 황방마을 어르신들 쉼터(경로당)에 선반 설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도시락 배달, 오성꿈나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등 다수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3년 전 섬진강 제방 범람으로 가옥이 침수된 어르신께서 삶의 의욕을 잃고 시름하셨다가 ‘Change My Town’의 도움으로 다시 힘을 내시는 모습을 보며 보람과 진한 감동을 느꼈었습니다.

#### Q. 참여하신 ‘Change My Town’ 활동 중 가장 인상적인 사업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나눔이 만드는 기적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월세로 살던 집을 비워 달라는 주민의 요구에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왔게 된 노부부의 사정을 듣고 수소문 끝에 낡은 시골 빈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만의 힘으로는 부족해서 지역 내 여러 봉사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흔쾌히 지붕 보수, 화장실 실내 설치, 보일러 설치, 전기배선 설치, 도배·장판 방충망 설치, 싱크대 설치, 장롱과 이불 제공, 주방 집기류와 청소, 페인팅 작업과 수도배관 연결 작업 등등 공사마다 각각 하나씩 맡아 해결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빠른 시일 내에 집 한 채가 만들어지고 노부부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드렸던 것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 Q. ‘Change My Town’ 참여는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나요?

1995년부터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나치게 낙후된 곳에는 자금이 없어서 못 해 드릴 때 마음이 불편하였지만, 이제는 큰 규모의 봉사도 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Change My Town’ 덕분에 포스코인으로서 기업시민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최광석** 포스코 과장(광양 제철부 원료공장 근무, 도배 재능봉사단 단장)

### 나눔은 ‘예술’이다.

내가 가진 재능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고 받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행복을 주는 예술가가 된 느낌입니다.





# 100%의 희망

더 나은 세상으로 향하다

세상을 바꾸는 발걸음, 100%의 희망

힘들게 가꾼 숲이 더 울창하고 넓게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지키고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처음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나눔, 작은 마음이 모여 더 큰 사랑과 더 큰 희망으로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모두 함께 다시 또 나아갑니다.



# 국내 대표 임직원 참여 재단

## 포스코1%나눔재단은 '나눔'으로 성장합니다



### 임직원들의 참여와 기부로 나눔의 가치 실천

2013년 11월 12일에 설립된 포스코1%나눔재단은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기부로 지역사회에 다양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비영리 공익 법인입니다. 포스코그룹 임직원 97%와 협력사 임직원까지 약 33,000여 명이 매월 급여의 1%를 기부하고, 그와 동일한 금액을 회사에서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제공하는 기부금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까지 누적금액 898억 원을 모금하여 국내 임직원 참여 재단 중 가장 큰 규모의 재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더 나은 세상을 위한 1%의 나눔

포스코1%나눔재단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1%의 나눔'을 모토로, 미래세대의 자립 지원,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성장, 장애인 맞춤형 편의성 증대와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 및 문화사업을 주요 사업영역으로 다양한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기부자의 주체적 나눔 참여로 희망의 손길을 전하다



### '소통'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

포스코1%나눔재단이 설립된 지 10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임직원들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기부에 참여하며 포스코1%나눔재단의 성장 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의 지속적인 참여 배경에는 '직원과의 소통'과 '투명성'을 핵심 요소로 꼽을 수 있습니다. 포스코1%나눔재단의 이사회는 포스코그룹 CEO를 비롯한 총 6명의 이사와 회계법인 대표로 구성되어 재단의 방향성, 사업, 예산 등 운영에 관한 결정을 하며, 기금운영위원회는 포스코 및 그룹사, 협력사로 구성된 10명의 위원들이 포스코1%나눔재단의 사업 평가와 성과 공유 및 직원과 그룹사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약 110여 명의 기부 참여 직원들로 구성된 사업선정위원회는 수혜자 선정부터 재단 홍보까지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아이디어와 재단 옴부즈맨 및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합니다. 나아가, 기부자들이 사업 운영에 직접 관여하기도 하는데 '1%마리채'와 'Change My Town'은 임직원이 직접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함으로써 기부자와 공감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포스코1%나눔재단을 세계가 주목합니다



### 국내 대표 임직원 참여 재단으로 인정

포스코1%나눔재단은 그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대통령 표창(2013)을 비롯해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2016), CSR 필름 페스티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장애인시설 리모델링 지원, 2020), 가정의달 기념 가족정책유공자 포상 '국무총리 표창'(2022)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눔과 기부 활동을 인정받으며 최고의 임직원 참여 재단으로서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2023년 4월 포스코는 아시아 기업 최초로 보스턴칼리지 'BCCCC 혁신상'을 수상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기업 200여 개의 사회적 책임 담당부서 직원들이 모이는 보스턴 대학 기업시민센터(BCCCC-Boston College Center for Corporate Citizenship)가 선정하는 '소셜임팩트 체인지메이커, 변혁적 파트너십, 환경 혁신, 혁신의 확장' 부문 중에서 환경 혁신 부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글로벌 기업시민 콘퍼런스에서 K-기업시민 모범사례 발표

나아가 이어서 열린 글로벌 기업시민 콘퍼런스(ICC)에서는 'K-기업시민' 모범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조직 내 기업시민부서 영향력 증대방안(Grow Your Impact: Expand Your Team)'을 주제로 열린 패널 토론에서 최영 포스코 기업시민실장은 "올해 재단 창립 1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최고의 임직원 주도 공익 법인인 포스코1%나눔재단은 수혜자 선정과 프로그램 모니터링, 재단 홍보까지 기부 직원으로 구성된 사업선정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다"라며 "재단 대표사업 중 하나인 '1%마리채(My little Charity)'에서도 임직원들이 도움을 주고 싶은 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하게 해 구성원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의욕을 높였다"라고 포스코1%나눔재단의 운영 노하우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소개해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 BCCCC 센터장 인터뷰

**Q. BCCCC 센터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BCCCC(Boston College Center for Corporate Citizenship)는 ESG 성과 및 공시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증진을 위한 기업 멤버십 조직입니다.

**Q. 포스코1%나눔재단의 임직원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방식이 기부문화 확산에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포스코1%나눔재단은 인류애를 의미하는 기부선양문화 확산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활동은 기업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회사와 지역사회 내 직원들의 참여를 심화시킵니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영향은 다른 기업과 개인들에게도 영감을 주어 더 나은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적 책임 문화를 확산시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사회적 이슈와 사회적 포용에 대한 해결책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기업이 나아가야 할 가치 창출 실천에 대해 고견을 말씀해주세요.**

기업은 기업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환경 보호 문제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공정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인종, 성별, 국적, 장애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와 경제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포스코1%나눔재단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나눔활동을 펼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기업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의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Q. 설립 10주년을 맞은 포스코1%나눔재단에 대한 조언과 응원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단은 자선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비영리단체, 정부기관, 기업 및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지속가능한 자선사업을 개발해야 합니다. 포스코1%나눔재단의 노력과 열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변화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우리는 포스코1%나눔재단의 자선활동을 지지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있어 지속적인 성공을 기원합니다.

캐서린 스미스 BCCCC 센터장

66  
포스코1%나눔재단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99



### SK 사회적가치연구원 원장 인터뷰

**Q.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SK그룹이 설립하고 최태원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비영리 연구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Q. 포스코1%나눔재단에 대해 어떤 점을 인상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지난 5월 초, BCCCC에 참여하여 포스코1%나눔재단이 임직원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핵심 요소로 '직원과의 소통'과 '투명성'을 강조하셨던 점이 인상 깊습니다. 포스코1%나눔재단 내 사업선정위원회에 임직원 110여 명이 참여해 아이디어와 의견을 나누고, 재단은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지향하는 기업시민이라는 이니셔티브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성원을 기업 시민 실현의 주제로 보고 Core Actor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지속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Q.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포스코1%나눔재단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나눔활동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사회적가치연구원이 생각하는 사회문제 해결 방법은 측정과 인센티브입니다. 여기서 측정에 좀 더 포커스를 둔다면, 포스코1%나눔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나눔활동의 임팩트를 측정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임팩트는 수혜자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주요 이해관계자(수혜자)들이 겪은 삶의 변화를 정의하고, 측정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수혜자들이 겪은 변화를 수치, 화폐적으로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부금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고 더 효과적인 방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혜자를 도와야겠다고 수단을 재설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목표로 하는 수혜 집단이 어디인지 재조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측정 혹은 추정 결과들을 구성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면, 구성원들이 더 보람을 가지고 1% 기부에 적극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Q. 포스코1%나눔재단이 설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진실성, 일관성, 구체성입니다. 지금까지 포스코1%나눔재단은 몸소 이 세 가지를 잘 실천해 오셨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일관성 있게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포스코1%나눔재단은 기부의 방식이 아주 심플합니다. 심플하면 오래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간결한 방법으로 하되 사회에는 더 풍성한 임팩트를 창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시작도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이지만 10년을 꾸준히 하는 것은 더욱 하기 힘든 과정이라 그 노고와 노력, 또 구체적인 실천에 감사드립니다.

나석권 SK 사회적가치연구원 원장

66  
사회에 더 풍성한  
임팩트 창출을  
기대합니다.  
99





## 현대차정몽구재단 사무총장 인터뷰

### Q. 현대차정몽구재단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현대차정몽구재단은 '사회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 재단', '미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리더를 육성하는 재단',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보듬는 사회공헌 재단'을 목표로 합니다. 미래세대와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비전 실현을 위해 인재(현대차 정몽구 스칼라십), 공간(온드림 소사이어티 명동), 지식(그린 소사이어티)의 3대 플랫폼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 Q. 포스코1%나눔재단에 대해 인상적으로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만이 아니라 임직원 또한 함께 나누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포스코는 임직원들도 사회문제 해결과 더 나은 사회 구현을 위해 다양한 나눔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1%나눔재단은 전 직원 97%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부금에 회사가 매칭 그랜트로 Scale-up하여 더 큰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스코의 숭고한 사회참여 노력은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Q. 사회 문제를 창의적, 혁신적으로 해결 및 기여하는 측면에서 임직원이 직접 기부처를 제안하는 포스코1%나눔재단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회문제를 창의적,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임직원이 직접 기부처를 제안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임직원이 제안하는 기부 형태가 창의적이거나 혁신적이지는 않더라도 인간적이고 따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저는 포스코1%나눔재단의 큰 헤리티지라고 생각합니다.

### Q. 사회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기업이 나아가야 할 사회적 가치 실천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자원은 기업에게서 창출됩니다. 애플과 빌게이츠 재단처럼 막대한 자원과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거대 기업과 기업인은 사회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ESG 경영이나 CSR 경영 등 의무적인 사회적 책임의 한계를 넘어 우리 기업 존재의 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어떤 기업이 미래사회에도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실천해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최재호 현대차정몽구재단 사무총장

### Q. 포스코1%나눔재단이 설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포스코1%나눔재단이 걸어가는 길은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길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포스코1%나눔재단의 전략적인 사회공헌 방식을 벤치마킹할 것입니다. K-CSR의 대표 주자로서 앞으로 더욱 새로운 도전과 담대한 도전을 이어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66 포스코1%나눔재단이 걸어가는 길은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길입니다. 99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장 인터뷰

66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결정입니다. 99

### Q. 여성가족부에서는 포스코1%나눔재단과 MOU를 체결하고 함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진 하셨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 지원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1년 5월 포스코1%나눔재단과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다문화가족 민관 협력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속적으로 협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Q.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내용과 진행 과정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주 사업 내용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검정고시반, 컴퓨터 활용능력 교육,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진로·취업 컨설팅과 장학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북, 인천, 전남 등 포스코 및 그룹사 사업장 소재지역 내 53개소 가족센터를 대상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 지원사업과 대상지역을 선정했습니다. 한편, 사업이 진행되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수요도 있었지만, 사업의 특성 및 예산 상 모두 수용할 수 없는 한계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 Q. 지원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들에게 긍정적인 도움이 되고, 그로 인한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은 검정고시 지원과 컴퓨터 활용 교육 지원을 통해 기초학습 능력 및 정보기술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였습니다. 특히 검정고시 합격을 통해 가족센터 다문화 이해 강사로 취업한 사례, 컴퓨터 활용 교육을 통해 컴퓨터 자격증 취득 후 스마트스토어를 제작하여 농산물 판매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한 우수사례들이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는 주체적으로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진로상담을 통해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고 단편영화를 제작하며 꿈을 위해 노력하는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다문화 우수 대학생 중 선발된 장학생이 다문화 청소년 멘토로 활동하며 학업 의욕 고취와 더 나아가 멘토 역할을 통해 리더십과 자신감을 높이고 진로와 미래의 목표를 설계할 수 있게 된 우수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 Q. 포스코1%나눔재단이 설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응원 말씀 부탁드립니다.

포스코1%나눔재단의 설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포스코1%나눔재단은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스코1%나눔재단이 나눔의 가치를 사회에 더욱 확산하여 대한민국의 대표 재단으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송지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과장





# 포스코1%나눔재단의 10년, 다시 또 나아갈 10년

포스코1%나눔재단의 기부자인 각 그룹사의 임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포스코1%나눔재단이 걸어온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10년을 또 함께 나아갈 기부자들의 소중한 제언에 귀 기울여 봅니다.

**Q** 포스코1%나눔재단이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10주년을 맞이하는 소회부터 말씀해 주세요.

**성동훈** 2013년 당시 사회 기여에 관심이 많아 외부기관에도 작은 기부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포스코그룹에 속한 직원으로서 기부활동이 더 많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뿌듯한 마음으로 1%나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원희** 저는 2016년부터 참여했지만, 실질적으로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회사 내 포스코1%나눔재단 사업선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적극적인 활동자의 시각으로 나눔의 의미를 고민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인환** 저도 10년을 기부자로만 있다가 올해 처음 사업선정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스코1%나눔재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사업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절차를 보고 나니 포스코1%나눔재단 활동의 의미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재단과 차별화되고 그런 의미 있는 일을 임직원 97%가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김돈우** 2013년부터 참여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부자에서 실행자가 되고자 'Change My Town' 프로그램 기획을 몇 번 시도했는데 잘 안됐어요. 다음에는 꼭 서울사무소에서 'Change My Town' 사업을 진행해 꼭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이정인** 저는 처음 재단에 참여하면서 이 활동이 단순히 퍼주기나 아니라 기업으로서도 서로 공존하는 활동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의를 위해 일하는 조직에 몸담고 싶었는데, 포스코1%나눔재단에 참여하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근정** 제가 처음 입사했던 2016년에는 이미 포스코1%나눔재단이 많이 정착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나눔이 더 오래된 줄 알았어요. 10년 동안 묵묵히 꾸준하게 지원 사업을 하면서 수혜자들이 계속 쌓이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고, 기부자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 We Go Together! - 기부자 좌담회



포스코홀딩스 경영전략팀 박인환 차장

"나눔은 씨앗"



포스코인터내셔널 기업시민ESG그룹 이정인 대리

"나눔은 최고의 투자"



포스코DX 정보안전그룹 성동훈 그룹장

"나눔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  
나에게  
나눔이란?  
”



포스코 인사그룹 이근정 대리

"나눔은 행복"



포스코이앤씨 화공기술그룹 최원희 차장

"나눔은 또 하나의 성장"



포스코퓨처엠 해외마케팅1그룹 김돈우 차장

"나눔은 더하기"



**Q** 포스코1%나눔재단의 기부자로서 재단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재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부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조직 내에서 사회로의 환원과 관심의 크기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선정위원회도 다른 그룹사까지 확대된다면 저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근정

제가 할 수 있는 기여는 재단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주변의 기부 참여 직원들도 보다 재단 사업에 관심을 가지도록 홍보하고 독려하려고 합니다.



성동훈



최원희

건설교육 아카데미에 5년째 참여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랑 만났던 친구들이 저를 통해 도움을 받고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 정말 큼니다.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도 사업선정위원회를 비롯해 제가 할 수 있는 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기부자로서 저의 목표입니다.

**Q** 지나온 길 못지않게 나아갈 길도 중요합니다. 포스코1%나눔재단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언해 주신다면요?

포스코1%나눔재단은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의 빈 곳을 채워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재단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며, 기부자나 수혜자 모두가 선순환하며 성장하는 구조가 되길 바랍니다.



박인환

포스코1%나눔재단은 사회나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출산과 미혼모 문제에 관심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재단의 시그니처 사업을 개발하여 대표 사업으로 떠오르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우

앞으로의 10년은 친환경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령,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대응하고 구호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금을 상시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래세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도 더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인

**Q** 재단이 나아갈 길에 대해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1%나눔재단의 의미와 Next 10년을 향한 응원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성동훈** 포스코1%나눔재단이 10년 이상 뿌린 씨앗이 잘 자라나고, 1%의 작은 힘이 세상을 희망으로 바꾸는 수십, 수백 배의 힘이 된다는 것, 그 진심이 잘 전달되어 포스코1%나눔재단이 진정한 1%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원희** 포스코1%나눔재단의 키워드는 '공생'인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같이 공생하면서 개인도 기업도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포스코 1%나눔재단이 대표할 수 있는 만한 사업을 지속성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직원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인환** 앞으로도 포스코1%나눔재단이 개인과 회사, 더 나아가 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는 재단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김동우** 사회의 약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참여하는 저희들도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포스코1%나눔재단이 계속 세상과 소통하며 꾸준히 진정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대표적인 사업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이정인** 포스코1%나눔재단이 앞으로도 기부자와 수혜자, 나눔과 지역사회를 지속적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고, 서로가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근정** 포스코1%나눔재단이 지금까지 굉장히 잘해왔기 때문에 지금처럼만 꾸준히 계속 나아가 50년, 100년까지 꾸준히 사회에 기여하는 나눔 대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나눔의 연결

## 삼부자(三父子)로 계속되는 1% 나눔

기부하는 우리가 더 큰 행복과 감동을 느낍니다.



**나눔은 '사랑'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면 나눔이 있어야 하고, 나눔으로부터 사랑을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나눔은 '즐거움'이다.**  
나눔은 즐거운 일이고, 나눌 수 있다는 것도 행복합니다.

**나눔은 '건강'이다.**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방법이고, 나눔을 받는 분들도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포항제철소 압연설비2부 권두현 둘째 아들

포항제철소 제선부 권순태 아버지

포항제철소 제선부 권진만 첫째 아들

2013년에 포스코1%나눔재단을 알게 되면서 작은 1%지만 힘이 되고자 인연을 맺고, 아버지가도 추천했었습니다. “우리들의 1%가 만들어 가는 더 좋은 세상”이라는 말처럼, 비록 1%지만, 포스코그룹 전체가 모여 포스코1%나눔재단이 만들어지고, 미래 인재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부를 고민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제 행동해 보세요. 기부하는 자신이 더 행복하고,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기술을 배우고 싶었던 둘째 아들이 먼저 입사를 하고, 첫째 아들도 취업 준비를 하여 포스코로 입사하였습니다. 삼부자가 모이면 포스코 가족으로서 회사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즐겁지만, 나눔도 함께 하고 있다는 공통점으로 더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 때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동생과 아버지께도 권유해서 함께 했었습니다. 입사 후에는 봉사활동 시간이 줄어들어 안타깝던 차에 포스코1%나눔재단을 알게 되었고, 작은 1%지만 마음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 함께하는 부부의 즐거운 나눔

앞으로의 100년을 기대합니다.

**나눔은 '배려'이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남을 위한 배려, 스스로를 헤아리고 감사함을 가질 줄 아는 나를 위한 배려.



**나눔은 '더함'이다.**  
나눔으로써 우리 가정과 사회에 기쁨이 더해지니까요.

포스코퓨처엠 재무회계그룹 권영대 남편

포스코퓨처엠 노사협력그룹 이지현 아내

포스코1%나눔재단의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아내가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포스코1%나눔재단 기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실로 모자를 뜬다거나, 비누를 만드는 등의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눔 활동의 의미도 보람있지만, 나눔 활동을 계기로 둘이 무언가를 함께 한다는 자체도 즐거웠습니다. 특히 나눔할 비누를 만들면서, 서로 잘 하는 역할을 분담하면서 손발이 척척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참 재미있었습니다. 나눔의 기회를 가능한 많이 접하게 해준 포스코1%나눔재단에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100년을 기대합니다.



포스코1%나눔재단의 선도적 나눔활동은 좋은 영향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포스코1%나눔재단 시작 때부터 참여해 뿌듯함과 즐거움을 느끼고, 10년 동안 개인적인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기부를 해보니 거창하지 않아도 되더군요. 또 ‘내가 생각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어주는 것도 같습니다. 앞으로도 거창한 기부가 아니라 마음이 가는 대로 소소하지만 진심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입사 1주년을 기념한 나눔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행복이 되는 기쁨을 누립니다.

나눔은 '풍요'다.

나눔을 하면 넉넉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포항제철소 제선설비부 개인 특별기부 조장석 사원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술선수범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부터'라는 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행도 다른 사람의 선행을 기다리기보다는 나부터 실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입사 후, 신입사원 교육 때부터 포스코1%나눔재단의 활동을 소개받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입사 1주년이 되면서 뜻깊은 일을 하고 싶었는데 마침, 포스코1%나눔재단이 떠올라 1천만 원 기부를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고, 나눔이라는 기쁨도 함께 성취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기부를 실천하니 정말 기분이 좋고 행복한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1%마리채'를 하면서도 직원들과 함께 나눔을 실행하며 많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기부라는 행위가 어려웠던 분들도 '1%마리채'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쉽고 편하게 기부를 체험할 수 있고,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눔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1%마리채' 종료 후에 기부처의 나눔 후기를 읽을 때도 다음에도 계속 기부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1%나눔재단이 10주년을 맞이한 것에 매우 축하드립니다. 더 기쁜 일은 거기에 제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눔을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일을 함께 하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니까요. 여러분의 자그마한 손길이 한 사람의 행복이 되고 삶을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부자 모두에게 기분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나눔은 '시작'이다.

우리의 나눔이 누군가에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용원이 되고, 누군가는 그 기쁨과 감사함을 다시 나누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양제철소 생산기술부 박정수 형

저희는 형제뿐만 아니라 아버님도 포스코에 근무하셨던 포스코 삼부자입니다. 입사 후 어머니의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던 중 '희망날개' 사례들을 통해 힘을 얻고, 포스코1%나눔재단 사업에 함께 했습니다. 동생이 입사한 후에는 형제가 함께 하니 나눔도 봉사활동도 더 즐겁습니다. 기부자로서 10주년을 맞은 포스코1%나눔재단이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너무도 잘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재단도 기부자도 항상 함께하는 기업시민으로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나눔은 '더함'이다.

나눔을 통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행복을 더합니다. 포스코1%나눔재단을 통해 함께 나누고 행복해지는 활동을 할 수 있어 좋습니다.

광양제철소 생산기술부 박영수 동생

입사 전부터 형에게 포스코1%나눔재단 이야기를 듣고 고민 없이 참여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뿌듯합니다. 봉사, 나눔, 기부 활동은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사소하고 작은 나의 1%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100%가 될 수 있습니다.

포스코1%나눔재단의 10주년은 앞으로의 100주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작은 징검다리가 큰 대교가 되기 위해 모두의 1%를 모아서 100%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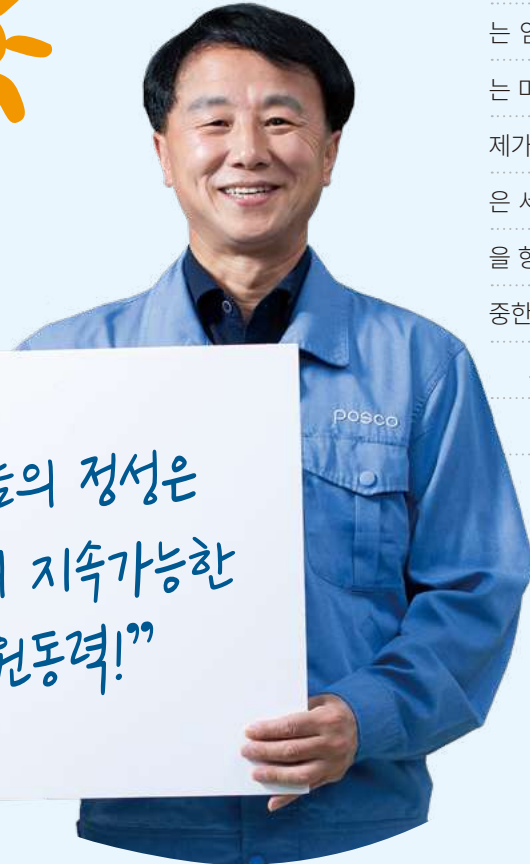


## 1%에 1%를 더한 나눔

1%가 100%가 될 때까지 10년을 넘어 100년을 응원합니다.



# 사회공헌 담당 기부자 희망 메시지



“1% 나눔의 정성은 포스코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 원동력!”

포스코그룹의 미래는 지역사회 속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려는 임직원들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1% 나눔의 가치는 미래의 포스코그룹의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제가 사회공헌 업무를 맡은 지도 10년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임직원 참여형 1% 나눔의 가치가 이제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가치 실현과 더불어 참여하는 모든 임직원의 가슴 속 가장 소중한 자긍심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포

스코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저 자신부터 기업시민으로서 역할 수행에 더더욱 충실할 것을 다짐합니다.

## 나눔은 ‘사명’이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픈 의무와 책임감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백 차장/광양제철소 행정집외그룹



“나눔의 현장에 씨앗이 되어 주세요.”

먼저 포스코1%나눔재단의 설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0년 동안 포스코1%나눔재단의 나눔 활동이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아름다운 사랑으로 전해질 때마다 후원자로서 진정으로 감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포스코1%나눔재단이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되고, 모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 나눔은 ‘사랑과 배려’이다.

나눔은 사랑과 배려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관심, 배려는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김선식 차장/포항제철소 대외협력그룹



“나눔의 전도사로 남아 주세요!”

2003년 11월 처음 포스코1%나눔재단이 창립되었던 시점부터 참여하여 왔는데 10년이라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까지 10년뿐 아니라 앞으로의 10년, 100년을 계속 이어갈 포스코1%나눔재단이 되기를 희망하며 지금처럼 언제나 나눔의 현장에서 씨앗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1% 나눔의 씨앗이 뿌려져 여러 곳에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다시 씨앗이 되어 또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눔의 실천이 끊임없이 순환되기를 바랍니다.

## 나눔은 ‘기본의 실천’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 밥을 먹듯이 나눔을 기본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일 때, 나도 잘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수영 차장/기업시민실 사회공헌그룹





# 나에게 포스코1%나눔재단이란?



### ‘일상의 리듬’이다.

2020년, 소중한 사람들의 연이은 죽음으로 무기력감에 허우적대했습니다. 이 시기에 만난 포스코1%나눔재단은 제가 평온한 일상의 리듬을 유지하는 기둥이 되어주었습니다. 누군가 제가 힘들고, 애쓰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알아봐 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김권석 KT수도권강북본부 컨설팅담당(두드림 사업 참여)



### ‘키다리 아저씨’이다.

1% 나눔 아트스쿨과 같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 아동센터에서 우수한 강사진과 넉넉한 재료들을 사용하며 4년 동안 꾸준히 진행하는 동안 아이들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치유됨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윤성애 포항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



### ‘가교’이다.

포스코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들이 조각조각 모여 시민들이 서로에게 관심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이형 포항 사회복지법인 열린가람 학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 ‘방탄유리’이다.

서울살이를 결정한 순간부터 눈앞에 화살처럼 날아오는 수많은 제약들을 다 막아주었던 존재. 더불어 그 방탄유리 너머로 서울에서의 삶을 보다 선명하게 상상해 볼 수 있게 만들어주었던 존재입니다.

정준혁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주거문화팀 매니저

### ‘갑자기 찾아온 행운’이다.

장애인들이 활동하는 공간의 열악한 상황을 보면서도 개선할 방법이 없어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막연하게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공모에 선정되고 빠르게 바뀌어 가는 공간을 보며 그 모든 순간이 갑자기 찾아온 행운으로 느껴졌었습니다.

양희경 나린센터 참여자 어머니

### ‘내 신념의 지원군’이다.

오래전부터 장애인 IT 개발자를 만드는 교육을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다양한 사회적, 정책적 문제들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1%나눔재단의 지원으로 어려움이 줄었고,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것 같습니다.

남기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구로디지털센터 교수

### ‘선한 영향력’이다.

‘장애인 디지털 아카데미 사업이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라는 걱정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잘 진행해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나눠 주려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강용 K은행 근무(장애인 디지털 아카데미 참여)







**‘빛’**이다.

그런 기회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문헌 속에 있는 그림을 보고 어느 세월에 내 인생에 한 번 만들 수가 있을까 마음속으로만 갖고 간 거죠. 나에게서는 그게 빛이 됐던 거죠.

박종균 장도장 장인(이음展 참여)



**‘친정 같은 곳’**이다.

포스코1%나눔재단에서 일했던 3~4년이 지금까지도 가장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고, 항상 궁금하고 언젠가 돌아가 함께 하고 싶은 곳입니다.

박유정 포스코 과장(우영을 사업 담당)



**‘100% 행복’**이다.

포스코 1% 나눔재단의 기부와 참여를 통해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는 노력이 계속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중영 포스코 과장(광양 화성부 근무, 광양 클린오션 봉사단)



**‘줍줍’**이다.

떨어진 걸 주워서 횡재했다는 느낌의 ‘줍고 줍는다’를 줄인 말인데, 비록 1%이지만 이를 줍줍하면 큰 힘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옥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등대’**이다.

다양해진 나눔의 Needs에 늘 창의적이고 다양한 나눔의 기법을 활용하여 누군가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는 ‘포스코1%나눔재단’을 통하여 나눔의 방향과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박영식 포렌 부장(글로벌 봉사단 5기)



**‘함께 성장한 파트너’**이다.

재단과 협력하고 사업을 수행하며 많은 것을 시도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진정성을 추구하는 재단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고, 기업시민 이념으로의 전환 과정에서도 파트너의 입장에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김유식 한국해비타트 해외사업팀 팀장



**‘희망의 나침반’**이다.

사회적 약자나 배려 계층의 다양한 니즈(Needs)와 문제를 포용, 폭넓은 지원으로 용기와 꿈을 심어주고, 밝고 건강한 미래를 향한 ‘희망의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강성태 포스코 과장(포항 FINEX부 근무, 사진, 붓글씨 재능봉사단 단장)



**‘대한민국 기업시민의 대표 아이콘’**이다.

포스코1%나눔재단이 베풀어준 다양한 활동들은 사람을 변화시켰고, 지역의 문화를 발전시켜주셨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시민의 대표 중 최고의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손경화 광양시가족센터 센터장





# Appendix

숫자로 보는 재단의 10년	150
나눔활동 지도	156
역대 수상 현황	160
기부자가 바라는 미래의 나눔이란?	162
희망을 담은 슬로건 공모전	164
따뜻한 마음이 모여 만든 1% 이야기	165
언론에 비친 재단 소식	166



# 숫자로 보는 재단의 10년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진심으로 포스코1%나눔재단이 부단히 이어 온 나눔 활동, 그 10년의 발걸음은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은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 누적 기부금 모금 현황

\*2023년 9월기준



**898**억 원

## 포스코그룹 기부인원

\*2023년 9월기준



**33,574**명

## 재단사업 누적 수혜인원

\*2023년 9월기준



**303,844**명

## 미래세대 지원

### 두드림

\*2018~2023년

참여인원 **207**명

### 1% 나눔 아트스쿨

\*2019~2023년

누적 참여아동 **5,608**명

누적 참여센터 **80**개

### 상상이상 사이언스

\*2019~2023년

참여학생 **15,454**명

참여학교 **61**개

### 드림스쿨

\*2021~2023년

참여학생 **613**명

참여멘토 **286**명

### 청소년 지구하다

\*2023년

참여학생 **1,500**명

참여학교 **20**개



### 학교 밖 아이들

\*2018~2024년



태국

직접지원 학생 **700**명

간접지원 학생 **4,480**명

참여 교사 **150**명



인도네시아

직접지원 학생 **700**명

간접지원 학생 **2,868**명

참여 교사 **30**명



베트남

베트남 봉따우 및 동탑 지역

취약계층 아동 **300**여명

참여교사 **100**여명(교육 진행 예정)

\*2024년까지 사업 진행 중



## 글로벌 봉사 및 나눔

### 임직원 글로벌 봉사단

\*2015~2018년

참여인원 **355**명

베트남 봉파우	<b>210</b> 명
태국 라용	<b>96</b> 명
인도네시아 찰레곤	<b>49</b> 명



### 재능봉사단

\*2018년 기준

봉사단 총 **25**개      활동인원 **2,120**명

2019년부터 회사비용 지출 체계로 전환되었으며, 2023년 현재 **111**개 재능봉사단 활동 중

## 기부자 참여 사업

### 1%마리채

\*2020~2022년

기부 총 **25.7**억 원

기부참여 **83,852**명

(2023년 사업 연말 진행)

### Change My Town

\*2019~2023년

총 **377**건



### 포항·광양제철소 및 그룹사 자체 사업

\*2014~2023년

누적 사업 **1,185**건

## 개발도상국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도자 양성

### 인도네시아 찰레곤 사회적기업 PT.KPSE SI

\*2015~2023년

훈련생 배출 **378**명      취업연계 **237**명

### 개발도상국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2014~2016년

참여국가 **6**개      참여인원 **127**명



## 문화예술 지원

### 세대를 잇는 작업 이음展

\*2015~2018년

참여 무형문화재 **7**명      관람객 **6**만여 명

### 우리의 영웅을 위한 작은 음악회(友·英·音)

\*2015~2018년

공연 총 **15**회      관람객 **5**천여 명

### 만남이 예술이 되다

\*2020~2023년

참여 예술인 **34**명      영상 제작 **74**편      누적 조회수 약 **2,300**만 회

\*2023년 기준



### 포스코 스틸 빌리지

#### 해 외

##### 에티오피아 자립마을 조성

3개



##### 베트남 스틸 빌리지

\*2014~2022년



##### 미얀마 스틸 브릿지

1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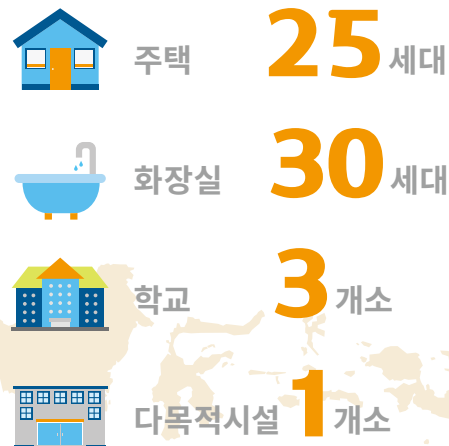


##### 태국 스틸 돔

5개소



##### 인도네시아 스틸 빌리지



#### 국 내

\*2013~2018년



### 다문화가족 지원

#### 친친무지개 프로젝트

\*2014~2020년

참여학생 총 742명



#### 결혼이주여성 자립역량 강화

\*2021~2023년

총 1,544명

####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2021~2023년

총 846명

### 장애인 지원

#### 국가유공자 첨단보조기구 지원

\*2020~2023년

참여인원 156명

#### 희망날개

\*2019~2023년

참여인원 781명

#### 희망공간

\*2019~2023년

86개소

#### 발달장애인 VR직업훈련센터

\*2022년

센터 구축 4개

#### 장애인 디지털 아카데미

\*2022~2023년

참여인원 50명

#### e스포츠센터

\*2022년

센터 구축 2개



# 나눔활동 지도

## 국내

포스코그룹의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 지역사회의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보다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나눔의 가치를 만들어 갑니다.

### 스틸하우스 복지시설

<b>인천시 동구</b>	영유아복지시설 동구랑 스틸랜드
<b>서울시 강북구</b>	청소년 단기보호쉼터 강북청소년Dream센터
<b>서울시 서대문구</b>	청년 셰어하우스 청년누리
<b>포항시 송도동</b>	학대피해 노인쉼터 해피스틸하우스
<b>포항시 청림동</b>	무료급식소 청림별관
<b>광양시 중동</b>	시청각 장애인 복지시설 해피스틸복지센터
<b>광양시 중동</b>	학대피해아동 단기보호쉼터

### 재난재해 긴급구호

**2014년**  
세월호 성금 출연

**2017년**  
· 강릉 산불 피해 이재민 긴급구호 기금 출연  
· 포항 지진 피해 복구 기금 출연

### 포항, 광양 지원 사업

1% 나눔 아트스쿨, 상상이상 사이언스, 드림스쿨, 청소년 지구하다, 희망공간, 희망날개,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 자녀 지원, Change My T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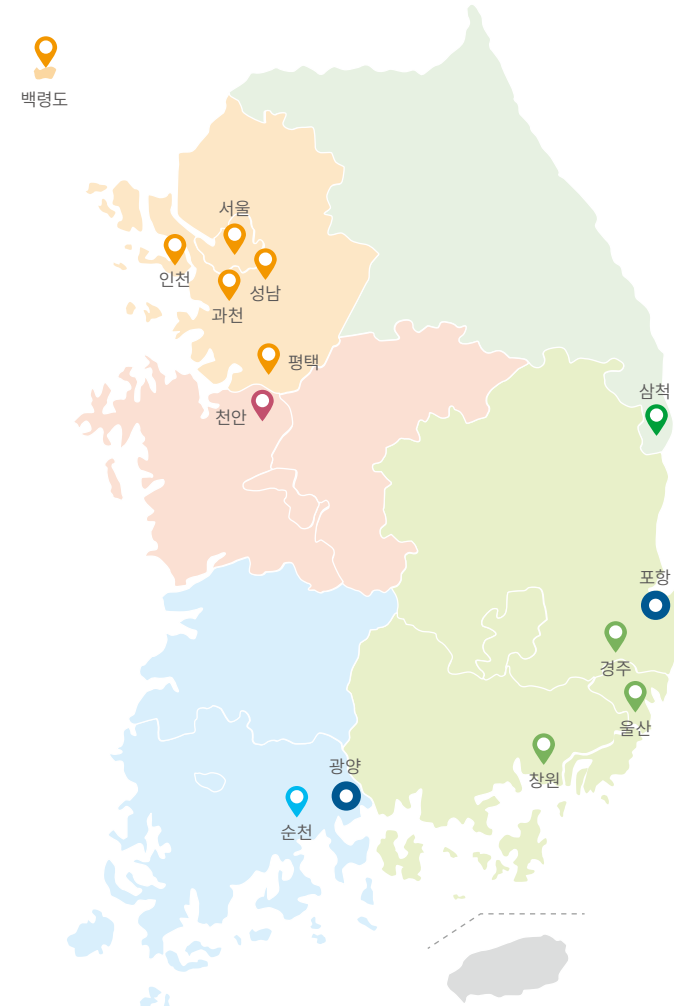
### 우리의 영웅을 위한 작은 음악회 공연지

<b>1회</b>	문래 철공단지
<b>2회</b>	고령 주물단지
<b>3회</b>	시흥 시화공단
<b>4회</b>	군산 국가산업단지
<b>5회</b>	제천 산업단지
<b>6회</b>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
<b>7회</b>	광주 첨단산단
<b>8회</b>	서울 디지털산단
<b>9회</b>	음성 원남산단
<b>10회</b>	부산 명지녹산산단
<b>11회</b>	대구 성서일반산단
<b>12회</b>	광양 백운아트홀
<b>13회</b>	인천 남동소래아트홀
<b>14회</b>	구미 산업단지공단
<b>15회</b>	익산 송리문화예술회관

### 전국 단위 지원 사업

친친무지개, 이음展, 두드림, 만남이 예술이 되다, 국가유공자 첨단 보조기구 지원, 1%마리채, 장애인 디지털 아카데미

## 포스코 그룹사 주요 공헌 활동



### 충청권

- 포스코인터내셔널 충북 지역 소외계층(다문화가족, 소년소녀 가장 등) 지원

### 천안

-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 천안 지역사회돕기(김장, 밥차, 장학지원, 재능봉사)
  - 다시그린미래이야기 그린모션재능봉사
- 포스코인터내셔널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장학지원

### 전라권

- 순천**
  - 포스코와이드 승주CC 산골마을 소방 지원

### 광양

- 포스코와이드 저소득·장애인가정 접수리
- SNNC 사랑채움 '미래세대' 지원사업
- 포스코 결혼이주여성 인형극단 '색동나무' 사업
- 포스코퓨처엠 희망충전 사랑나눔 푸드충전소
- 포스코플로우 미래세대 1인 1악기 교육 지원
- 포스코엠텍 도담도담 빌리지
- 포스코MC머티리얼즈 한부모가정 가족관계 프로그램
- 포스코휴먼스 With Dream 장학사업

### 서울·인천·경기권

- 서울**
  - 포스코홀딩스 페어 스타트를 위한 영어 교육 프로젝트
  - 엔투비 세대교류 및 정서교감 프로그램 '역삼패밀리'
  - 포스코기술투자 아동 성장 지원 '희망드림'
  - 포스코경영연구원 프로보노 봉사단 지원

### 인천

- 포스코인터내셔널
  - 인천지역 저소득가정아동 영어교육 지원 'Fun Fun한 영어교실'
  - 인천지역아동센터 영화제작 프로그램 지원
- 포스코이앤씨
  - 인천시 초등돌봄 음악교실
  - 지역아동센터 One&One
- 포스코A&C 희망의 집짓기 및 주거환경개선

### 성남

- 포스코DX
  - 저소득재가장애인 김장지원
  - 성남지역 장애인 이동보조기구 배터리 지원 '사랑의 배터리'
  -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해피빌딩하우스'
  - 코딩 꿈나무 양성교육

### 과천

- 포스코 서울대공원 삼림욕장 만들기

### 평택

- 포스코A&C 마을 희망 지킴이

### 백령도

- 포스코A&C 백령도 아동을 위한 영화상영 스크린 설치 지원

### 강원권

### 삼척

- 포스코이앤씨 삼척시 청소년 문화축제 '행복공감'

### 경상권

- 포스코인터내셔널 경북 지역 소외계층(다문화가족, 소년소녀 가장 등) 지원

### 경주

- 포스코 경주 온정마을 난방용 판넬·싱크대 교체

### 창원

- 포스코A&C 도시혁신클럽

### 울산

- 포스코와이드 저소득 및 장애인 세대 생계비, 장학금, 교복 지원
- 포스코휴먼스 3D 프린터로 제작한 전자악수 보급

### 포항

- 포스코엠텍 사랑의 집 고쳐주기
- 포스코DX 사랑의 김장 나누기
- 포스코 취약계층 어르신 비대면 스마트돌봄 서비스
- 포스코퓨처엠 생명의 빵 나눔
- 포스코인재창조원 아빠-자녀 소통캠프 '랑랑캠프'
- PNR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지원사업
- RIST 청년발달장애인 고용지원 사업
- 포스웰 꿈꾸는 아이들을 위한 Dream On 프로젝트
- 포스코스틸리온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 해외

## 아시아 15 개국

### 사우디아라비아

- 포스코이앤씨 장애아동 재활기구 및 도서 컨텐츠 지원

### 말레이시아

- POSCO MKPC Foundation 심장병 환자 지원 복지재단/ 심장병 환자 수술비 지원
- POSCO MKPC Pertubuhan Kebajikan Insan Istimewa Kuala Lumpur 장애인 복지시설/시설 운영비 부분 지원
- POSCO-MKPC Selangor Family Aid Association 부역 보관장, 의료용 침대 지원
- POSCO-MKPC Beautiful Gate Foundation For the Disabled 휠체어 지원
- POSCO-MKPC Grace Home Klang 생필품 지원

### 미얀마

- 재단 사무국 양곤 여와마을 스틸 브릿지 건설 및 마나웅섬 태양광 지지대 설치
- 재단 사무국 저개발국 지역사회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 포스코인터내셔널 얼굴 기형 어린이 무료 안면수술 지원
- 포스코인터내셔널 양곤 세종학당 한국문화 교육프로그램 지원
- 포스코이앤씨 사회공헌활동 통한 양국 교류협력 활성화

### 인도네시아

- 재단 사무국 쥘레곤 사회적기업 PT.KPSE Services Indonesia 설립
- 재단 사무국 저개발국 지역사회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 재단 사무국 쥘레곤 저소득 주택 건립
- 재단 사무국 청소년 지원/임직원 해외봉사활동
- 재단 사무국 롬복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구호 기금 출연
- POSCO IJPC SDN Sukamakmur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 우즈베키스탄

- 포스코인터내셔널 보건증진 지원, 실명예방 및 안(眼)보건 증진사업, 의료기관 지원
- 포스코인터내셔널 인재양성 지원, 미래세대 취업역량 강화

### 방글라데시

- 포스코인터내셔널 덩라이 지역 배려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 포스코이앤씨 의료지원활동
- 포스코이앤씨 건설교육 아카데미, 건설기능인력 양성

### 일본

- POSCO JAPAN PC 토요하시 와카쿠사육성원 시설 개보수
- POSCO JAPAN PC 이즈미 유아원 시설 개보수

### 튀르키예

- POSCO TNPC 빈곤가정 지원협회 부르사 지부 - 소외계층가정 생필품 지원

### 네팔

- 재단 사무국 지진피해 구호기금 출연

### 베트남

- 재단 사무국 봉따우성 땀땀현 땀호아 지역 포스코 빌리지 총 104채 건설
- 포스코퓨처엠 봉따우성 공립학교 및 빈곤층 무료급식 지원
- 포스코DX 무상급식 지원(밥퍼 & 빵퍼)
- POSCO Vietnam PC NHON TRACH BLIND ASSOCIATION - 실내 및 화장실 개보수, 생필품 지원
- POSCO Vietnam PC PHUOC THIEN KINDERGARTEN - 건물 개보수, 학용품 지원
- POSCO Vietnam PC DongNai College of High Technology - 학용품 및 학교 기자재 특히 IT 장비 지원

### 태국

- POSCO Thailand PC THE SCHOOL OF BORDER PATROL POLICE 교실 수리·보수, 텃밭 조성
- 재단 사무국 라용 스틸돔 건립
- 재단 사무국 저개발국 지역사회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 POSCO Thailand PC BANNHONGSONCHONG SCHOOL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 중국

- 재단 사무국 저개발국 지역사회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 POSCO CCPC 중경시자선재단, 청도시 청양구 자선회, 연태희망공정 - 장학금, 기부물품 전달
- POSCO CDPC 대련 장항도 경제구 양로원, 무한시한남구 농촌복지원 - 기부물품 전달 및 봉사활동
- POSCO CFPC 진촌 경로원 청소 및 환경미화
- POSCO CSPC 곤산시 자선 기금회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 POSCO CLPC 대동구 환경관리국 환경미화원 휴게소 조성

### 인도

- 재단 사무국 저개발국 지역사회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 POSCO ISDC Children's House 취약계층 복지기관 기관 설비 지원
- POSCO ISDC Nirankar Balgram 고아원 기관 설비 지원

### 라오스

- 포스코이앤씨 문화교류 사회공헌활동
- 포스코DX 구호물품 지원

### 필리핀

- 재단 사무국 태풍피해 긴급구호기금 출연
- 포스코이앤씨 청소년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류 지원

우리의 나눔이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희망이 되기를 꿈꾸며, 포스코그룹이 진출한 해외 지역사회의 이웃들에게도 더 나은 미래를 싹 틔울 희망의 씨앗을 나누었습니다.



## 유럽 2 개국

### 폴란드

- POSCO PWPC KRZYS Association 비영리자선단체 - 장애아동 재활장비, 시설 내 가구 지원
- POSCO PWPC Stowarzyszenie Krzys- Byś Kolorowo Żyć 재활장비 지원

### 우크라이나

- 포스코인터내셔널 우크라이나 방역물품 지원, 의료기기 지원
- 포스코인터내셔널 도서관 정보화 사업

## 아메리카 2 개국

### 멕시코

- POSCO MPPC Huejotzingo시 정부 산하 복지센터 - 도색, 옥상방수, 화장실 설치 등 환경 개선 작업
- POSCO MPPC Villa de Ninas A.C. - 교육기자재 지원
- 재단 사무국 멕시코 지진피해 구호 기금 출연

### 파나마

- 포스코이앤씨 문화교류/교육활동 지원

## 아프리카 1 개국

### 에티오피아

- 재단 사무국 지역사회 자립기반 조성 사업 - 한도데, 데베소, 아둘랄라 마을



# 역대 수상 현황



- 2013**
  - 10 •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대통령 표창
- 2014**
  - 11 • 따뜻한 동행 이사장 감사패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지원)
  - 12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예술나무 후원기업상)
- 2015**
  - 11 • 경상북도지사 감사패 (인류공동 번영, 빈곤퇴치 기여)
  - 12 •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감사장 (인도네시아 찰레곤 자립기반 강화)
  - 12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올해의 후원기업상)

- 2017**
  - 06 • 한국해비타트 이사장 감사패 (베트남 스틸 빌리지)
  - 12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예술나무 후원기업상)

- 2018**
  - 09 • 서대문구청장 감사패 (청년주택 건립)



- 2016**
  - 12 •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문화예술 지원 공로)
  - 12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올해의 예술나무상)
  - 12 • 한국문화재단 이사장 감사패 (전통문화 전승 보급 기여)

- 2019**
  - 09 • 대한민국 공간 문화대상 장관상 수상 (포항 무료급식소 청림별관 건립지원)
  - 09 • 광양시장 표창(학대피해아동 심터 조성)

- 2020**
  - 10 • 대한적십자사 회장 포장증 (인류복지증진 기여)
  - 11 • CSR 필름 페스티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장애인시설 리모델링 지원)



- 2021**
  - 11 • 국가보훈처장 감사패(국가유공자 지원)
  - 11 • CSR 필름 페스티벌 고용노동부 장관상 (국가유공자 사회참여 지원)

- 2022**
  - 05 • 가정의달 기념 가족정책유공자 포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 11 • 한국아동복지협회장 감사패(자립준비청년 지원)
  - 11 • 한국메세나대상 창의상(한국메세나협회 회장상) (포항·광양 지역아동 정서발달 기여)
  - 12 • CSR 필름 페스티벌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상생경제 기여)
  - 12 •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소방관 처우 개선)



- 2023**
  - 01 • 우당교육문화재단 이사장 감사패 (독립운동유공자 후손, 사회적 약자 지원)
  - 04 • 광양햇살학교 감사패 (장애학생 교육환경 조성)
  - 10 • 포항시장 감사패 (포항 e스포츠펀터 구축)
  - 11 •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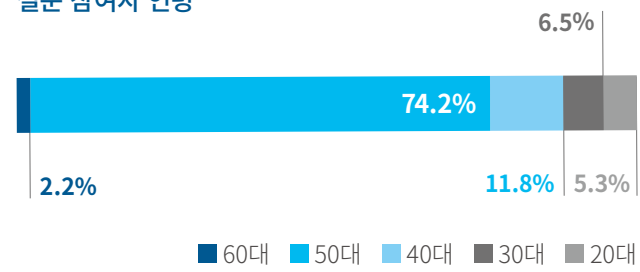
# 기부자가 바라는 미래의 나눔이란?

## 설문조사 개요

참여자 사업선정위원 **96**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모바일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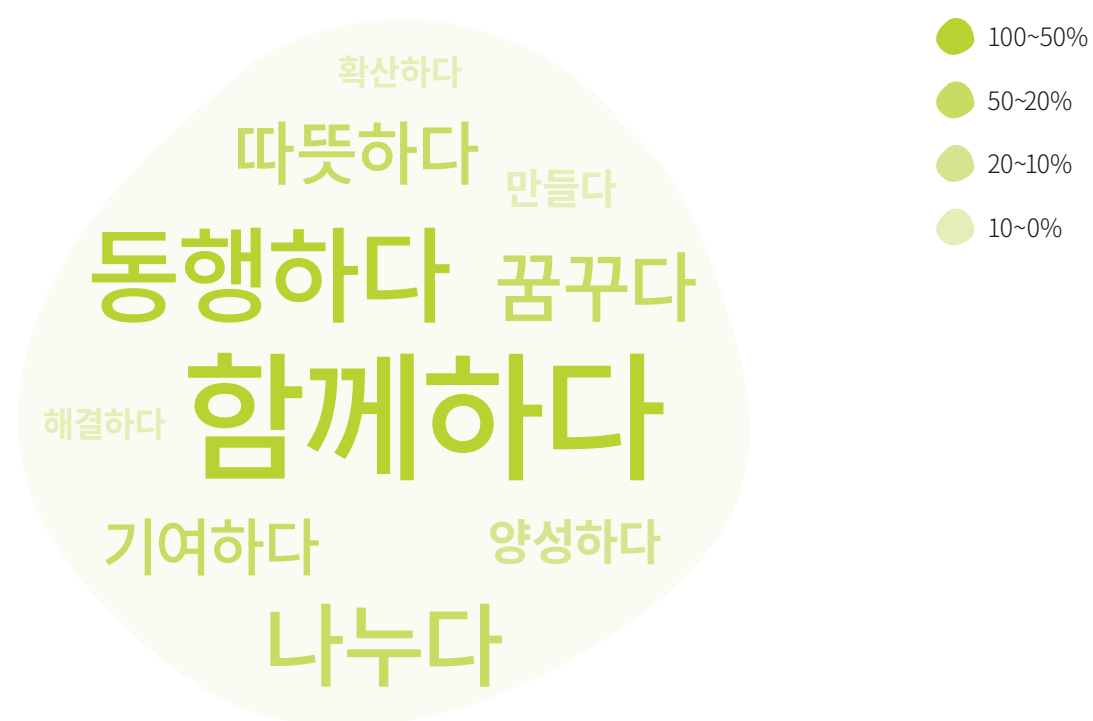
설문 참여자 연령



## 미래 방향성 핵심 키워드 빅데이터

사업선정위원들은 포스코1%나눔재단이 우리 사회와 함께하기에 희망이 가득찬 세상으로 변화하며 따뜻하고 행복한 더 좋은 세상이 된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포스코1%나눔재단이 '무엇을' 할 때 세상이 더 좋아질까요?



Q 이렇게 더 좋아진 세상은 '무엇'으로 가득찬 세상일까요?



Q 이렇게 더 좋아진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 희망을 담은 슬로건 공모전

포스코1%나눔재단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7월 3일부터 8월 16일까지 포스코그룹 및 협력사 기부자 대상으로 재단에 대한 격려와 응원, 희망을 담은 슬로건을 공모하였습니다. 총 1,057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심사를 통해 우수작 6건을 선정하였습니다.



# 따뜻한 마음이 모여 만든 1% 이야기

2023년 7월부터 포스코1%나눔재단 뉴스레터가 발간되고 있습니다. 재단 사업 참여자와 기부자가 함께 써 내려가는 희망 가득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 언론에 비친 재단 소식

매일경제 2013.08.09

## 포스코 임직원 급여 1% 기부... 나눔재단 설립

포스코(회장 정준양·사진) 임직원들이 급여를 1%씩 기부하는 나눔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포스코 나눔재단'(가칭)을 설립한다. 포스코는 지난 8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임직원들의 급여 1% 나눔 기부액에 회사가 매칭그랜트로 기금을 출연하고 기금 운영을 위한 나눔재단을 설립하기로 하는 안을 의결했다. 앞서 포스코의 임원 및 부장급 이상 임직원들은 2011년 10월부터 급여의 1%를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있다. 현재는 일반직원들까지도 매달 1만~8만원씩 자발적으로 1% 나눔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나눔재단 운영기금은 앞으로 5년 내 200억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포스코 측은 내다보고 있다. 정준양 회장은 "재단 설립을 통해 임직원과 회사가 힘을 합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역할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후략>

한국경제 2013.11.26

## [사회공헌 팔 걷은 기업] 포스코, 나눔재단 첫 사업...필리핀에 30만弗 지원

포스코는 지난 18일 초대형 태풍 하이옌으로 큰 피해를 본 필리핀에 구호성금 3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포스코1% 나눔재단'에서 모은 10만 달러를 포함해 총 30만 달러를 필리핀 현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이날 창립 총회를 연 이 재단의 첫 사업이다. 이 재단은 포스코 및 계열사 임직원들이 모은 기부금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됐다. 포스코와 37개 계열사 부장급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팀장급의 94%가 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포스코 측은 설명했다. 재단 이사장은 이사장인 정준양 포스코 회장을 비롯해 정무성 송실사이버대 부총장, 정진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부장, 김해성 지구촌 사랑나눔대표, 정선희 세스넷 상임이사, 김병필 포항외주파트너사협회장 등 6명으로 구성됐다. 모인 기부금은 노인보호 센터 '해피 스틸하우스' .....<후략>

뉴스웨이 2014.01.17

## 포스코1%나눔재단, 광양에 '해피 스틸 복지센터' 건립



포스코가 지난 2011년부터 임직원들의 '급여 1% 나눔 활동'을 전개해 조성된 기금 7억 원을 들여 전남 광양시 중동에 시 청각 장애우들을 위한 '해피 스틸 복지센터'를 건립하고 17일 준공행사를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성웅 광양시장, 문승표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이사장, 포스코 황은연 부사장, 시청각 장애인협회 회원들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90여 일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장애우들의 보금자리로 모습을 드러낸 해피 스틸 복지센터 건립을 축하했다. <후략>

연합뉴스 2014.05.07

## 이주배경청소년 위해 맞춤형 진로 지원 사업 펼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 센터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진로지원 사업을 6월부터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포스코1%나눔재단과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해체가정과 한부모 가정의 만 12~24세 이주배경청소년, 무연고 탈북 청소년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사업은 해체가정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착을 지원하고 자립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참가자로 선발되면 진로에 필요한 교육비, 재료비 등을 1인당 연간 최대 300만 원 범위에서 연계된 교육기관으로 지원해 준다. 이주배경청소년은 자신의 진로를 꾸준히 탐색하면서 자기성장보고서를 작성, 매월 제출해야 한다. <후략>

디지털타임스 2014.11.06

## 포스코1%나눔재단, 인니서 사회적기업 개소



포스코1%나눔재단은 지난 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쥘레곤에서 사회적기업인 KP SE(Social Enterprise)의 개소식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 KPSE는 포스코1%나눔재단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공동 기획해 설립한 사회적기업으로 전문경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크라카타우포스코가 설립을 지원했다. KPSE는 제철소 내 환경분야 외주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의 빈곤 청년실업자를 고용하고, 발생하는 수익은 지역사회에 재투자하게 된다. <후략>

문화일보 2015.04.30

## 철공 근로자 150명 초청 포스코, 찾아가는 음악회

포스코1%나눔재단이 평소 문화 예술을 접하기 힘든 제조업 현장 근로자들을 직접 찾아가 아름다운 선율을 선물하는 작은 음악회를 시작했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29일 '철공소 골목'으로 잘 알려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철공단지에서 위치한 문래예술공장에서 인근 철공 근로자 150여 명을 초청해 '우리의 영웅을 위한 작은 음악회'(사진) 첫 공연을 개최했다. 이날 공연에는 가야금 명인인 황병기 이화여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창작그룹 노니, 가야금 연주자 정민아, 팝클래식 가수 선우, 기타 그룹 피에스타 등이 출연했다. 이들은 동서양 음악이 함께 어우러진 크로스오버 공연으로 일상에 .....<후략>

이투데이 2015.11.30

## [소통과 나눔] 포스코,급여 1% 기부 '1%나눔재단' 탈북자 정착 도와

포스코그룹 임직원의 나눔 문화가 지역사회에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임직원 급여 1%기부로 시작된 포스코1% 나눔재단은 올 한해 국내 소외계층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폭넓은 사업을 펼쳐왔다. 지난 6월에는 학교와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지역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강북청소년드림센터를 준공했다. 앞으로도 지자체, 유명 건축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 건립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1월에는 광양지역 시청각장애인에게 점자 교육 및 정보화 교육 서비스, 수화 통역사와의 고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피스틸복지센터를 준공했다. <후략>

헤럴드경제 2015.12.18

## 저소득층 아이들 꿈·희망 응원...포스코1%나눔재단, 4번째 '스틸하우스' 첫삽



포스코1%나눔재단이 임직원의 십시일반(十匙一飯) 마음이 모인 기부금으로 영유아 복지시설의 설립에 활용한다. 포스코는 인천시 화수동에서 인천 동구와 공동으로 '화수동 스틸하우스 영유아복지시설 기공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17일 열린 행사에는 인천시 이홍수 동구청장을 비롯해 포스코 이영훈 재무투자본부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후략>

NSP 2016.03.06

## 포스코1%나눔재단, '친친 무지개' 우수사례 발표회 가져

포스코1%나눔재단은 포스코센터에서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친친 무지개'의 우수사례 발표회를 가졌다. '친친 무지개' 프로젝트는 지난 2014년 시작해 올해 3년째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포스코의 사회공헌 사업이다. '친친무지개'는 무지개처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의 친한 친구가 되어 꿈을 이루게 도와준다는 뜻이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여성가족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과 함께 매년 청소년 60명을 선발해 △검정고시 △예체능 △한국어 시험 △학업능력보충 등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관련된 맞춤형 교육과정과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발표회는 지난 1년간 포스코의 지원에 힘입어 성장한 청소년 33명과 이들의 .....<후략>

문화일보 2016.08.30

## 포스코1%나눔재단 55명, 베트남서 '집짓기' 봉사

포스코의 비영리 공익재단인 포스코1% 나눔재단(사진)이 최근 베트남 바리아-붕따우 성 락땐현에서 벌인 집짓기 봉사활동에 임직원이 대거 참여해 불멸더위 속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매달 포스코그룹 및 외주 파트너사 임직원 급여 1% 기부로 운영되는 재단으로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는 물론 다양한 영역에서 창의적인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후략>



세계일보 2016.09.27

## 포스코 1%나눔재단, 전통금속공예전 지원

포스코가 전통금속공예 지원을 시작한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다음달 12일까지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한국문화재단과 함께 금속공예전 '세대를 잇는 작업 이음展(전) 장도장(粧刀匠)'(사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장도장'은 칼집이 있는 작은 칼을 만드는 장인을 뜻한다.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기부한 급여 1%로 운영되는 나눔재단은 올해 장도장을 주요무형문화재 지원 사업 대상으로 정했다. 이번 전시에는 무형문화재 60호 박종근 장인을 비롯해 조영진·박남중 이수자, 윤석철 공예가 등 12명의 작가가 호신용, 장식용 등으로 사용된 전통 장도를 만년필, 카드지갑 등 현대적인 생활 용품으로 재창조한 작품 44점이 공개된다. 권오준 나눔재단 이사장(포스코 회장) .....<후략>



每日新聞 2017.02.28.

1% 나누면 99% 행복이 따라옵니다...포스코(POSCO)



포스코의 사회공헌활동 이 올해로 반백년이 됐다. 1968년 창사와 동시에 시작한 활동은 해를 거듭하면서 덩치를 키웠고, 최근 에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이미지 가운데 하나로 각인될 정도로 대표성을 갖게 됐다. 사회공헌활동은 1988년 지역민과 자매마을을 맺으면서 본격화됐고, 2003년 포스코 봉사단을 공식 창단하면서 더욱 속도를 붙였다. 포스코는 지난해 전체 임직원 10명 가운데 9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1인당 평균 31시간 봉사활동을 했고, 지난해에는 누적 50만 시간을 달성 했다. <후략>

경향신문 2017.06.29.

포스코, 그룹·파트너사, 급여 1% 기부로 만든 나눔재단... 소외계층 복지 서비스·전통문화 보존에도 힘써

포스코는 철강업 본업의 특성을 살려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포스코는 포스코그룹 및 외주 파트너사 임직원이 급여 1%를 기부해 운영하는 비영리공익재단 '포스코1%나눔재단'을 2013년 11월 출범했다. 포스코 1%나눔재단은 출범 이래 포스코의 창업정신과 철강업을 중심으로 한 포스코그룹의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소외계층 사회복지 증진, 국내외 저개발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전통문화 보존 계승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포스코그룹의 '스틸 하우스(Steel House)' 건축 역량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니즈를 반영한 복지시설을 건립하고 있다. <후략>

국민일보 2017.07.25.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기업-포스코] '1%나눔재단' 해외 열악한 주거환경에 희망춧불

포스코1%나눔재단은 최근 베트남 바리아-붕따우성 떠뜨현 저소득가정을 위해 스틸 하우스 104가구를 무상 기부했다. 지난달 현지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권오준 이사장(포스코 회장)과 응우옌 반 쩐 바리아-붕따우성 인민위원장, 입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권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베트남은 포스코가 해외사업 초기 단계에 진출했던 국가"라며 "베트남을 기반으로 포스코의 동남아 사업이 확장된 만큼 결실을 지역 사회와 함께 나누고자 스틸빌리지를 조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베트남 스틸빌리지 건축은 바리아-붕따우성 정부의 저소득가정 주민 거주시설을 조성해달라는 요청으로 이뤄졌다. 바리아-붕따우성은 냉면공장 포스코베트남과 특수강공장 포스코 SS-VINA가 진출해 있는 지역이다. <후략>

全南日報 2018.06.27.

포스코1%나눔재단, 광양국가산업단지 찾아 감사 음악회 개최

포스코1%나눔재단은 "지난 26일 광양 백운아트홀에서 광양 국가산업단지 근로자와 가족 1천여 명을 초청해 '우리의 영웅을 위한 작은 음악회(이하 우영음)'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영음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제조업 근로자의 일터를 직접 찾아가 이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음악회로, 국악?재즈?대중가요 등 여러 장르로 구성된 고품격 문화공연을 선사하고 있다. 2015년 서울 문래동 철공단지 공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2회 진행된 포스코1%나눔재단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진흥사업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국악인 남상일의 사회 아래, 양희은, 안치환, 국립합창단이 다채로운 공연을 펼쳤다. 특히 포스코 및 외주파트너사 직원으로 구성된 '선사인합창단'과 국립합창단의 합동 무대에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이날 무대에 오른 가수 양희은 씨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근로자 여러분과 음악으로 소통하는 오늘 공연은 수많은 무대에 섰던 내게도 흔치 않은 특별한 시간이다"라며 "나의 노래가 여러분께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후략>

노컷뉴스 2018.12.27.

포스코, 미래세대 위한 '키다리 아저씨' 자처



포스코가 우리 미래의 주역인 아동·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키다리 아저씨로 적극 나섰다. 포스코는 사회의 손길이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에게는 '두드림(Do Dream)' '포스코 친친무지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난·거주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취업·창업지원 및 청년쉐어하우스를 건립하는 등 미래 세대가 맞닥뜨리는 사회 문제에 대해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포스코1%나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두드림' 프로젝트는 보육시설에 거주하거나 퇴소한 아동·청소년 자립을 위해 진로개발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포스코 친친무지개'는 이주배경 등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후략>

매일경제 2019.09.06.

포스코1%나눔재단, 광양지역 최초 아동쉼터 '마음나누리쉼터' 개소

포스코1%나눔재단은 6일 정현복 광양시장, 양원준 포스코 기업시민실장,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쉼터인 '마음나누리쉼터'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광양시 최초로 설립된 아동쉼터 '마음나누리쉼터'는 연면적 474.77㎡ 규모의 지상 2층으로 건축됐다. 1층은 상담실, 심리치료실, 음악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2층은 아동쉼터로 남아 5명, 여아 5명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마음나누리쉼터는 국내 최초로 남아 분리된 출입구를 이용하면서도 한 건물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혼성보호 쉼터로 설계됐고, 아동들을 일시 격리해 보호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적 안전을 확보하고 초기 상담에서부터 심리치료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동안 광양에는 아동쉼터가 없어 보호가없어 <후략>

NEWSIS 2019.09.29.

포스코1%나눔재단 기부자 3만 명 넘어... '1%로 시작해 96% 동참'



29일 포스코뉴스룸에 따르면 8월 기준 포스코1%나눔재단 기부자 수는 3만400명으로 집계됐다. 포스코 직원의 경우 참여율은 96%로 조사됐다. 상반기 기준 임직원이 1만 7000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약 1만6300명이 동참한 셈이다. 2011년 포스코 임원과 부장급 직원들이 급여 1%를 기부하면서 시작된 포스코1%나눔재단은 2013년 설립됐다. 그룹사, 협력사 임직원까지 동참하면서 포스코그룹을 대표하는 기부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참여 그룹사는 27곳 <후략>

국민일보 2019.11.08.

포항시·포스코1%나눔재단, 무료급식소 '청림별관' 개관

경북 포항시와 포스코1%나눔재단은 8일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서 무료급식소 '청림별관' 개소식을 가졌다. 청림별관은 총면적 466㎡ 규모로 1층은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소(320㎡, 100석 규모), 2층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북카페(146㎡)를 조성해 건물의 활용성을 높였다. 포항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포스코1%나눔재단이 건축물을 지어 포항시에 기부채납했다. 청림동은 노인 인구 비율이 20%로 높은 편이지만, 기존에 있던 무료급식소가 30여석의 규모에 서로 등이 닿을 만큼 좁고 불편해 설립이 꼭 필요한 시설이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스코 임직원들이 고귀한 뜻을 모아 봉급의 1%씩 모은 기금으로 무료급식소를 개소하게 돼 매우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보살피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 김학동 생산본부장은 <후략>

CNBNEWS 2020.03.25.

[이색 사회공헌 ⑩] 포스코그룹, 1% 나눔으로 '선한 물결' 만든다



포스코그룹 사회공헌의 슬로건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1%의 나눔'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기부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크게 꿈나무 응원, 장애인 돕기,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기 등 세 가지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CNB의 <이색사회공헌> 열 번째 이야기다. 먼저 어린이·청소년을 지원하는 꿈나무 응원 프로그램은 '두드림(Do Dream)', '친친무지개', '1% 나눔 아트스쿨' 등이 대표적이다. <후략>

ChosunBiz 2020.05.18.

포스코1%나눔재단, 취약계층 청년 취업 지원 확대한다

포스코1%나눔재단이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실시하는 '두드림(Do Dream) 사업'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두드림은 2018년부터 만 18세가 되면 아동 보호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보호 종료 청년들의 자립과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년간 총 40여 명이 지원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대상 규모를 35명으로 확대한다. 자립지원금뿐만 아니라 보호 종료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업전략 수립, 이력서 쓰는 법, 모의 면접 등으로 구성된 취업 특강과 정서적 안정감을 위한 멘토링, 지역별 모임 등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한다. 지원 종료 후에는 <후략>

세계일보 2020.06.16.

포스코1%나눔재단, 지역 장애인 체육선수에게 희망 전해



포스코1%나눔재단(이사장 최정우)이 포항 및 광양 지역 장애인 체육선수에게 맞춤형 보조기구와 장비를 지원하는 '희망드림'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15일 포스코에 따르면 희망드림 사업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전문 장애인 체육선수에게 경기용 휠체어와 한궁, 슐런, 론볼 등 단체 종목별 맞춤형 장비를 지원, <후략>



아시아경제 2021.04.20.

### 포스코1%나눔재단, 장애예술인·유튜버 협업 지원

포스코1%나눔재단은 장애예술인과 유튜브 크리에이터간 협업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누적 조회수 700만회를 기록했던 ‘만남이 예술이 되다’ 두번째 기획으로 ‘색(色)을 통해 색(色)다른 예술, 색(色)다른 예술인’이라는 주제로 미술·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장애예술인이 참여한다. 임선균·임제균씨(플루트·트럼펫), 김지희씨(기타), 김형희씨(서양화), 강혜라씨(무용), 김건호씨(피아노), 임경식씨(구필화) 등 장애예술인 12팀이 참여하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로는 빅마블·꿀꿀선아 등 11명이 참여한다. 재단 측은 한국장애인 예술인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발했고 각 팀별로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콜라보 영상과 스토리 영상을 각 한 편씩 만들어 공개키로 했다. 이날 티저영상을 시작으로 다음달부터 10월까지 매달 두 팀씩 영상 24편을 올린다. 유튜브 포스코TV와 각 크리에이터의 개인 채널에 공개된다. 22일부터 재단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재단은 시즌 12에 나온 예술인 작품을 활용해 만든 기념품(굿즈) ……<후략>



SBS Biz 2021.09.27.

### 포스코1%나눔재단, 과학 꿈나무 육성 ‘상상이상 사이언스’ 운영



포스코1% 나눔재단이 친환경 마인드를 갖춘 과학 꿈나무 양성을 위한 ‘상상이상 사이언스 창의·진로 과학교실’을 운영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상상이상 사이언스는 포항과 광양 지역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소재인 철을 이해하고 철에 관한 과학기술과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과학 분야 진로 강연 및 진로 적성 검사 등 과학자로서의 꿈을 키워가기 위한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도 제공합니다. ……<후략>



국민일보 2022.05.31.

### 포스코1%나눔재단, 가족 복지 공로 총리 표창

포스코1%나눔재단은 지난 20일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 가정진흥원이 개최한 ‘2022 가정의 달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2013년 설립된 포스코1%나눔재단은 포스코그룹과 협력사 임직원의 급여 기부(매월 급여의 1%)과 ‘매칭그랜트 방식’의 회사 납입분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비영리 재단이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다문화·탈북 청소년의 진로교육과 학업 지원, 지역아동센터 원생 지원 참여형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인 ‘1% 나눔 아트스쿨’ 운영,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지원하는 ‘두드림(Do Dream)’ 사업, 취약계층 가정 긴급 지원 프로그램인 ‘체인지 마이 타운’ 운영 등으로 가족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향신문 2022.10.27.

### 포스코1%나눔재단, 장애인의 ‘행복한 자립’ 적극 돕는다



포스코1%나눔재단(이사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지난 20일 경북 포항에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행사를 가졌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희망날개’ 사업의 일환으로 포항시 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120명에게 맞춤형 보조기구를 전달하고, 같은날 ‘희망공간’ 사업의 결실인 포항 카리타스 보호작업장과 복지시설 민들레공동체 시설 리모델링 준공 현판식을 열었다. ‘희망날개’ 사업은 포항, 광양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공간’ 사업은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장애인 복지시설의 리모델링과 화재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사업이다. ……<후략>



연합뉴스 2022.04.20.

### 포스코1%나눔재단,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홍보 영상 제작

포스코1%나눔재단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남이 예술이 되다’ 시즌3를 시작했다. 재단은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장애 예술인 24명을 발굴해 44편의 영상을 제작, 유튜브 등을 통해 총 1천 174만뷰를 달성했다. 이번에는 시인 김경원, 화가 양희성, 성악가 이남현, 가야금 연주가 김보경, 웹툰작가 고연수 씨 등 5명의 삶과 창작활동을 담은 스토리 영상을 제작한다. 시즌3 티저 영상은 포스코TV 유튜브 채널과 포스코1%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스토리 영상 등은 연말까지 ……<후략>



현대경제신문 2023.08.28.

### 포스코1%나눔재단, 청소년에 생물다양성 교육

포스코1%나눔재단은 생태계 보호 마인드를 갖춘 청소년을 육성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교육 ‘청소년 지:구하다’를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청소년 지:구하다’는 학생들이 꿀벌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를 따라 여러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생물 다양성에 대해 쉽게 배우고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위험에 빠진 꿀벌을 구하는 보드게임 ‘Bee Cause, 꿀벌을 구해줘’, 원인과 결과를 이용한 이야기 만드는 토론, 꿀벌을 위한 실천행동 다짐하기, 밀원식물 식재하기 생물관찰일지 작성하기 등이다. 비밀의 숲 곳곳에 숨겨진 단서를 수집해 생물다양성을 ……<후략>



매일일보 2023.09.27.

### 포스코1%나눔재단, ‘장애인 디지털 아카데미’ 2기 수료생 탄생

포스코1%나눔재단의 장애인 코딩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장애인 디지털 아카데미’ 2기 수료생이 탄생했다. 지난 26일 구로디지털 훈련센터에서 열린 수료식에는 포스코 최영 기업시민실장,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조영훈 산업정책 본부장, 구로디지털훈련센터 최종환 센터장, 따뜻한동행 이광재 상임이사, 디지털 아카데미 수료생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장애인 디지털 아카데미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청장년 장애인을 선발해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후략>



ChosunMedia 더나은미래 2023.05.23.

### ‘나눔’은 어떻게 사내문화가 됐을까?



지난달 30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시는 전 세계에서 온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전문가들로 북적였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이날부터 사흘간 열린 ‘2023 글로벌 기업시민컨퍼런스(IGCC)’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IGCC는 미국 보스턴칼리지 경영대학 산하 기업시민연구소(BCCCC)가 매년 개최하는 국제 행사다. 기업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주체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컨퍼런스의 슬로건은 ‘회복탄력성을 다시 생각하다(Rethink Resilience)’였다. 제너럴모터스, 네슬레, 월트디즈니, 페덱스 등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 리더와 실무자 500여 명이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나눴다.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후략>



매일경제 2023.10.05.

### 포스코1%나눔재단, 장애인 보조기구 전달



포스코1%나눔재단이 포항 지역 장애인 지원 사회공헌사업인 ‘희망날개·희망공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이날 ‘희망날개’ 사업을 통해 포항시북부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139명에게 맞춤형 보조기구를 전달하는 한편 아이스하키, 배드민턴, 탁구 분야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스포츠 의족과 경기용 휠체어 등을 지원해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게임 준비에 힘을 실었다. 또 포항과 광양 지역에서 진행된 ‘희망공간’ 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 25가구와 장애인 안전시설이 필요한 아동복지시설 11개소의 장애 맞춤형 시설 개선을 완료했다. ……<후략>





# 3,650일을 넘어 다시 시작되는 찬란한 나눔의 여정

2013년 11월 처음 나눔 씨앗이 뿌려진 이후부터 오늘까지  
포스코1%나눔재단은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하게  
3,650일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던 날,  
비바람이 불던 날,  
하늘이 파랗게 높던 날,  
눈보라가 치던 날...

그 모든 날들이 있었기에 나눔 씨앗은 무럭무럭 자라  
울창한 숲을 이루었습니다.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면서  
힘겨워하던 얼굴에 환한 웃음이 꽃 피고,  
어둡고 소외되었던 곳에 희망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이제 다시, 포스코1%나눔재단은  
3,650일을 넘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어떤 날을 맞이하더라도, 함께 하는 나눔의 길이기에  
그 여정은 기쁘고 찬란할 것입니다.

- 포스코1%나눔재단 -







#### 2023 포스코1%나눔재단 10주년 기념백서

발행처 포스코1%나눔재단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동관  
전화 02-3457-1002  
이메일 [nanum@poscofoundation.org](mailto:nanum@poscofoundation.org)  
홈페이지 [www.poscofoundation.org](http://www.poscofoundation.org)  
발행일 2023년 11월